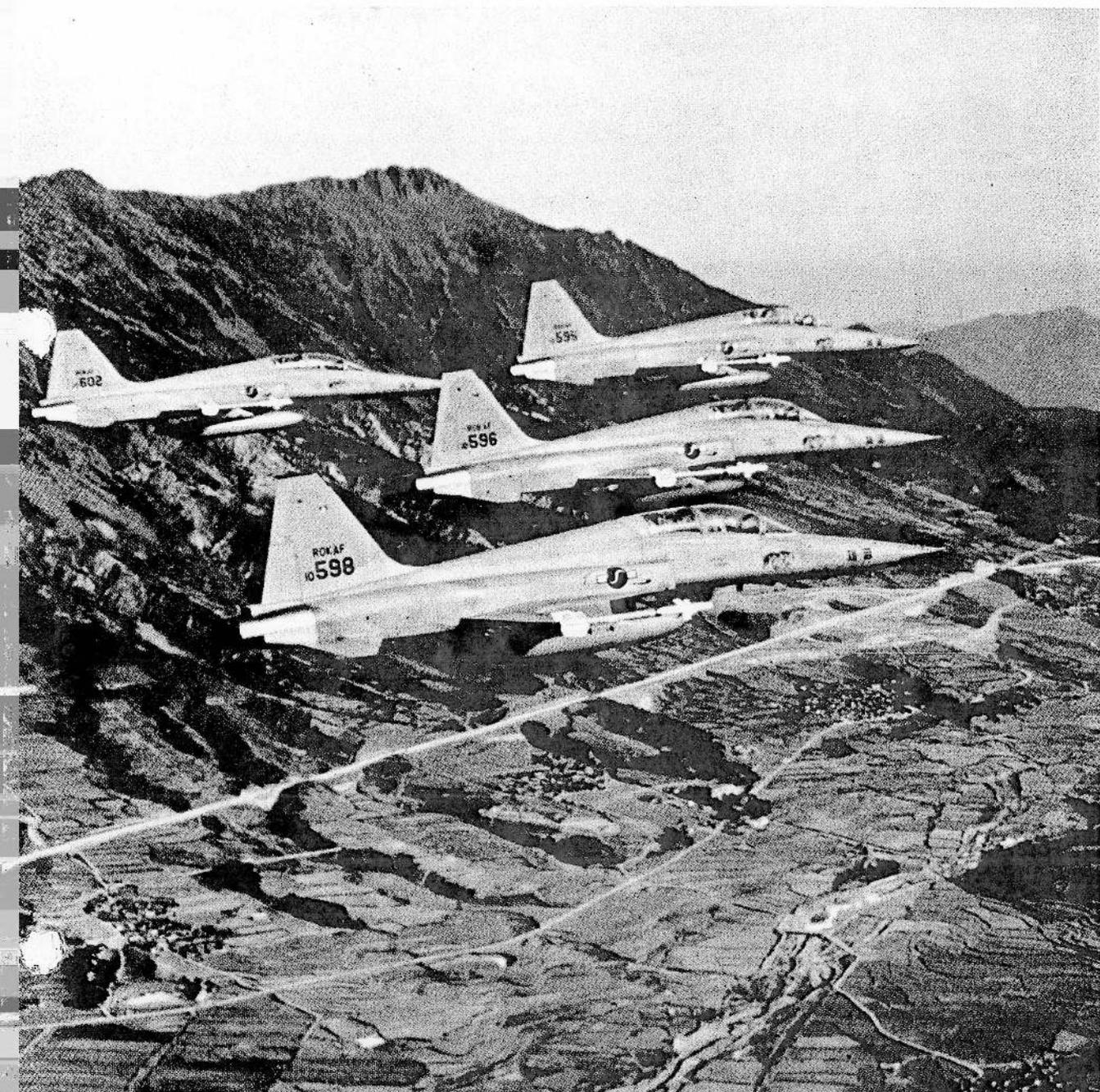


AIR FORCE

空軍

1984



親愛하는 卒業生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는 바와 같이 現代戰의 特徵은 速戰速決입니다.

強大國은 물론 世界 各國이 高度로 精密한 武器體系를 갖추고 있어 戰爭初期에 大勢가 판가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現代戰의 樣相에 비추어 制空權의 確保와 領空防禦는 戰爭의 勝敗를 左右하는 열쇠가 된다고 하겠읍니다.

또한 地上과 海上의 戰鬪에 있어서도 效果的이고도 有機的인 空軍力의 協調와 支援이 있어야만 圓滑한 作戰遂行이 可能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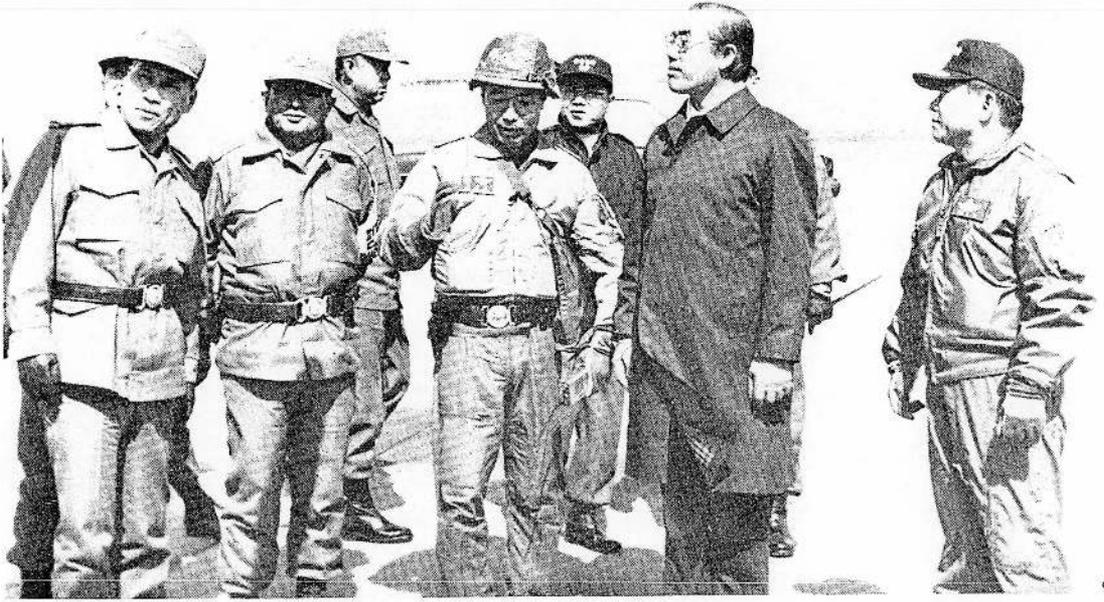
이렇게 볼 때 防空態勢의 確立과 空軍의 戰鬪力 向上은 우리의 安保力量 強化를 위한 核心的 課題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全斗煥大統領, 空士 第32期 卒業 및 任官式 諭示中에서〉

공사 제32기 졸업 및 임관식 거행 <4. 6. 성무대>



전두환대통령은 영부인 이순자 여사와 함께 졸업식에 참석
졸업생들과 인일이 약속하며 격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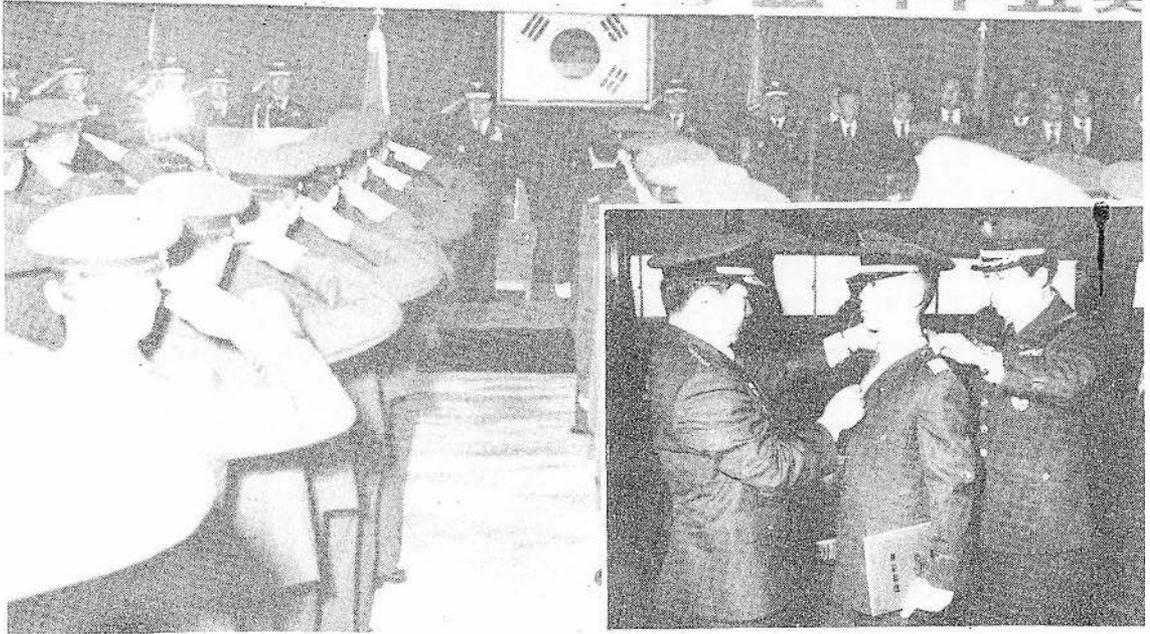


한·미연합 대규모 전력운영시범 (3. 24)

윤성민 국방부장관은 중서부전선○○지에서 실시한 대규모 공중공격시범훈련에서 한·미 고위지휘관과 함께 최신예 전투기 등을 둘러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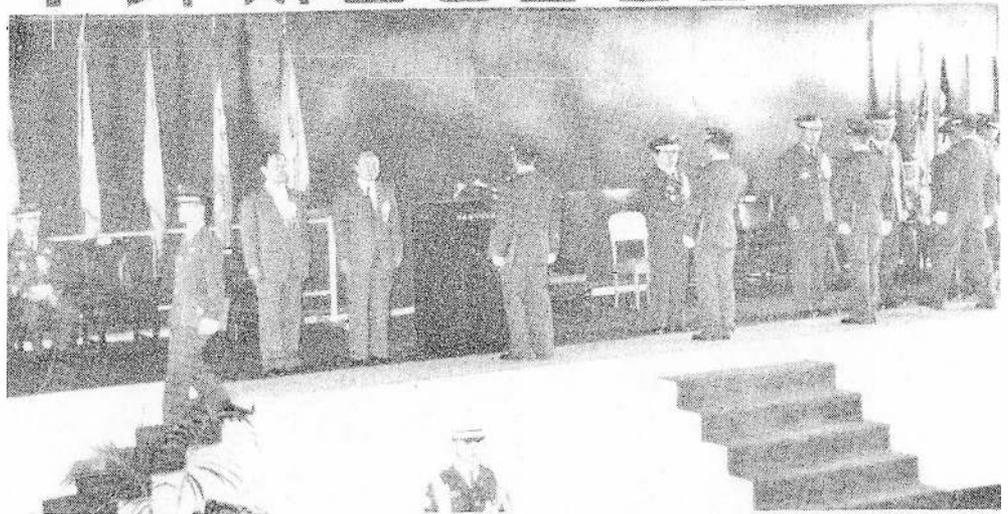


예비역사관 교육수료 및



〈2·24 항공대학〉
제1기 예비역사관 후보생 임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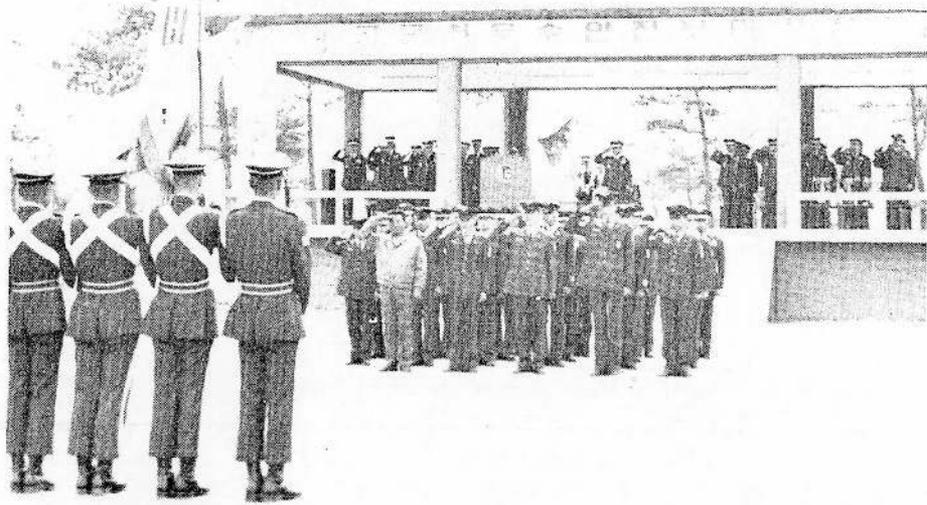
7기 사관생도 졸업 및 임관



7기 제2사관생도 졸업 및 임관
식 거행 〈4·12 제2695부대〉



84년도 제1차 고급지휘관 및 참모과정 졸업식
 거행 (3·16 공군대학)



최우수 안전부대 시상식 거행
 (4·10 제3591부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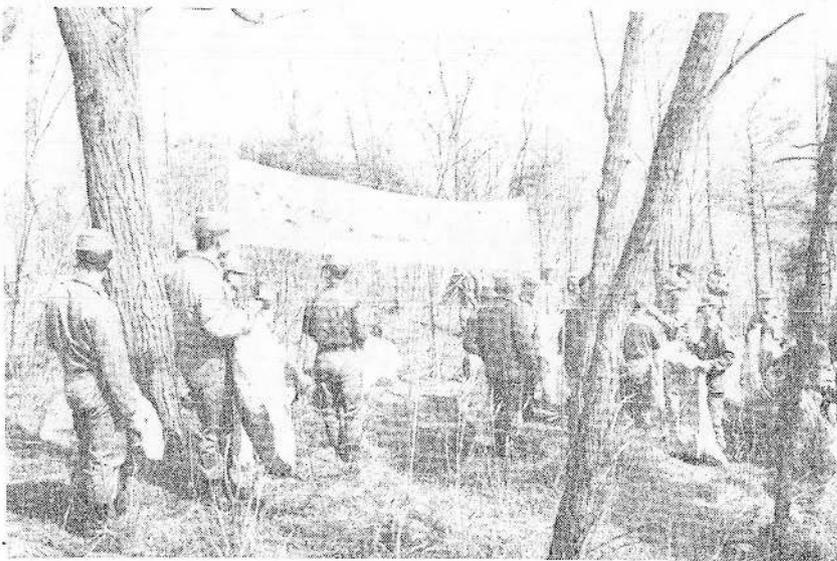
83년도 우수조종사 및 참안유공자에 대한 표창
 (3·9 본부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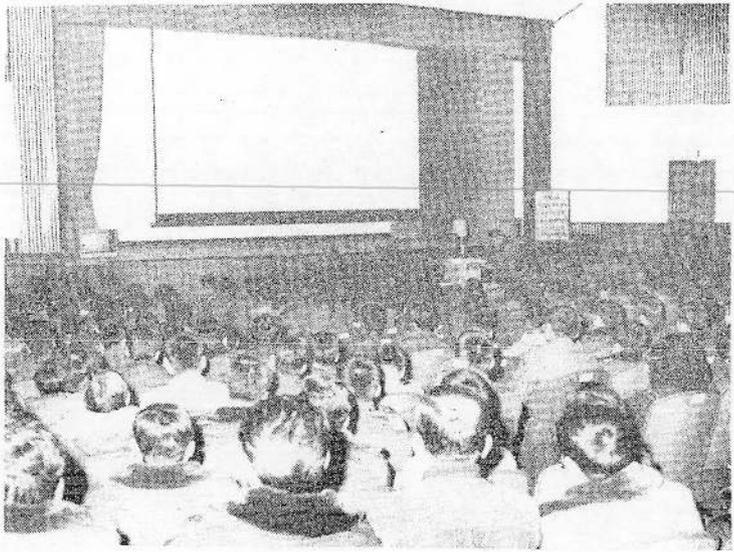
서울 용산중·고등학교 학생, 부대견학
 (3·25 제3591부대)



푸르고 깨끗한 병영을 만들자



새 봄과 함께 식목의 달을 맞아 전장병 및 군무원들은 부대 환경을 정화하고 식수했다.



매주 토요일은 정신교육의 날

目 次

卷 頭 言.....政訓監 金熙中 (1)

北傀의 對南戰略과 우리의 對備策 裴名五 (3)

美·蘇 軍備競爭構造 分析과 東北亞情勢..... 최 병 운 (9)

蘇聯의 對 韓半島 政策.....金燦奎 (19)

우리 經濟의 좌표.....金基大 (25)

우리의 平和統一 努力과 北傀集團의 陰謀.....高錫珍 (31)

精神戰力 精神戰力이 組織效果性에
研究論文 미치는 影響에 關한 研究 崔秉鶴 (60)

軍事知識코너

慣性航法裝置(INS)의 原理.....尹龍鉉 (35)

無人航空機(RPV)의 現在와 장래(上).....尹炯基 (44)

戰場에서의 레이저 技術.....(54)

核戰爭은 과연 일어날 것인가?.....徐光云 (82)

소련의 特權層「노멘클라투라」.....(89)

르뽀 孤立된 共產世襲王朝.....(93)

軍生活과 우리의 마음자세.....김택성 (102)

軍生活과 레크레이션.....김흥기 (107)

歷史의 人物 신라의 忠臣 朴堤上.....(112)

隨 筆 멋있게 미친 사람들.....文重燮 (71)

희망의 조건.....姜唯一 (74)

詩 길.....변상권 (77)

漫 画 보라매 日記.....정운섭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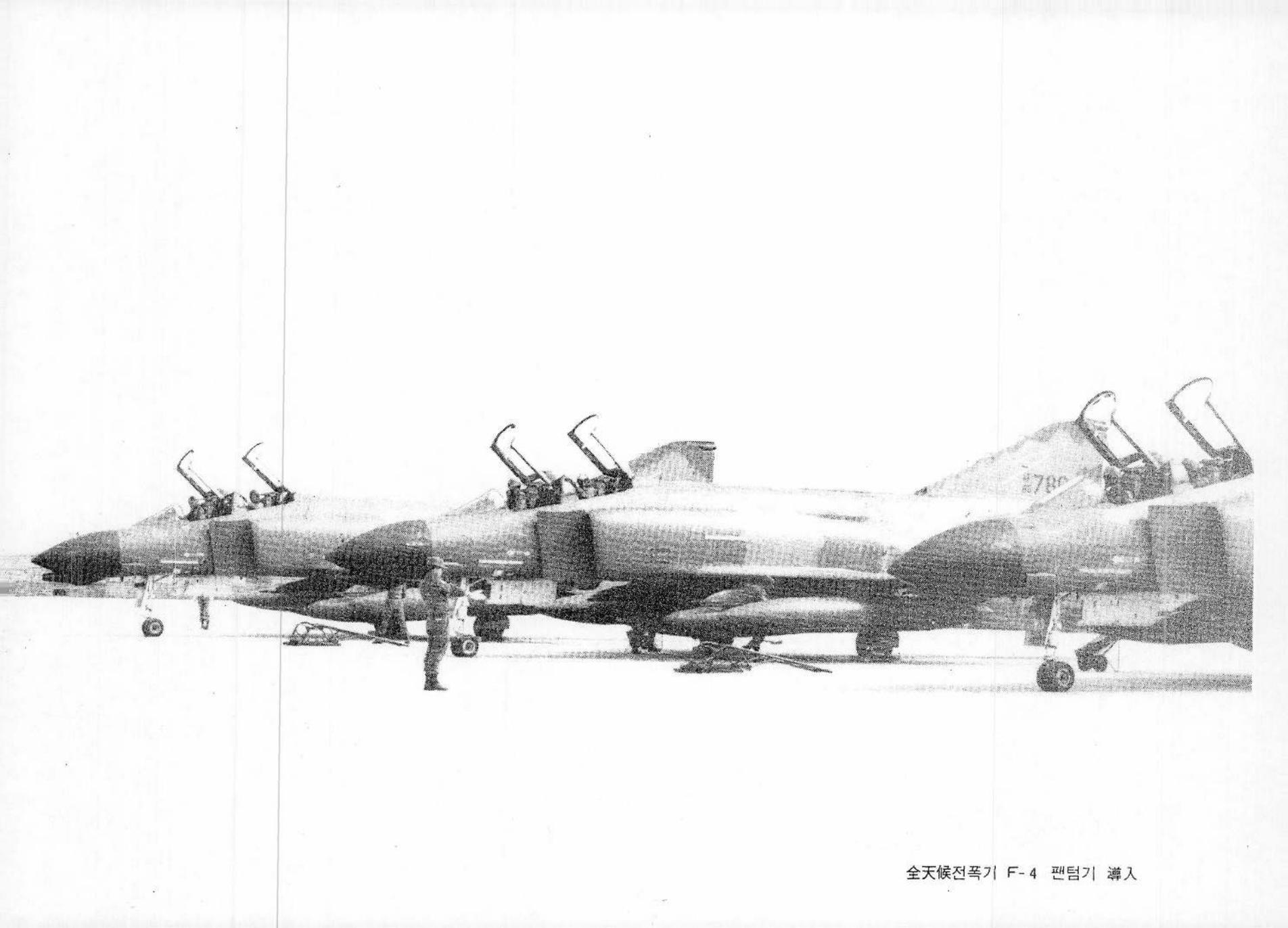
史 話 成婦人의 志操.....(116)

空 軍

1984년 제2호

參謀總長統率方針
制空統一 이룩하자
人 和 團 結
人 機 練 磨
見 敵 必 勝

空 軍 本 部



全天候전폭기 F-4 팬텀기 導入

“韓半島”는

世界平和의 要衝地



政 訓 監
空軍准將 金 熙 中

레이건 美國 大統領은 '84年度 外交政策 연설을 통해서 「美國의 軍事力 增強으로 美國의 抑止力은 과거 어느 때보다 더욱 신뢰성이 있게 되었다」고 강조하면서 「信賴할 수 있는 抑止力도 平和的인 競争 이외에의 어떤 다른 代案도 있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國際紛争 해결에 있어서 武力使用 및 武力의 威脅을 감소시킬 方法을 찾아낼 必要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지금까지 미국이 생각해왔던 韓半島의 重要性을 그 어느 때보다 강조하였던 것이다. 韓半島는 美國安保戰略에 지금까지는 2급지역으로서 “대체로 世界 安保에 重要한 지역”(Important Battle Area)으로만 평가해오던 것을 금년도에는 “生存에 위협을 주는 地域”(Survival Battle Area)으로 1급 危險地區로 강조하였다.

뿐만 아니라 금년도 趙紫陽 中共수상이 美國을 방문했을 때 「世界平和 維持에 美·中共 두 나라가 責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韓半島의 安定이 世界平和에 重要하다는데 그 뜻을 같이 했으며, 日本과 蘇聯도 韓半島에 깊은 관심을 表明하면서 이와 같은 뜻에 同感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韓半島 安保의 重要性이 美·中·日·蘇 등 世界 強國들에 의해 더욱 강

조되고 있는 이때에 北韓 共產主義者들은 昨年 랭군 암살 폭발 사건과 다대포 간첩 침투 등을 통한 끊임없는 도발을 자행하고 있으며, 今年 初에는 南·北·美國의 3者會談을 제의하여 美軍 철수를 유도하는 등 南韓의 혼란과 불안정을 야기시키어 南侵의 기회를 틈틈이 노리고 있다. 더우기 우려를 낳게 하는 것은 北韓 内部의 政治的, 經濟的, 社会的 不安定이 돌발적 사태를 유발시킬지도 모르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9년간 계속되고 있는 팀스피리트 '84 韓·美 양국 合同 聯合軍事訓練은 世界 속에서 韓半島의 重要性和 北韓 共產集團의 위험성을 강조해주는 것으로서, 우리의 安保태세확립과 國防力 증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하와이, 필리핀, 오키나와 등에서 이동되는 6만여명의 美軍과 최선에 대형수송기, UH-60 블랙호크 헬리콥터, 항공모함 전투단 등 육·해·공군 최선에 장비가 동원되어 韓半島 地域 돌발사태에 대비한 이동전개, 상륙과 기동훈련 및 복귀절차 등을 훈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온 世界의 이목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空軍將兵들이 한반도의 중요성과 우리의 위치를 정확히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필수적인 인식 과제라 할 수 있다.

세계 強國들이 갖는 관심은 오로지 自國의 이해와 관계되는 한반도 安定만을 바랄 뿐이지만 우리 韓國民에게는 生存에 직결되는 安保와 安定이 요청되는 것이다.

모름지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知彼知己, 百戰不殆)고 하였으니 한반도의 중요성과 더불어 우리가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北韓 公산집단의 南侵 계략을 냉철하게 직시함으로써 必勝의 制空態勢 確立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北傀의 對南戰略과

우리의 對備策

裴 名 五

(國防大學院 教授 · 北韓問題研究室長)

1. 머리 말

지난 1983년에 우리 나라는 北傀를 비롯한 이른바 北方3角關係國으로부터 例年과 전혀 다른 새로운 形態의 軍事的 挑發과 衝擊的 事件이 잇달은 특수한 한 해가 아니었던가 싶다.

5월에 中共 民航機라는 참으로 뜻하지 않은 不請客을 맞아 우리는 적지 않은 溫情을 베풀어 불안스런 乘客들을 따뜻이 대접했고 機體도 손질하여 北京으로 되돌려 주었다.

9월에 들자 이번에는 大韓航空 007機가 蘇聯領空에서 길 잃고 헤매는 신세가 되었으나 蘇聯은 우리와 같은 溫情을 베풀어 주지 않았다. 非武裝 民間旅客機인줄 알면서도 邀擊戰鬥機를 띄워 미사일攻擊으로 多國籍 269名의 고귀한 人命을 순식간에 앗아가는 空中大虐殺 蠻行을 저지른 것이다.

世界가 깜짝 놀랐다. 補償問題는 커녕 똑똑한 謝過의 말 한마디 없던 그런 참에 또

다시 世界를 뒤흔든 끔찍한 事件이 發生했다. 이번의 主犯은 北傀였다. 10月 9日, 장소는 버마의 「아웅산」墓所, 大韓民國 外交使節 일행에 대한 北傀 特殊工作要員의 暗殺爆發態行이 그것이다.

따라서 1983년에 大韓民國은 韓半島의 이른바 北方3角關係를 형성한 北韓·中共 그리고 蘇聯 가운데서 中共을 人道的으로 도와 준 반면에 蘇聯과 北傀로부터는 차례로 무자비하게 당하고 말았다.

北傀는 소위 「外交部 聲明」이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버마事件을 韓國의 自作劇이라고 뒤집어 씌우다가 여의치 않자 버마측 反政府 團體의 所行으로서 그들과는 無關하다고 능청을 떨었다. 그러나 수사 결과 北傀 테러집단의 所行임이 滿天下에 드러났고 그에 따라 버마當局의 斷交措置와 政府承認마저 취소당했다.

世界輿論은 對蘇 및 對北傀 糾彈과 강력한 制裁를 촉구했고 “당하고만 있어야 하느냐”는 이 나라 國民의 분노는 對北 膺懲報



復論까지 대두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155마일 休戰線 일대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싸늘한 緊張感이 감돌았으며 世界耳目은 韓半島로 모아졌다.

이 무렵 美軍이 「그레나다」에 進駐하자 상당수의 北傀테러要員이 中南美地域에도 浸透되어 있는 것이 發覺되었다. 이렇게 되자 “世界紛爭 있는 곳에 北傀人 있다”라는 새로운 通用語가 國際社會에 등장하기도 했

다. 이제 北傀는 政治集團이기에 앞서 赤軍派와 「마피아」團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史上 최대규모의 테러組織으로 烙印적했다.

이렇듯 汎世界的인 糾彈의 소리가 높아질 때 아무리 非理性的 集團이라고 하더라도 조그만 自肅이라도 있어야 마땅했다. 그러나 그같은 常識이 北傀에게만은 통용하지 않았으며 그들의 테러根性은 여전히 그칠줄 몰랐다. 이번의 対象은 国内였다.

구랍 12月 3日, 多大浦 海岸으로 浸透하려던 北傀 武装間諜 2名이 우리 哨兵에 의하여 生捕되었으며 또 하늘과 바다에서의 立体作戰으로 도주하던 間諜船마저 擊沈되었다. 1983년에 들어 臨津江 河口地域을 비롯한 東·西海岸 浸透를 노린 武装間諜의 투입과 大邱 美文化院 放火事件 등 国内에서 試圖된 다섯번째의 對南挑發이었다.

이와 같이 매년 어김없이 恣行되어 왔을 뿐 아니라 앞으로는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北傀의 對南挑發劃策이 그들의 對南政策上 도대체 어디에 根源하고 있을까? 그것은 再言의 여지없이 韓半島 全体赤化라는 그들의 궁극적인 目標를 달성하기 위한 北傀의 對南戰略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2. 北傀의 對南戰略

北傀가 추구하는 南韓革命의 基本路線은 이른바 「3大革命力量論」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이는 1964年 2月 北傀党中央委員會 第4期 8次全員會議에서 확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에 대한 최초의 發說은 1965年 4月 인도네시아의 「알리아르함」社会科学院에서 金日成이 행한 論題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에서의 社会主義 건설과 南朝鮮 革命에 대하여”라는 연설에서 發端되었다고 하겠다.

이 北傀의 3大革命力量論은 ① 北傀内 自体革命力量의 구축 ② 南韓内 同調革命力量의 부식 ③ 國際的 支援革命力量의 확대 등

크게 3가지로 大별되는 內容을 담고 있으며 이를 간략히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北傀内 「自体革命力量의 구축」에 대하여 金日成은 “共和國 北半部に 社会主義 建設을 잘하여 우리의 革命基地를 政治·經濟·軍事的으로 더욱 強化”하는 것으로 했고 北傀党 창립 22주년 記念席上에서는 “우리 党은 항상 共和國 南半部に 있어서의 革命과 建設을 朝鮮革命의 일부부분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北半部를 전국적인 民族解放 위업을 완수하기 위한 革命基地로 보고 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따라서 南韓解放을 위한 革命基地化의 政治·經濟 및 軍事分野 가운데서 軍事力量의 구축이 바로 1962年 12월에 채택된 惡名높은 「4大軍事路線」의 강행이 되고 있다.

둘째, 南韓内 「同調革命力量의 부식」은 韓国内部에 北傀体制를 지지하거나 동조하는 共產勢力이 扶植되어 이 세력이 韓國을 지배함으로써 韓半島 전체가 北傀가 주도하는 共產化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目的을 두고 있다.

그러나 韓國의 安保努力이 계속되는한 현실적으로 北傀가 기대하는 南韓内的 同調革命力量이 쉽사리 扶植되지 않는다고 볼 때 그렇게 되도록 하는 強制的인 契機造成의 여러 가지 方法이 추측되며 이것이 곧 對象地域을 南韓으로 국한시킨 北傀의 核心的인 對南戰略의 基調가 되는 것이다.

세째, 國際的 「支援革命力量의 확대」는 北傀가 韓半島 全体赤化를 위한 南侵戰 도발을 감행할 때 美軍介入의 저지를 비롯한

國際的인 協調와 支援을 보장받기 위한 저 의에서 劃策되는 것이 基本目的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이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北傀는 이른바 「社會主義 東方 哨所」로서 蘇聯을 대리하여 世界赤化의 先導的 역할도 담당하겠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北傀가 「朝鮮革命의 對外的 與件」으로서 世界革命이 지배적이라고 믿는데서 비롯되며 따라서 「국제적 담보」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北傀는 中·蘇로부터 軍事援助를 받고 있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第3國이 世界革命의 對象國으로 지목되기만 하면 곧 여러 가지 支援 및 暴力輸出을 서슴치 않았으며 66年이후 中南美·中東·아시아 및 아프리카 등의 左傾團體 테러組織과 反政府 團體에 연계를 맺어 각종 형태의 革命輸出을 恣行하여 왔다.

대체로 1966年부터 82年사이에 北傀內로 초청하여 3개월부터 18개월 과정의 階梯라 訓練으로 逆輸出한 인원은 35개국과 5천명 이상이고 또 北傀가 직접 테러에 가담한 事件만도 28개국 33회에 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상과 같은 北傀의 3大革命力量은 地域的으로 北傀內部와 南韓 및 世界舞臺를 겨누어 韓半島 全體赤化를 달성하는데 기여하도록 짜여져 있으나 그 가운데에서도 南韓 侵略의 「決定的 時機造成」을 위한 對南戰略의 核心力量은 第2項이 되며 이를 위한 平素의 노력은 이른바 美帝에 의한 北侵可

能性을 강변함으로써 駐韓美軍의 全面撤收를 世界에 호소하는 것이 當面된 北傀의 課題가 되고 있다.

원래 이 決定的 時機造成策은 人民民主主義 革命路線에서 發想된 것이었다. 北傀는 南韓內의 同調革命力量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反革命 勢力을 타도하고 이를 먼저 除去하여야 한다는 戰術原則 아래 第1의 攻擊對象으로 美帝를, 그 다음에는 美帝에 추종하는 買辦資本家 및 反動官僚로 규정되고 이들을 打倒할 革命主力軍으로서 勞動者 및 農民을 골간으로 하는 所謂 「民主學生 및 民主人士」를 列挙하여 왔다.

人民民主主義 革命路線의 基本目的을 「先革命·後統一」에 두고 있었으나 韓國民의 反共思想이 엄청나다고 실토한 金日成으로서는 南韓에 대하여 어떠한 軍事的 動機를 자극시키지 않는 한 그와 같은 決定的 時機가 요원할 것으로 판단하여 그 사이 反共人士일지라도 韓國內의 「反政府·反美傾向者」를 이른바 民主人士로 호칭하면서 이들의 포섭에 노력하는 한편, 第3國을 우회한 不純分子의 침투와 拉北漁夫에 대한 세뇌 공작을 劃策하여 固定間諜 활동을 방조했으며 軍事的으로는 수많은 武裝間諜의 침투를 恣行하였고 心理戰의 일환으로 존재하지도 않은 統革黨을 조작하여 對南黑色放送과 非武裝地帶內의 대형 擴声器를 통한 비방선전을 일삼아 왔다.

특히 強制的인 決定的 時機造成策으로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方法이 韓國으로의 武裝間諜 투입과 外國에서의 韓國要人을 대

상으로 하는 테러行為로 발전하며 北傀는 休戰以後 총 8만여회에 달하는 大·小挑發을 恣行한 바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昨年の 버마暗殺爆發事件을 비롯한 國家元首에 대한 危害企圖가 6회에 달하고 多大浦 浸透와 비슷한 수많은 武裝間諜의 투입과 우회침투, 500여회에 달하는 航空機 및 漁船의 납치 그리고 海外旅行者와 留學者를 대상으로 가진 惡辣한 手法을 恣行한 것도 30여회에 이르고 있다.

더우기 北傀는 우리와의 国力隔差가 점점 擴大一路에 있게 되자 더욱 초조한 나머지 對南 테러行為를 보다 加重시킬 준비에 광분하고 있으며 최근의 特異活動으로는 北韓의 平山·谷山 등에 靑瓦台와 中央庁의 模型을 만들어 놓고 特攻部隊 要員에 대한 기습훈련을 강화하고 있으며 雲山에는 서울 中心街의 模型圖를 작성하는 등 北傀内에는 이같은 訓練場이 150여개소가 設置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이같은 作戰에 동원될 수 있는 北傀의 非正規戰部隊는 正規兵力의 10분의 1을 상회하는 10萬名으로서 1개 特殊軍團 산하에 3개의 上陸特戰團을 포함하는 26개의 각종 特殊旅團 이외에도 3개의 空中浸透部隊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다.

年初에 金日成은 이른바 「新年辭」라는 것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昨年の 경우 한마디의 言及이 없었던 軍事 및 對南分野가 크게 강조되었다는 점이다. 즉, 金日成은 “올해에는 적들의 妨害策動을 물리치고 統一을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鬪爭할 것”을 요구하면서, 北傀軍과 全體人民의 戰爭準備를 더욱 강조한 것으로 보아今年에도 예외없이 보다 激化된 對南挑發을 강행하겠다는 金日成의 指令이라고 보겠다.

더우기今年에는 例年과 다른 새로운 方法의 北傀 테러行為를 推定할 수 있는 것은 레바논에서 美國 平和維持軍의 司令部 건물이 소수 게릴라의 所行으로 成功的인 爆破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될 것이다. 이는 확실히 北傀의 對南 테러恣行 指令者를 鼓舞시켜 주었던 事件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와 비슷한 北傀의 테러手法이 劃策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특히 그 사이 地下 터널 및 海岸浸透가 우리 軍의 鉄桶 같은 警戒와 対応措置로 빈번히 失敗한 점을 감안한다면今年에는 武裝間諜의 空中浸透도 충분히 예상된다고 하겠다.

3. 結論 - 우리의 對備策

1984年,今年은 北傀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할만한 아래와 같은 對內外的 情勢가 山積된 한해가 아닌가 싶다.

① 美·蘇間의 新冷戰 氣流와 체르넨코 登場에 便乘한 金日成의 對蘇 阿附根性 露呈으로 韓·美兩國에 대한 北傀의 노골적인 挑戰이 예상되고 있다는 점.

② 레바논事態에 美國의 발이 묶여 있는 印象과 함께 최근 이란·이라크間의 拮戰에 따라 페르시아灣의 不安과 「호르무즈」海峽의 封鎖危機에 美國의 關心이 집중되고 있는 사이에 그 反對軸인 韓半島에서의 北傀

에 의한 불장난이 예측된다는 점.

③ 傳統的으로 美国 大統領의 選舉年度에 是 美政府의 対応措置가 매우 소극적이었다는 사실을 想起할 때 韓半島에서의 대담한 北傀의 對南挑發이 예상된다는 점.

④ 国会議員 選舉 및 教皇의 訪韓 등 韓國의 国家的 主要行事가 今年에도 있으나 특히 86아시아 게임과 88 世界올림픽 開催年度가 다가옴에 따라서 이를 妨害하기 위한 北傀의 대담한 行動이 今年에 고비가 될 것이라는 점.

⑤ 韓國의 國際的 地位가 刮目하게 公고해지고 南·北間의 經濟的 隔差역시 深化될 뿐 아니라 우리 國軍의 戰力增強이 急速度로 추진되고 있는데 北傀가 몹시 초조해하고 있다는 점.

⑥ 姜成山을 登用시키는 등 버마事件 失敗의 추궁과 經濟的 破綻에서 헤어나기 위한 北傀 黨 및 官僚組織을 改編했으나 金正日 世襲體制에 대한 北韓住民의 不滿이 근

원적으로 解消되지 못했다는 시점에서 住民 關心의 對南轉換이 필요하리라는 점 등이다.

× × ×

全斗煥大統領께서는 國政演說을 통하여 “暴力으로부터의 自由”를 力說했고 또 지난 2月 8日 國防部를 순시한 자리에서는 「가차 없는 膺懲態勢」를 다짐하면서 “北傀가 軍事적으로 侵攻하여 온다면 여러 가지 形態가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우려되는 것이 特殊部隊의 侵攻인 만큼 우리 軍은 警察·豫備軍·民防衛隊 등 모든 機關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이에 대한 具體的이고도 철저한 對備態勢를 갖추어 나가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이와 같은 閣下의 卓見에 한치도 어긋남이 없이 諸般政策을 推進해나가는 것만이 北傀의 對南戰略에 대한 최상의 對備策이 될 것이므로 私見의 提示는 省略하되 다만 前述한 今年의 特殊性格上 우리 國民의 보다 結束된 安保意識의 浮揚과 처계 體態 勢確立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다.

美·蘇 軍備競爭構造分析과 東北亞情勢

소령 최 병 운

(공군사관학교·교관)

1. 序 論

軍事力強化의 構造는 일반적으로 2가지 基本的인 凡例(paradigm)로 설명이 된다. 하나는 국가의 内部的 原因(Autism) 즉 白日夢을 수반하는 자기만족의 경우와 다른 하나는 國際的인 作用-反作用(international action and reaction process) 과정에서 설명이 된다. 1)

「美·蘇의 軍備競爭」을 理解하는 凡例로는 後者の 경우가 적용이 되나 時間的 次元에서 경쟁을 完全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批判이 學者들 간에 있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相互作用을 하는 軍備競爭은 國際紛爭, 強大國사이의 關係, 特定國家의 軍備政策에 關한 性格을 研究하는 中心概念으로 널리 使用되어 왔다.

2차대전 이후 軍備의 일반적인 變化 趨

勢는 質的으로 正確性, 破壞性 및 精密性이 高度化되었을 뿐만 아니라 量的으로도 엄청나게 증가하여 세계 전체 國防費는 5천 億弗로 아프리카 군동의 총 G. N. P 보다 많고 U. N. 예산의 500배가 남으며, 이중에서 3,500億弗(전체의 약 75%)는 미국과 소련이 사용하고 있는 액수이다. 2)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금액을 投資하는 미국과 소련의 軍事行爲가 그들의 領土內에 局限되지 않고 그 범위를 훨씬 넘어서 범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結果가 여러가지 國際政治의 變化 즉 情勢를 惹起시키고 있다는 것이 重要한 問題인 것이다.

바로 이 問題가 이 글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題目으로서 「東北亞에서 美·蘇의 軍備競爭」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이다.

그러나 競爭의 行態를 설명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破壞力을 측정하는 몇가

지 指標 또는 特種 武器의 指標라는 프리즘을 통해 가능하고 좀더 세밀한 분석에는 더 복잡한 指標를 使用하게 된다. 이 경우 이러한 복잡한 指標를 전부 사용하기에는 짧은 글로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군비예산과 개괄적인 武器体系의 분석만을 指標로 택하고자 한다.

2. 美·蘇의 軍備競争構造

가. 소련의 군비에 대한 見解

2차대전 후 미국과 소련의 경쟁은, 소련의 팽창을 억제하는 미국의 軍事政策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면서, 미국의 군사적 우월이라는 상태에서 冷戰体制로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소련의 Sputnik 발사 성공 후 미국의 핵억제는 균열이 생기게 되면서 거시적인 측면에서, 핵확산금지조약, 전략무기제한협정 등의 데탕트체계라는 잠정적인 타협으로 전개되었다.

이와 같은 국제환경 속에서 西邦의 많은 學者들은 平和主義的 見解에서 軍備예산의 감축을 요구했고, 여기에 월남전의 후유증으로 美國에서는 Nixon doctrine 이래 Carter 대통령에 이르는 시기동안 군사정책이 소극적으로 약화되었다.

그러나 帝政 러시아시대부터 소련의 군사적 전통은 군사문제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형성되었기 때문에 소련 체제에서도 군사력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여전히 강력한 지지를 받아왔다. 그

후 소련의 군사교리는 「戰爭은 政治의 連續」이라는 Clausewitz의 理論을 基本命題로 하여 核時代에도 불변의 진리로 적용되고 있다. 그래서 平和共存이 核戰爭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³⁾이기는 하지만 소련은 정치의 연속으로서 戰爭의 役割에 관해서는 과거나 마찬가지로 有效하다고 評價하고 있다.

소련이 평화공존에 합의했을 때 서방에서는 진정한 세계평화가 달성될 것이라는 단일한 생각이 만연되었으나 소련의 팽창정책의 추구는 결국 그들의 戰爭觀이나 世界觀에 전혀 變化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되었다. 이는 소련이 公式으로 平和共存 자체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사이의 계급투쟁을 완화시키거나 그들 사이의 대립을 소멸시킨 것이 아닐뿐더러 두 사회체제의 본질을 변경시킨 것도 아니며 나아가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사이의 계급간의 평화, 공산주의 이념과 자본주의 이념 사이의 평화공존을 지금까지도 없었고 현재도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⁴⁾라고 말함으로써 그들이 타협할 수 있는 한계가 무엇인가를 위에서 설명하고 있으며 결국 평화공존은 잠정적 정책으로 열세한 군사력을 육성하는데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얻는 것에 불과하고 현실적으로 이 시기에 소련은 국방력 강화를 위한 체반 노력을 지속했던 것이다.

그 예는 “사회주의 조국의 방어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적의 방어능력”을 구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언에서 찾을 수

있고 소련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격을 준비하는 적집단, 발사위치에 장착된 로켓(미사일), 기타 통신 전자시설, 연료 무기 저장고에 강력한 기습공격을 가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⁵⁾ 또 이들은 선제기습 공격까지도 방어라고 하며 침략의 개념을 누가 먼저 공격했는가라는 관점이 아니라 그 전쟁이 가지는 정치적 성격이 무엇인가 하는 점에서 설명하는 동시에 자신들은 항상 正義戰爭만을 수행하며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기술적 모든 분야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어야 하는 것이 필요조건이라고 말하는 바 소련이 무기경쟁에서도 우월한 위치를 획득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임을 알 수 있다.

실질적으로 소련의 계속적인 군비증강은 서방진영의 사람들이 가졌던 신기루같은 평화의 꿈을 깨웠으며 80년대 신냉전 체제라고 하는 적나라한 군사적 대치를 초래했던 것이다.

나. 美·蘇軍備政策決定의 特徵

미·소의 군비경쟁이 어떤 체제속에서 이루어져왔는가 하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전쟁에 대한 見解와 이를 준비하는 態度에서 理解될 수 있다.

歴史的인 趨勢로 볼 때 美国이 競争에서 선두를 달리는 Actor 役割을 해왔고 소련은 미국과 균형을 이루고 더 나가서 그들에게 유리하고 우월한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Reactor 役割을 해왔다.

그러나 軍備政策이 決定되는 過程은 많

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예는 아이젠하워대통령이나 후르시초프가 그들의 측근(=정책결정과정에서 조직과정 또는 판료 정치모벌의 결정자들)과의 대화에서 잘 나타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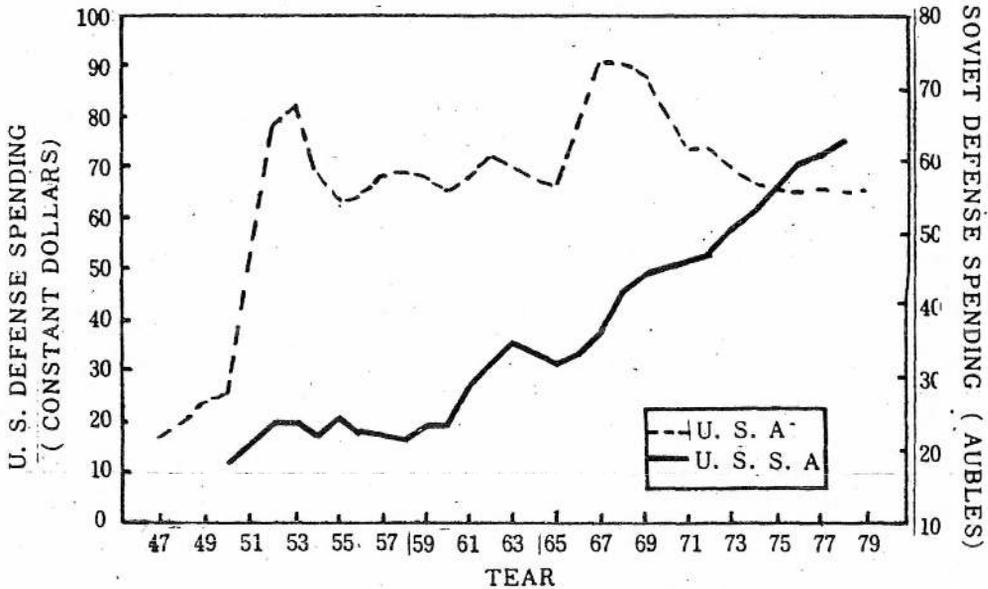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말하기를 “우리 군사지도자들이 내게 와서 각하! 우리는 이리이러한 계획을 위해서 저러저러한 만큼 돈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할길래 나는 미안하오 우리는 돈이 없질 않소. 라고 대답하니 그들은 다시 소련이 이미 그들의 이리이러한 계획을 위해서 예산을 배당했다는 믿을 만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필요로 하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우리는 소련에 뒤질 것이라고 말해서 나는 허락했다. 후르시초프도 나와 같이 그들의 몇몇 군부지도자가 그에게 와서 후르시초프 동무! 이것좀 보시오 미국이 이리 이리이러한 체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같은 체제를 개발해야 되며 이리이러한 비용이 듭니다. 그가 돈이 없다하자 만일 우리가 필요로 하는 돈을 얻지 못하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적은 우리를 능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고 좀더 토의를 거쳐 그들이 요구하는 돈의 사용을 허락 했을 것.”⁶⁾ 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후르시초프도 그의 군부지도자들이 “만일 당신이 오늘 국방에서 경제적으로 노력하지 않는다면 내일 전쟁이 일어날 때 피로서 지불해야한다.”⁷⁾고 협박하는 것을 불평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상의 두 인용문을 통해서 보면 미국이나 소련이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

지고 있는지 알 수 있으며 그 결정과정의 특징은 상대방에 대한 Reaction으로서 결정된다고 하는 것이다. 실제로 투입된 미국

과 소련의 국방비를 단위금액으로 비교하면 다음 그림에서와 같은 증가추세 및 양국의 상대적 비교가 가능하다.

美·蘇의 軍事費 比較



출 처 : Miroslav Nincic, OP · Cit., P. 61

* 자료분석 : 미국 군사비는 1972년도 달러불변가이며, 1955년~1975년의 소련군사비는 CIA에서 평가한 루블이며, 1976년과 1977년에는 CIA의 소련군사비 평가를 사용한 것이며, 1978년 루블가치를 그해 달러가치의 %변화를 전년도 기준에 적용하여 평가한 것임.

위 도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미국이나 소련이 연도에 따라서 감소하기도 한 연도도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증가되어 왔다. 그러나 연도별로 군사비가 감소된 정치 군사적인 이유는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았으나 競争의 Action-Reaction 과정에서 한쪽이 군사비를 감소했다고 해서 다른 쪽이 따라서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Action-Reaction理論의 단점으

로 지적되고 있다.

2. 東北亞의 國際情勢

가. 變化의 歷史的 背景

역사적으로 동북아에서 군사력 균형체계의 큰 변화는 1970년대 초반까지의 미·소의 대립과 중·소의 대립에서 미국과 중공이

외교적 화해를 하게 되면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소련은 동북아에서 미국과 중공의 연합된-동맹은 아니나 냉전체제의 이념대립에서 화해한 것은 中共의 군사적 활동을 소련에 집중할 수 있고, 미국과 중공은 서로의 행동을 양해할 수 있다는 의미-세력에 대항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미국과 중공의 화해는 양국가의 국내적 정치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앞의 도표는 월남전 이후 미국의 군사비가 감소추세로 나가고 있는 것과도 일치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소련의 경우는 동북아로부터 갑작스런 강적의 조우와 서방에서 핵교착-서방의 문제는 이 글에서는 생략했음-으로 Détente에 동조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소련은 Détente의 분위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열세에 빠진 동북아 군사력의 증강에 필사의 노력을 경주하였다.

이러한 소련의 노력과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미국의 군사비는 감소되고 이 사실은 닉슨대통령 이후 카터대통령시대까지 진행된 동북아에서 미군의 철수 정책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물론 미국은 나름대로 안보환경 구축에 노력하면서 조치로서 미·일·중의 동북아의 三角体制를 구상했다. 여기서 한반도의 중요성은 三角体制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케 하는 핵심적인 것인데 카터대통령은 한반도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여 기본체제의 탄력성을 약화시키는 결정적인 정책 오류를 범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소극적 태도, 중공의 자원 부족, 일본의 냉담으로 3각체제는 소련의

팽창을 효과적으로 저지하기에는 미력하였다. 미국의 이러한 정책은 동북아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구조에서 “미국의 약화”로 나타났고 “실추된 미국의 위신을 회복”한다는 레이건대통령의 선거공약은 범국민적 지지를 받기에 이른 것이다. 결과적으로 “대한 공약강화”는 미국의 극동정책변화의 핵심으로 표현되었고, 덧붙여 일본의 방위비 증가를 효과적으로 증가하게 했다.

나. 동북아의 美·蘇軍事力 對峙現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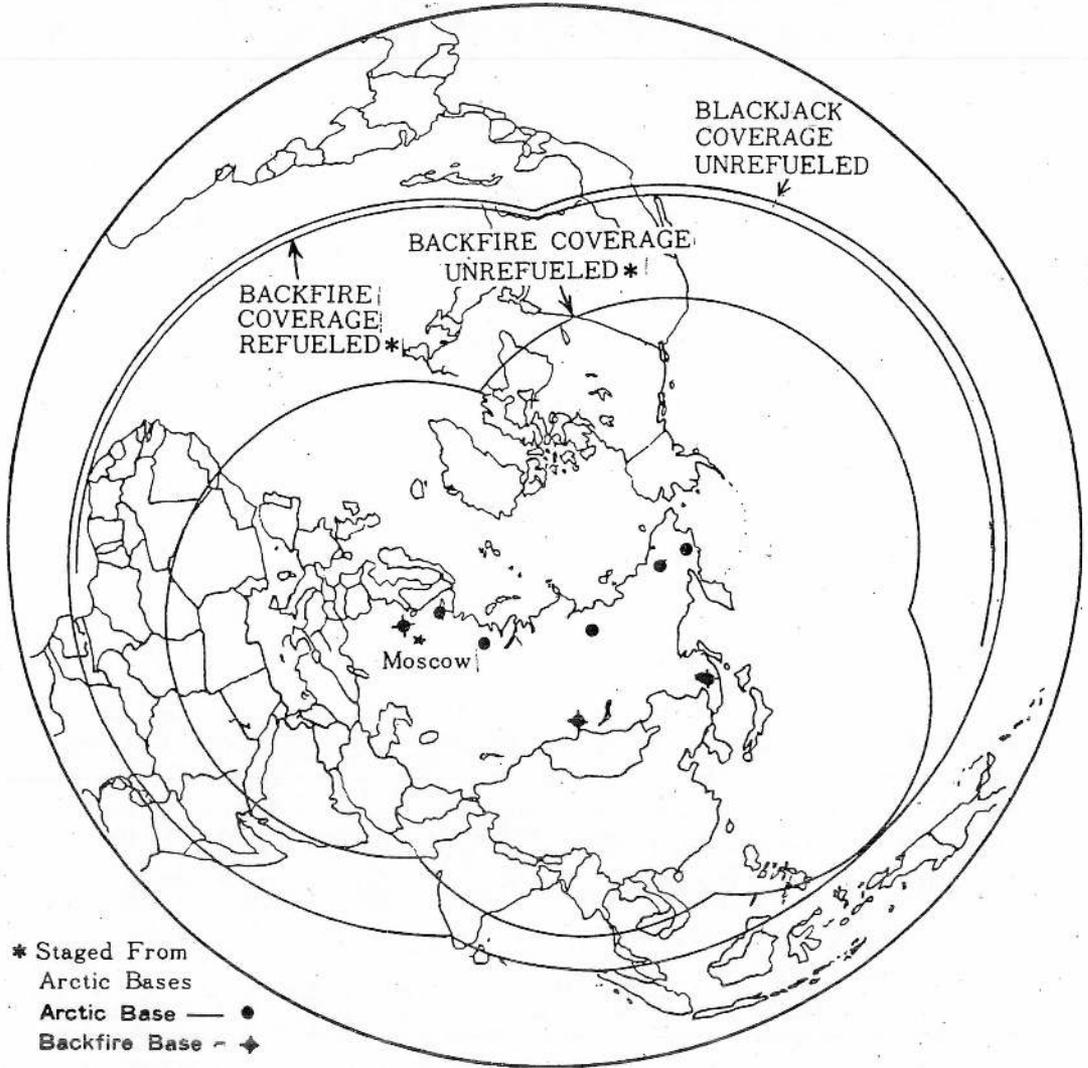
현재 동북아에서 대치하고 있는 소련과 미국의 군사력 배치 現況은 어떤가?

미국방장관 C. W. Weinberger의 의회보고서 “Soviet Military power”(1983)에 의하면 소련이 동북아에 배치하고 있는 Blackjack과 Backfire의 행동반경은 다음 지도와 같다.

다음 지도에 나타난 표식에 의하면 소련의 전략폭격기는 아프리카남부, 남아메리카를 제외한 전세계를 공격할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몽고 북부에 배치된 SS-20 약 100기(그 이상으로 추정됨)는 동북아에서 소련전략폭격기와 유사한 작전지역을 설정하고 있고 범위는 다음의 지도와 같다.

이상에서 볼 때 소련의 전략폭격기 미사일은 동북아에서 완벽한 작전체제로 조직되어 있으며 그 능력도 점점 보강되고 있고 또한 동북아에는 육군 52개사단, 항공기 1,715대, 태평양함대 총 765척, 해군 항공기 446대가 배치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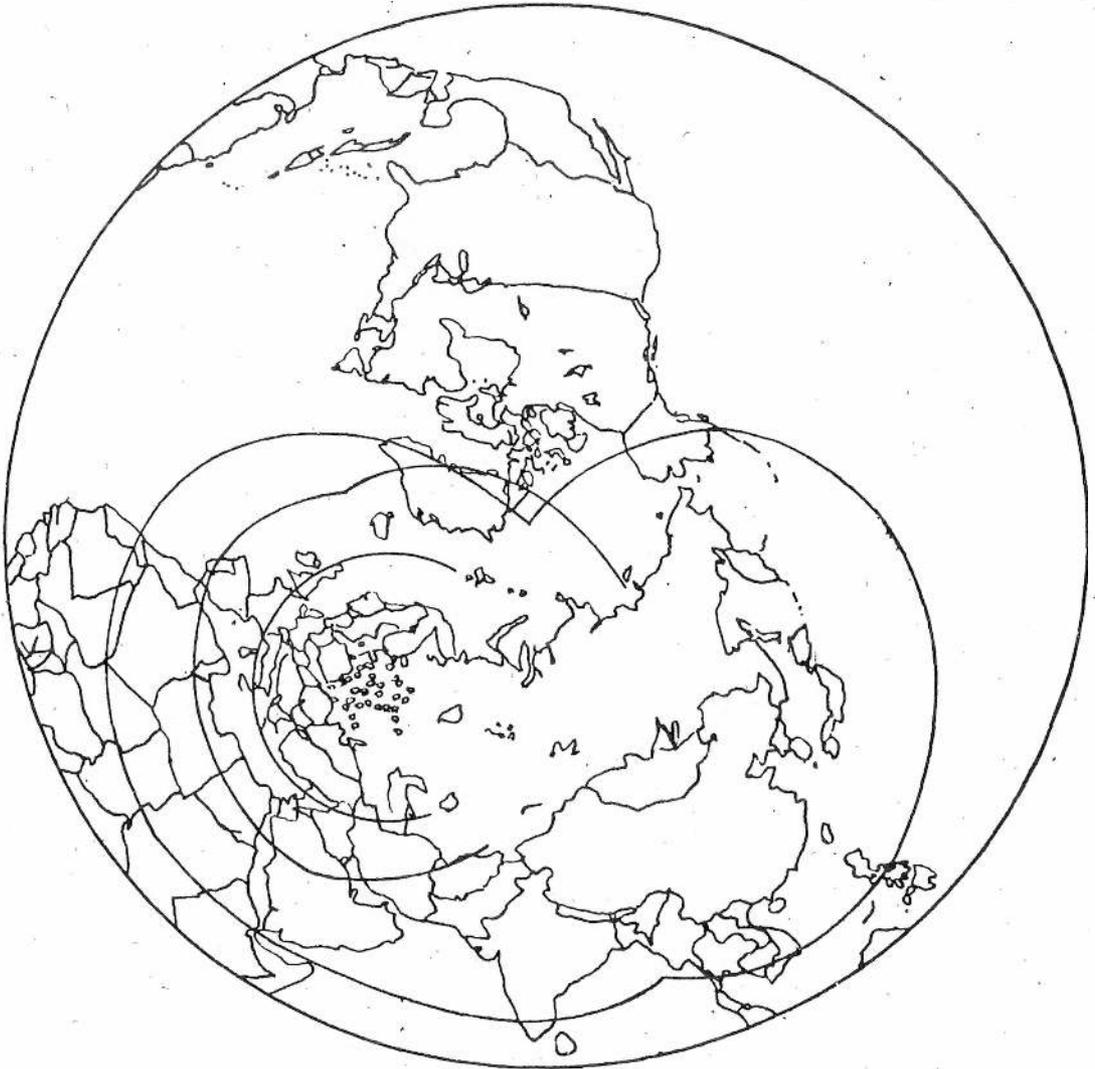
Blackjack and Backfire Coverage from Soviet Bases
(2-Way Missions)



* 출처: Caspar W. Weinberger, Soviet Military Power,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Washington D.C. March 1983. P.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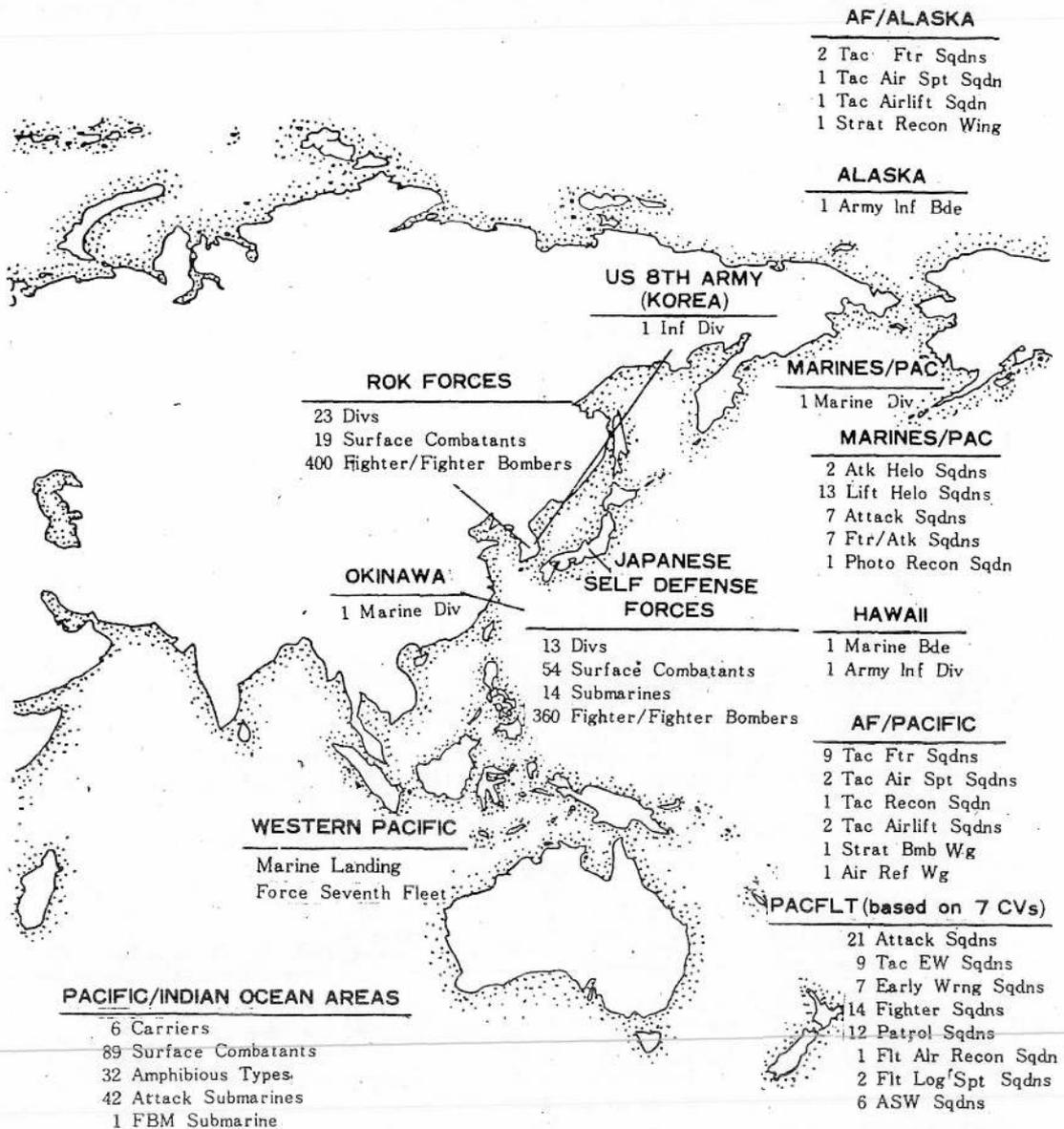
그러면 이러한 군사력 배치를 견제하고 어떻게 되어 있는가하는 점이 문제이다.
있는 미국과 그 우방국들의 배치는 대략

Deployment and Target Coverage 1983



출처 : C. W. Winberger, op. cit, P. 36.

US and Selected non-US Forces in the Far East Theater



출처: C. W. Weinberger, op. Cit., P. 56.

위와 같은 군사력배치가 동북아 정세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동북아의 軍備의 國際的 體系에서 한반도의 위치를 볼 때 한반도는 소련의 공격권에 완전히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련과 한국을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미국의 정책이라는 차원으로 변화시켜 볼 수 밖에 없다.

카터 대통령으로부터 레이건 대통령의 對韓政策 變化는 軍備競爭體制에서 소련의 팽창을 저지하고 소련 군사력에 대응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으로의 전환이다. 일반적으로 세계적 규모에서 미국이 Actor이고 소련은 이에 대응하는 Reactor 이나, 70년대 이후 미국의 소극적 정책으로 동북아시아에서는 소련이 Actor 가 되고 미국이 Reactor 가 되었다.

4. 結 論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상태는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북한이 우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북한의 침략의도도 어느 정치 집단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강렬하다. 물론 장기적으로 이 불균형은 해소될 것으로 보나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공약으로 적절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이러한 필요와 미국의 소련 팽창 억제정책이 같은 차원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결과를 정치적으로 이용가능한 것이다.

미국은 또한 소련의 동북아 군사력 팽창

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 군사력증강을 요구하고 있고 일본도 자위상 자위를 넘어선 군사행동의 가능성을 피력하는 동시에 국방비증가를 실현시키었다.

그러나 일본군사력 강화는 동북아 정세에서 새로운 변수로 등장할 것이라는 점도 간과할 수는 없다.

일본의 지리적 입장은 미·소대립의 측면에서 후방전략기지가 될 수 있고 한반도는 소련이 극동팽창을 용이하게 확대할 수 있는 돌파구이며 이 돌파구는 후방공격을 용이하게 하는 전략거점이 된다. 미국이 중공과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 비교적 안정한 장벽을 구축할 때 돌파의 가능성이 가장 큰 곳은 역시 한반도가 된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한반도를 확고하게 지키는 것이 동북아 三角體制 및 균형체제의 핵심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한국에 대한 공약강화는 장차 북한에 대한 소련의 지지를 증가시켜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는 보다 치열해질 우려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점은 한미관계가 대등한 관계에서 양국간에 정치문화적 균열을 어느정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권력구조상의 문제를 두고 소련과의 정치문화적 균열-이는 소련이 원하는 정치체제와 달리 북한의 정치체제가 지속될 것이라는 의미-이 증가할 수 있다. 이러한 균열은 한반도 정세를 더욱 경직화시키는 요소가 될 것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환경은 군사적 대치

를 치열하게 하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지만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제반 노력이 우리의 평화통일정책을 바탕으로 폭 넓게 경주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註記 및 參考資料〉

- 1) Gernot Köhler, Toward A General Theory of Armaments, Journal of peace Research, No. 2, Vol. XVI, (1979) P. 117.
- 2) Miroslav Nincic, The Arms Race - The political Economy of Military Growth, New York : praeger publishers, 1982.
- 3) William F. Scott. ed. Soviet Military Writings : 1970~1975 ; A Soviet View trans. by U. S. Air Forces, 1976, pp. 56ff.
- 4) M. P. Skirido, The people, The Army, The Commander, (Moscow : 1970) Pub. by U. S. Air Forces, trans. by D. G. I. S. Multilingual Section Translation Bureau, pp. 39-43.
- V. V. Zagladin, The leninist Course of Foreign policy of the USSR (Communist of the Armed Forces, May, 1966), W. R. Kintner, H. F. Scott, The Nuclear Revolution in Soviet Military Affairs, Oklahoma : Univ. of Oklahoma press, 1968. pp. 304ff.
- B. Byely et al., Marxism-Leninism on war and Army ; A Soviet view (Moscow : 1972), trans by U. S. Air Force (Washington : U. S. G. P. O) P. 125.
- 5) L. S. Semeyko, New Forms, But the Same content, Red star Apr. 8, 1975. W. F. Scott, ed., OP. Cit., P. 56.
- V. V. Zemskov, Some problems in the Conduct of war, (Communist of the Armed Forces, Nov. 1972) W. F. Scott, ed., OP. Cit., PP, 126ff.
- S. N. Kozlov, The officer's Handbook ; A Soviet view (Moscow : 1971) pub. by U. S. Air Forces, trans. by D. G. I. S. Multilingual Section Translation Bureau, P. 1.
- 6) Miroslav Nincic, op. cit.; P. 66.
- 7) Miroslav Nincic, op. cit.; P. 66f.
8. C. W. Weinberger, Soviet Military power,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Washington D. C.: March 1983. P. 34.

×

×

×

蘇聯의 對韓半島 政策

金 燦 奎

〈경희대학교수·政博〉

한반도에 대한 소련의 시각은 한반도가 지리적으로 滿洲를 포위하는 그물의 일환이라는 사실 및 소련해군이 동해를 거쳐 東支那海로 전개하는데 경유하지 않으면 안 될 요충이라는 사실에 의해 결정되리라고 본다.

中國에 대해 만주는 전략적으로 사활적 중요성을 갖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중국은 그것이 하나의 세계라고 하리만큼 넓기 때문에 만주를 상실했다고 해서 붕괴되는 것은 아니지마는 만주를 발상지로 하는 淸朝가 중국을 지배한 이래 중국인들의 심층 심리 속에 형성된 만주에 대한 敬畏之心은 남다른 바 있다.

이것은 현대적 안목에서도 수긍할만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만주는 곡창지대이며 거기서 철광석과 석탄이 나고 중공정권이 개발한 大慶油田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1949년 10월 북경에 중공정권이 수립되고 난 후 약 10년동안 계속되던 중·소간의 밀월관계는 1958년부터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다. 그리하여 1959년에는 소련이 그때까지 중공에 공급해오던 석유를 중단하고 1960년

7월에는 중공에 있던 소련 기술자들을 철수시킨다. 그때까지 소련은 석유를 주무기 중의 하나로 이용하여 공산권을 종속시켜 왔는데 예를 들면 북한에 대해서는 1974년에 94만2천t, 1975년에는 1백11만t, 1976년에는 1백6만1천t의 원유를 공급했다 (지금 중공도 북한에 대해 연간 1백만t~7백만배럴의 원유를 공급하고 있다 한다). 이것을 가격면으로 보면 각각 2천4백71만6천루블, 2천6백61만 8천루블, 4천3백68만7천루블에 해당한다.

그런데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마는 중공에 대한 소련의 석유공급 중단은 중공에게 이른바 자력갱생의 의지를 북돋아 주는 결과가 되었다. 이로써 중공이 석유에 대한 독자적 개발에 나선 결과 1959년 9월 하얼빈 근처에서 세계 유수의 유전이 발견되고 중공 건국 10주년을 앞둔 큰 경사라고 하여 「대경」 유전이라고 이름 붙였다. 대경유전을 서방측이 확인하는데는 3년 내지 4년이 걸렸다고 한다.

대경유전이 개발된 후 하얼빈 근처의 늪

지대에서 거대한 규모의 유전이 건설되었다는 풍문이 나돌긴 했으나 서방측에서는 이를 믿지 않았는데 중공의 외부로부터의 석유 수입량이 점차 줄어지다가 1964년에 이르러서는 하나도 들여가지 않자 U-2기를 띄워 정밀조사를 한 끝에 그 소재를 밝혀내었다는 일화는 너무나도 유명하다. 중공의 당기관지 인민일보에 대경유전이라는 명칭이 나온 것은 1964년의 일이었다.

중공이 소련을 불신하는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들 양국이 국경을 맞대고 있다는 지정학적 사실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한 점에서 불신이란 중공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소련에게도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양자간의 상호 불신은 하나의 운명적인 것이라고 본다.

「모택동선집」 제4권이 나온 뒤의(현재는 5권까지 있음) 그의 연설 및 논문을 모은 그들 내부의 간부용인 「모택동사상만세」라는 책에는 모택동이 1949년 12월에서 1950년 2월까지 소련을 방문하여 스탈린과 회담했을 때 스탈린으로부터 앞으로 티토化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간취했다는 대목이 나온다고 한다. 그리고 스탈린은 중국의 통일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차대전 후 소련은 만주를 중국 본토로부터 분리하기 위해 온갖 술책을 동원했다. 그들은 재빨리 만주를 점령하며 그 곳에 있는 쓸만한 시설은 모두 소련으로 가져가고 나머지는 파괴해 버렸다. 그리고는 약간의 소련식 시설을 함으로써 부분품을 소련으로

부터 도입하지 않고서는 가동시킬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소련에 대한 사업적 기술적 예측을 기정사실화 시키려고 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폭이 좁은 일본식 철도를 걷어치우고 대신 소련제 기관차라야 운행할 수 있는 폭이 넓은 철도를 부설하기도 했다. 이것은 모두 만주를 그들 영향력 하에 두고 또한 공산세력으로 하여금 그곳을 지배케 함으로써 두개의 중국을 만들 저의에서 나온 것이라고 풀이된다. 그때만 해도 아직 중공이 중국을 석권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던 시기가었기 때문이다.

그 후 중국에서는 내전이 확대되어 드디어 국민정부군은 중공군에게 쫓겨 대만으로 건너가지 않을 수 없게 되는데 장개석정부의 그렇게도 허망한 패주에 대해서는 스탈린도 내심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소련이 중공을 지원한 것은 만주 및 복지에 걸친 친소공산정권을 수립함으로써 중국을 양분하려는 것이었지 통일중국을 위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장개석의 빠른 패주와 모택동의 천하통일은 소련에게 결코 달가운 것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소련 대사는 장개석군이 광주에 이를 때까지 그들과 행동을 같이 했다고 한다.

중공이 한국전에 참전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설이 있되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두가지 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 하나는 모택동이 중국을 적화한 후 지방에 산재해 있던 야전군사령관들의 군벌화를 우려하여 그들에 대한 통수권 점검 및 인사이동을 통해 그들의 할거

를 방지하려 함에 있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전 참전에 대한 댓가로서 만주의 소련세를 제거함으로써 그것을 회복하려는 데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할 때 우리는 소련에 대한 중공의 불신이 얼마나 컸던가 하는 것과 만주에 대한 소련의 평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만주는 북쪽 및 서쪽으로는 소련에 의해 포위되고 있고 동쪽으로는 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그것은 남쪽으로 중국대륙과 연결되고 있는데 이곳에는 내륙쪽의 「몽고인민공화국」과 바다쪽의 발해만이 각각 깊숙하게 잠식함으로써 좁디좁은 地峽이 형성되고 있다. 이 지협이 차단되는 경우 만주는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지지 않을 수 없고 결과는 곧 북경에 대한 위협으로 나타난다.

지금 「몽고인민공화국」에는 20개사단의 소련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경제적 군사적으로 이 나라는 완전히 소련의 지배하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황해에 소련의 지배권이 확립되고 그 결과 발해灣이 그 영향하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 지협의 차단은 현실적인 것으로 화할 수 있다. 중공으로서는 항상 이러한 위협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중공을 견제하려하고 또한 역사적으로 줄곧 중국과 항쟁관계에 있던 소련으로서도 이러한 전략적 상황을 생각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舊韓末 帝政 러시아가 淸朝를 위협하여 大連 旅順에 군항을 갖게 된 것도 이러한 전략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리라고 본다. 만주는 이와 같이 중국에 대해서나 중국을 견

제하려는 소련에 대해서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만주의 동쪽에 접경하고 있는 한반도에 대한 소련의 시각도 이러한 전략적 차원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 한반도가 소련해군이 동해를 거쳐 동지나해로 전개하는데 경유하지 않으면 안 될 요충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해군작전의 요체는 先制와 集中이라고 하는 바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함대의 離合 集散이 자유로와야 한다. 그런데 소련 함대의 경우는 이것이 극히 불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것은 지리적 여건 때문이다.

지금 소련에는 무르만스크에 기지를 둔 북빙양함대, 크론슈타트(Kronshtadt)에 기지를 둔 발틱함대, 세바스토폴(Sevastopol)에 기지를 둔 흑해함대, 올라디보스토크에 기지를 둔 태평양함대 그리고 영국이 수에즈 이東에서 철수한 후 창설된 인도양함대가 있는데 이들은 모두 서로 원거리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합집산이 자유롭지 않다.

소련해군의 불리한 조건은 함대의 집중을 위한 거리상의 애로 이외에 그 교통로가 순탄하지 못하다는 데서도 발견된다. 예를 들면 무르만스크는 광활한 북빙양에 면하고 있으며 대서양과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출입이 자유로와 특히 잠수함의 기지로서는 최적의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그것은 북위 68도59분의 북극권내에 위치함으로써 혹한에 시달리고 대서양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짙은 안개와 거센 물결로서 유명한 노르웨이 북단의 North Cape (北岬)를 경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악조건 하에 있다.

레닌그라드의 외항에 해당하는 소련 최대의 군항 크론슈타트도 발틱해 깊숙한 곳에 있다. 거기서 대서양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덴마크와 스웨덴 사이의 극히 좁은 두 개의 해협 중 어느 하나를 거쳐 Kattegat Channel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되며 그곳에서 다시 1백20도를 꺾어 Skagerrak Channel을 지나서야 겨우 영국의 내해와도 같은 북해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이 항로는 핀란드, 스웨덴, 서독, 덴마크, 노르웨이의 연안을 끼고 돌아야 하고 특히 헬싱키와 코펜하겐의 항만수역을 통과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함대이동은 즉각 외국에 탐지되고 만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지금 북구의 주요 도시는 거개가 간첩활동의 활무대로 되어 있어 근해를 통과하는 함대가 정보원들의 측각에 걸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은 흑해함대의 기지인 세바스토폴의 경우에는 더욱 현저하다. 세바스토폴에서 지중해로 나오기 위해서는 하천으로서도 과히 넓은 편이 아닌 보스포러스해협을 거쳐 호수와 같은 마르마라해를 지나 다시 좁고 긴 다다넬스해협을 통하여 일명 다도해라고도 하는 에에게해로 나와 여기서 다시 6백km나 남하하여야 한다.

끝으로 태평양함대의 기지인 올라디보스토크의 경우는 어떠한가? 한마디로 말해서 이 경우는 좀 평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때에도 함대가 태평양 및 동지나해로 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난관이 있다. 올라디보스토크에서 태평양 및 동지나해로 나가

기 위해서는 4개의 통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베리아와 사할린 사이의 타타르해협, 사할린과 북해도 사이의 宗谷해협, 북해도와 일본 本州 사이의 津輕해협 그리고 한국과 대마도 사이의 대한해협이 그것이다.

이 중 소련으로서 가장 편한 해로는 타타르해협이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데는 흑한과 불순한 기상조건 이외에 대우회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난점이 따른다. 그렇게 되면 시간적으로 그리고 경비면에 있어 큰 희생이 부수된다. 宗谷해협과 津輕해협은 태평양으로 나가는데 첩경이긴 하나 해협이 좁아 군함의 비밀통과가 불가능하며 이것이 불가능한 限, 연안국인 일본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른바 비핵3원칙을 외교정책의 기조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핵추진 함선의 통과는 허용할 수 없는 입장에 있다. 그리고 宗谷해협의 폭은 20해리, 津輕해협의 폭은 9해리에 불과하다. 따라서 소련으로서는 대한해협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다. 대한해협을 통과하면 태평양으로도 나갈 수 있고 동지나해 남지나해를 지나 말라카해협을 거쳐 인도양으로 진출하여 인도양함대와 합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대한해협의 통과권 문제는 소련으로서는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소련함대가 대한해협을 무상통과한다고 할 때 우리로서는 국가안보상 중대한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 비우호국의 함선이 연안 가까이를 지나가면 통과 자체가 연안국에 위협이 될 뿐 아니라 온갖 정탐의 가능성이 거기에 있으며 핵추진 선박의 왕

래는 해양오염을 결과시킬지도 모른다.

일반적으로 함대의 이동은 전시에는 전쟁 역량의 과시가 되지마는 평시에 있어서는 이른바 示旌外交를 통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한다. 함대가 출현하면 비우호국에게는 위협이 되고 우방국에게는 안도를 가져다 준다. 이러한 면을 생각할 때 대한해협에 있어서의 소련함대의 통항은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소련함대가 대한해협을 통해 동지나해로 나아가 다시 대만해협을 지나서 남지나해 및 말라카해협을 거쳐 인도양함대와 합류하는 경우 위협을 받게 될 국가는 한국 외에 또한 중공이 있다. 동지나해에 소련함대의 왕래가 빈번해지면 上海 舟山 등지에 기지를 둔 중공의 동해함대의 행동반경이 좁아지고 그들의 연안과 해상교통 일반이 불안해지기 때문이다.

중국의 전통적 외교정책이었던 이른바 以夷制夷의 원칙을 감안할 때 이러한 결과를 낳을 소련함대의 진출을 중화시키기 위해서는 중공의 표면상의 주장 여하를 불문하고 그들의 내심은 대만해협에 있는 미제7함대의 잔여세력이 그대로 남아 있기를 바랄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것은 소련을 의식한 중공이 한반도에서의 미군철수를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논리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대한해협의 전략적 중요성이 있다. 재언하거니와 대한해협은 한국, 중공, 소련 모두에게 중대한 가치를 지닌 곳이다.

소련으로서는 태평양함대의 外洋進出을

위해 그리고 인도양 함대와의 연결을 위해 이를 통과하지 않을 수 없고 한국에게는 그 통과가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 되며 중공에게는 동해 함대의 활동과 해상교통 일반을 위해 그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상에서 우리는 한반도에 대한 소련의 시각이 한반도가 지리적으로 만주를 포위하는 그물의 일환이라는 사실 및 소련 해군이 동해를 거쳐 동지나해로 전개하는데 경유하지 않으면 안 될 요충이라는 사실에 의해 결정되리라는 점을 보았거니와 여기에서 소련은 2차대전 후 한동안 한반도 전체의 적화를 책동하다가 그것이 불가능함을 인식하게 되자 한국에 대해서도 은근한 추파를 보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냉전체제가 붕미했던 시대에 흔히 발견되던 한국에 대한 그들의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은 자취를 감추고 국제회의에서도 점차 不可近 不可遠의 태도를 취한다고 한다. 비록 국제회의의 참석을 위한 것이긴 하되 우리의 자료급 공무원이 모스크바를 방문하며 그들의 고관도 서울 나들이를 한다. 외신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규모는 크지 않으나 그래도 한국 상품이 소련에서 발견된다고도 한다. 이러한 것은 모두 대한해협의 통항권 문제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고 해야 할 것이다.

지난 9월1일에 있는 소련에 의한 KAL기 격추사건은 인류의 양심에 충격을 준 유례 드문 만행이었으며 소련은 여하한 변명을 시도하든 그 책임에서 해방될 수 없음은 재언을 요치 않는다. 이것은 러시아인들이 역

사적으로 갖는 특수한 콤플렉스와 지금 지니고 있는 체제의 경직성에 기인된 결과라는 견해가 있거니와 이것이 사실이라면 반드시 우리 항공기였기 때문에 격추한 것은 아니라는 해석도 성립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정부가 북방정책은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이유의 일부가 아닌가 생각되는 바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에게 대한 그들의 태도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입론도 성립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소련은 지금 북한에 기항지를 갖고 있다. 1978년 6월 12일 일본 방위청 소식통은 소련이 미국 제7함대와 일본 해상자위대의 활동을 견제하기 위해 元山港의 이용을 북한에 요청했다가 처중공 관계의 악화를 우려한 북한의 난색표명에 부딪혔다는 정보를 공개한 바 있다. 그리고 같은 해 7월 미국의 정찰위성은 2척의 소련 상선이 羅津과 淸津 사이의 한 하구를 낀 조그마한 항구에 입항하는 것을 포착한 바 있는데 이때 그것이 소련의 해군기지 건설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북한의 잠수함기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인지 또는 군사문제와는 관계없이 북한에 대한 경제원조의 일환으로 입항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았었다.

그 후 1979년 1월 5일의 모스크바방송은

미·중공 수교직후인 같은 해 정초 북괴 부주석 박성철이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소련측과 새로운 국제정세에 대해 협의했으며 이때 소련과 북한은 羅津港을 소련해군이 사용할 수 있게하는 한 협정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다시 같은 해 4월 27일 일본 시사통신은 영국의 유력지 Daily Telegraph의 서울발 기사를 인용하여 소련의 최근 북한으로부터 나진항의 사용권을 얻었다고 보도했는데 이 통신은 이미 나진항은 중·월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련이 베트남에 물자를 수송하기 위해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현재 나진과 울라디보스토크는 포장된 도로로써 연결되어 있다고 첨가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합할 때 북한에 소련함대의 기항지가 있음은 틀림없다고 단정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에 대한 소련의 기항지 유지는 만주 포위망의 일부를 형성하는 북한에 대해 소련이 그만큼 깊숙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징표일 뿐 아니라 태평양함대의 主基地인 울라디보스토크의 衛星港으로서 울라디보스토크를 강화한다는 의미도 아울러 지닌다고 할 것이다.

우리 經濟의 座標

金 基 大

고성장 속 제자리 물가

1983년은 우리나라 물가관리면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이룬 해라고 할 수 있다. 도매물가는 전년말에 비하여 0.8%가 하락하고 소비자물가는 2.0%상승에 그침으로써 전국이래 가장 획기적인 물가안정을 이루었다. 특히 '83년도에 이룩한 물가안정이 정부, 기업, 근로자, 가계 등 모든 국민의 합심노력의 결과로 이루어졌다는데 더 값진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1983년에 이룩한 물가안정의 특징과 의미를 살펴보면, 첫째 '82년의 「한자리 물가」에서 '83년에는 「제자리 물가」를 달성하였을 뿐 아니라 특히 도매물가는 0.8%가 오히려 하락하여 전국이래 처음으로 부의 물가수준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둘째, 물가안정이 9%수준의 고도성장과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성장이 수반되지 않은 물가안정은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83년도에는 우리 경제가 해결하여야 할 가장 큰 과업인 안정기반 위의 고도성장이라는 어려운 과업을 달성하였다는데 더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셋째, 경쟁상대국인 일본, 대만보다 높은 경제성장을 하면서 같은 수준의 저 물가가 실현되었다는 것이다.

1981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물가는 선진국은 물론 동남아경쟁상대국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이었으나 '82년은 미국, 서독 등의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고 '83년에는 일본, 호주 등 인근 경쟁상대국과 같은 수준에 도달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물가가 안정된 나라의 하나가 되었다.

네째, 물가가 전체적으로 안정되었을 뿐 아니라, 월별 물가수준이 평준화되어 도매는 2월이후, 소비자는 3월이후 거의 변동없이 연말까지 유지되었다는 점도 예년에 없다는 특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수입원자재가격 및 환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공산품가격이 크게 안정되었다.

원유가격은 하락하였지만 원유를 제외한 일부 곡물과 비철금속 등은 '82년 10월 이후 부분적으로 반등하였고 환율도 달러화 강세로 계속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내 공산품 가격 상승이 평균 1.8% 정도의 상승에 그쳤다.

이는 기업이 생산성향상과 원가절감노력으로 해외 비용상승요인을 자체흡수하여 전체물가 안정에 기여했음을 의미한다.

여섯째, 소비자 물가가 2%수준에서 크게 안정되었다. 그런데 소비자물가 2%인상은 대부분이 집세와 각급 학교의 수업료인상에 따른 것이다.

기본 생필품(生必需品)가격 떨어져

일곱째,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쌀, 밀가루, 쇠고기, 연탄 등 10개 기본생필품가격은 전 연말에 비하여 오히려 1.9% 하락하여 일반 소비자물가보다 더우기 안정됨으로써 국민의 기본생계비 안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와같은 여러가지 특징을 종합하여 볼 때 우리나라 물가는 구조적으로 안정기반이 확고히 구축되고 있을 뿐 아니라 안정이 체질화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가는 각종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 활동의 결과가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지표라고 할 수 있으며 인체에 비하여 체온과 같다고 할 수 있는바 사람의 체온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 나라의 물가가 안정되고 있다는 것은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경제운영면에서 건전하고 조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83년도의 물가안정을 이룩하게 된 몇가지 요인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정부는 고통이 뒤따르는 것을 감안한 물가안정을 경제운영의 최우선 목표로 하고 안정화시책을 꾸준히 추진함으로써 재정적자의 축소, 여신관리의 강화 등으로 통화면에서 18~20%보다 안정된 15%선에서 운용함으로써 총 수요관리를 적성화하는 한편 금리 등 총량변수를 안정적으로 운용하였다.

총 통화억제 큰 힘

둘째, 일부수입원자재가격의 반등과 환율 상승으로 해외요인면에서 가격압박요인이 있었으나 기업이 원가절감 등으로 이를 자체흡수하여 공산품가격을 안정시켰다.

셋째, 원유가 하락과 농산물의 풍작으로 에너지 가격과 식료품가격이 어느해 보다 안정되었다는 점이다.

넷째, 공기업경영개선정책의 강력한 추진으로 당초 계획보다는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함으로써 물가안정 심리의 정착에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국민의 기본생필품에 대한 가격 및 수급동태에 대한 일일점검제를 실시하여

기동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고 성수기 건축자재수급 안정대책 등 물가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였다.

여섯째, 물가안정심리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실시한 지속적인 경제교육도 물가안정에 기여하였다.

경제교육도 한 몫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여건상 유리한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범국민적인 물가안정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기업이 국제원자재 가격하락품목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가격을 인하하였으며 근로자는 노사협조를 통하여 임금인상을 자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가격안정에 기여하였다.

농민들은 증산과 농업생산성 향상 등으로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소비자들도 소비합리화와 합리적인 구매행태 등을 통하여 물가안정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짚고 넘어갈 것은 물가안정은 여건의 호조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중남미 각국은 아직도 연간 1백% 이상이라는 고물가에 허덕이고 있으며 같은 여건하에서 프랑스, 이탈리아 등 많은 선진국들이 높은 물가상승을 겪고 있다는데에 우리의 물가안정은 더욱 값진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물가안정에 자부심

물가가 제자리 수준에서 안정되었다는 것은 여러가지 의의를 가져다 준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우리 국민에게 오랫동안 뿌리박힌 물가는 오르기만 하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제거되고 우리 국민에게도 노력만하면 물가안정이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고취하게 되었다.

둘째, 저물가체질의 확고한 구축으로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케하는 한편 우리상품의 대외경쟁력의 향상으로 지속적인 수출증가를 가능케 한 점이다.

셋째, 가계로 볼 때는 생계비 안정으로 실질소득이 향상되어 저축을 증대시킬 수 있게 하였다.

한편 '83년도 물가시책운용에 몇가지 미흡한 면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일부 국민에 잔존되어 있는 부동산투기심리의 만연으로 부동산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주택가격과 집세를 크게 상승시킴으로써 집없는 서민가계에 큰 부담을 주었다는 점이다. 다행히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가격안정대책으로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진정되고 있으나 부동산가격 상승이 물가안정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최근에 국민소득의 향상에 따라 소비자의 소비구조가 급격히 고급화되는 추세에 있다.

이에따라 고가수입상품 및 고가 외국

유명상표도입제품에 대한 수요의 급증과 예를들면 식품, 섬유제품, 신발류, 화장품 등의 품질고급화에 의한 신규고가제품에 대한 소비선호의 급증으로 일부 공산품가격의 상승효과가 있었다.

물론 이는 품질고급화에 따른 자연적인 추세라고도 할 수 있으나 일부는 변태적인 가격상승요인으로 작용하여 일부 공산품의 경우 가격구조의 왜곡화를 가져온 점에 대하여는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이라 할 수 있다.

예산동결로 의지보여

물가안정은 우리경제가 앞으로 계속 추진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이며 '84년에는 물가안정이 경제운용의 최우선목표가 될 것이다.

여기에서 '84년도 중 전망되는 물가관리 여건을 보면 먼저 해외여건면에서 국제원유가는 현재의 수준에서 지속되고 그동안 예상보다 크게 상승한 환율은 전문기관의 예측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작년보다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그러나 세계경제의 회복에 따른 수요증가로 일부 금속류 등 해외원자재가격과 미국의 농산물 작황부진으로 인한 해외농산물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이 전망되는 등 불리한 면도 예상된다.

국내여건을 보면 최근의 물가안정심리의 정착과 계속되는 저물가로 금리, 임금 등 비용요인의 안정이 예상되고 '83년 중 크게

상승한 부동산가격도 부동산가격 안정종합대책의 추진으로 집세와 임대료 상승도 진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공공요금도 그동안 대부분이 현실화 되었으므로 작년보다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공산품의 경우도 공급면에서 아직 충분한 생산여력이 있어 물가관리면에서 밝은 면이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불리한 면도 없지않다.

3년간 연속 안정을 지속한 농수산물가격이 반등될 가능성이 있으며 국제원자재가격의 반등과 그동안의 환율상승으로 인한 비용상승요인과 앞으로 예상되는 수출증대에 따른 내수압박으로 일부 공산품가격 상승요인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대내외여건을 종합하여 볼 때 정부와 국민 모두가 합심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한다면 금년에도 작년과 같은 물가안정을 이룰 수 있다고 전망된다.

물론 금년에도 계속해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는 작년 못지않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2년간 사상 유례없는 안정을 이룩했지만 아직 저물가체질이 우리 경제의 구석구석까지 침투되어 정착된 것은 아니다.

아직도 일부 국민중에는 투기심리잔존 등 과거의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지 모른다.

이에따라 정부는 이미 구축되고 있는 저물가체질을 모든 부문에 확산시켜 저물가경제의 항구적 정착기반을 확립하기 위하여 정부가 물가안정에 앞장서서 국민의 역량을

총 집결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재정, 통화, 금리, 환율 등 주요 총량변수를 계속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이며, 특히 정부는 예산의 동결로 재정의 흑자기조를 공고히 함으로써 공공부문에서의 물가상승요인을 과감히 제거할 방침이다.

그러나 모든 경제정책과 마찬가지로 물가안정에도 정부의 노력만으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없다. 물가는 전형적인 「零和게임(제로섬 게임: zero sum game)」이라는 측면을 강하게 가지는 것으로서 물가가 수요자에게는 지출이지만 공급자에게는 소득으로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일은 수요자의 지출을 줄이는 것이고 달리보면 공급자의 소득을 줄이는 것이 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모든 국민은 소비자가 되기도 하고 공급자가 되기도 한다. 농민은 농산물의 공급자이지만 공산품의 수요자이며 기업은 제품의 공급자이지만 제품생산요소에 대한 소비자이며 근로자는 소비재의 수요자이지만 생산요소의 하나인 노동력의 공급자가 된다.

물가안정은 이들 경제주체의 공급가격(소득)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득을 당장 줄이는 것은 고통을 수반하고 자기만 희생당하는 것같이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며 물가안정은 좋다고 하면서 희생은 남이 해주기를 바란다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국민 각계각층이 다 함께 안정에 대한 신념과 자신을 가지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기업 품질경쟁 유도

우리나라 국민은 지금까지 물가안정은 정부만이 하는 일로 생각하여왔다.

이에따라 물가가 상승하면 소비자는 정부의 책임만으로 돌려왔다.

그리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도 정부의 책임만으로 돌려왔다.

소비자 보호제도란 소비자 스스로가 시장감시를 함으로써 소비자가 스스로 물가안정에 참여하고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구제 등 소비자 스스로 해결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경제구조가 복잡해지고 소비생활이 다양화함에 따라 정부의 관리능력만으로는 시장감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83년도에는 이러한 소비자보호시책을 다양화함으로써 물가안정은 물론 기업의 품질경쟁을 간접적으로 유도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예를 들면 가전제품의 품질, 성능, 안전도 등을 비교 평가하여 소비자에게 상품에 대한 비교구매범위를 확대하게 하고 사업자에게는 품질경쟁을 유도토록했다.

또한 소비자 단체로 하여금 공산품 및 식품에 대한 상품검사와 실량검사를 대폭 확대토록하고 동결과를 소비자보호 주간행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시함으로써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불량상품을 시장에서 추방토록 유도했다.

한편 유통단계에서의 경쟁촉진으로 공정한 가격경쟁을 유도하고 공정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83년도 중 1만 8천 5백 개소의 상점을 가격표시의무업소로 추가지정한 후 가격표시 모범업소에 대한 표창제도의 실시와 유통근대화 재정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상거래질서개선을 기여토록 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83년도는 소비자보호시책면에서도 많은 변화와 진일보를 가져온 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은 재무구조개선, 생산성향상 및 기술개발 등으로 해외요인을 최대한 자체흡수하고 품질개선 등으로 기업이윤을 소비자에 환원하는 한편 신속한 해외정보의 획득활용으로 사전대응책을 효율적으로 강구할 필

요가 있다. 또한 근로자는 임금안정에 협조를 함으로써 비용요인을 줄이고 가계는 절약과 소비생활의 합리화와 저축을 증대하고 합리적인 상품의 선택으로 수요면에서 물가상승요인을 제거하는데 참여하고 농민은 증산과 농업생산성향상 노력을 하는 한편 복합영농 등 농외소득증대에도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같이 국민 각계각층이 지금까지 보여준 물가안정 노력을 가일층 강화한다면 금년에도 기필코 물가안정이 계속 이룩되어 저물가체질이 다져질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수출경쟁력이 향상되어 지속적인 수출증대와 자력성장 및 고용증대가 달성될 것이다 그리고 이 길만이 선진조국에의 도약을 위한 지름길이 될 것이다.

차선지켜 생명보호

속도지켜 전력보호

우리의 平和統一 努力과 北傀集團의 陰謀

中 領 高 錫 珍

〈공군본부〉

1. 우리의 統一政策과 北傀集團의 陰謀

白頭山蓮池 金剛山 1,200峰, 그리고 배일에 쌓인 북녘山河엔 그 누구든지 한번쯤은 가보고 싶은 好奇心이 있을 것이다. 특히 北韓에서 越南하였거나 피난온 사람들은 더욱 그러할 것이다.

우리는 왜! 우리땅인데도 가보지 못하며 北韓이 故鄉인 사람은 언제까지 望郷을 달래야 하는가? 바로 이러한 根源은 괴수 金日成과 그 일당들의 徹底하게 共產化를 위한 政治조작극 때문이다. 1945年 8月15日 解放以後 北韓의 平壤에 주둔한 소련군 司令官은 우리 민족의 抗日鬪爭家요 英雄인 60歲의 老將 金日成將軍의 이름을 盜用한 34歲의 金成柱를 내세워 소위 北韓의 北朝鮮人民委員會를 만들게 하고 이 者로 하여금 人民警備隊를 38線에 配置 南北往來를 정지시켜 國土를 人爲的으로 두동강으

로 차단시켰다. 1947年 11月14日 유엔總회는 韓國總選舉案을 可決하여 韓國인이 원하는 總選舉가 實施된 후 미·소 양군은 韓半島에서 철수한다는 條件으로 1948年 1月 8日 韓國의 總選舉를 감시할 유엔韓國監視委員會가 인도의 크리슈나 메논을 團長으로하여 서울에 들어왔으며, 이 選舉를 실천코자 1月12日 當委員會는 平壤에 있는 소련軍 司令官에게 入北을 要求하는 메세지를 보냈으나 當時의 北朝鮮人民委員會 委員長 金日成과 소련軍 司令官은 유엔韓國委員會의 入北要求를 1948年 1月23日부로 一方的으로 거부해버렸다. 이리하여 平和統一의 千載一遇의 好機를 놓쳐버리게 됐고 할 수없이 南韓에서만 유엔監視下에 自由總選舉를 實施하여 大韓民國政府를 樹立하게 되었다.

그後 金日成은 戰備를 繼續하여 6.25南侵을 감행 피비린내나는 人命殺傷과 國土의 폐허와 더불어 休戰線을 만들고 지금까지

갖가지 만행을 저지르며 34년의 세월이 흐른 오늘까지 北쪽은 세계에서 가장 베일 속에 가려진 統制된 사회로 故郷이 北韓인 사람은 望郷의 슬픔을 계속 겪어야만 했다. 그러나 KBS에서 방송한 一千万의 離散家族中 一部分이나마 南韓에서만이라도 거주하는 사람들의 再會場面을 보고 離散家族을 만나게 된 사람들 뿐만 아니라 北韓에 家族을 두고온 失郷民은 勿論 6. 25 以後 태어난 世代 등 온 國民이 눈물로 再會하는 T. V 화면을 볼 때마다 솟구치는 憂鬱을 씹어 삼켜야만 했다.

2. 우리의 平和統一 接近과 北傀의 國內外 테러자행

우리는 平和統一政策을 바탕으로 1970年 8月15日 平和統一에 관한 기본 구상 선언으로 善意의 体制競争 提議로부터 1971年 5月12日 南北 赤十字會談提議 1982年 2月 25日 南北韓高位代表會議提議 즉 南北韓當局 最高責任者會議 等 오늘에 이르기까지 14회나 漸進的이며 合理的이며 現實的이고도 實踐可能하다고 보는 平和統一 努力을 적극 전개해 왔다. 이러한 韓國側의 努力에도 불구하고 北韓側은 버마암살폭발사고로 국제적으로 고립되자 그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가증스러운 84年 1月10日에 提案한 三者會談의 偽裝平和 攻勢는 그 術策에 있어 몹서리가 친다. 80年 當時 신현학總理에게 보낸 書信에서 「大韓民國」이라는 정식 국호를 使用했으나 이번에는 「서울」이라고만 표

기한 底意는 짐작이 갈만했다. 더 부연하면 內容은 지난 1月11日 그들의 中央人民委員會와 最高人民會議에서 採択한 書信을 「위임에 따라 동봉한다」라는 式의 성의 없는 그것이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때 北韓側은 이번에도 진정한 對話意思를 갖고 있기보다는 自己들이 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點을 國內外的으로 선전하기 위한 일련의 술책으로 위장평화 공세를 펴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北韓側이 提議한 三者會談이란 過去나 現在나 未來를 莫論하고 大韓民國이 도저히 수락할 수 없는 內容을 담고 있다. 또한 그들은 이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韓國側이 통일을 위한 對話를 反對한다는 선전의 근거를 만들어 내려고 그런 書信을 보냈다는 것은 백치가 아닌한 간파할 수 있는 일이다. 본래 相對方이 수락할 수 없도록 꾸며진 提議를 해놓은 會談을 하자는 것은 會談을 못하겠다는 의도를 뒤집어 表明한 것이 아닐 수 없다. 만약 우리가 三者會談을 허락한다면 그들은 어떤 저의로 나갈것인가를 이렇게 생각해보는 것이다. 소위 三者會談이라는 것은 요컨대,

①自己들과 美國사이에서 우선 駐韓美軍을 철수시키기 위한 平和協定이라는 것을 체결한다.

②그 다음 南北間에 武力行事를 하지않고 雙方의 軍隊를 減縮하는 內容의 不可侵 協定을 南北韓 사이에 채택한다. 끝으로 統一의 前提條件이 마련되면 그때는 7. 4 共同聲明의 原則에 따라 聯邦制에 의한 統一

을 論議한다는 것은 鉄面皮한 주장이다. 그리고 이번 「3者會談」提議에서 또하나 看過할 수 없는 北韓의 속셈은 「3者會談提案 自体를 對南挑發을 合理化하는 名分으로 삼으려는 策略이라는 것도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眞實된 平和統一의 길을 위해서는 對坐조차 하지않겠다는 硬直性을 버리고 서로 다른 意見일지라도 交換할 수 있는 通路를 열어 주자는 자세를 보이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러기 爲해 國務總理의 書信을 手交하기 爲해 南北韓 關係者 4名이 14日 午前 觀문점에서 3年 6個月만에 자리를 마주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우리의 意志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다.

3. 平和統一은 忍耐와 對北傀 絶대 優位의 힘

《勞動新聞》은 1月13日字 社說에서 「美國·日本·南朝鮮 사이에 三角 軍事同盟 조작 策동이 다그쳐짐으로써 전쟁위험은 급격히 增大된다」고 前提하고 만약 韓國과 美國이 그들의 「3者會談」提議를 거부한다면 「平和의 怨讎」로서 구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등 非理性的인 독기를 뽐고 있다. 이렇게 불

때 금번 들고 나온 「3者會談」提議라는 것은 「民族和合」의 大道에서 統一問題를 착실히 풀어가려는 南北對話와는 거리가 먼 것이 더한층 입증되었으며 始終一貫하고 있는 교조적 혁명전략의 테두리 안에서 날로 불리해지고 있는 정세의 흐름을 逆流시켜 보자는 새로운 음모에 불과한 것이라 하겠다. 얼마전 '84年 2月 8日 中共首相 조자양이 호주의 호크首相과의 會談에서 우리나라 한반도를 가리켜 「한政府 밑에 統一을 시킨다는 것은 現實적으로 不可能하다」고 말한 것으로 外信이 전하고 있었다. 이 말은 北韓이 획책하고 있는 共產主義統一의 可能性을 부인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北韓은 民族의 원한을 더 이상 삼지말고 統一에 接近토록 最高責任者會談이나 각료급 會談을 우선 열도록 하는 우리의 提議를 받아들이고 時代錯誤的인 고집이나 國內외의 狀況을 오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經濟大國이 精神力으로 武装된 經濟小國에게 패망된 예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精神武装에 확고한 戰力을 優位로 北韓을 對話에 임하도록 노력을 경주하여 어떠한 일이 있어도 平和統一은 實現시켜야 할 것이다.

<연재만화>

보라매 日記

정운섭



慣性航法装置 (INS)의 原理

尹 龍 鉉 記

1. 開發의 歷史

운반체를 한 地点에서 다른 地点으로 方向을 잡는 技術을 航法이라 하는데 이 技術은 古代 선박에 의해 시작되었다. 옛날 Viking들은 자기네 배의 경로와 위치를 위한 方法으로 水路案内法 (Pilotage Method)을 利用했다. 즉 자기선박을 정확히 조종하도록 地上의 현저한 物体들을 직접 육안으로 관측하는 方法이었다.

얼마 후 조금 발전하여 배의 方向과 속도를 변경할 때 마다 이 자료를 자세히 도표위에 적어 놓고 도표결과를 보고 그 선박의 위치를 아는 추측항법을 널리 사용하였으나 해류 및 바람에 의해 나타난 오차는 미숙하나마 천체를 이용하여 수정하였다. 그런데 운송방법이 배에서 비행기로 발전됨에 따라 이제까지 사용해 왔던 항해기술이 아니라 항해과학으로서의 航法을 必要로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航法學은 數

學을 응용하여 運搬體의 位置를 決定하고 미리 선정된 航線지로 조종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무선기술의 發達로 LORAN (Long Range Navigation : 배, 항공기가 2개의 무선국으로부터 받는 전파도착시각의 차를 측정하여 자기의 위치를 산출해 내는 장치), VOR (VHF OMNI-Directional Radio Range : 초단파 전방향식 방위표시기로 유효거리 내에 있는 모든 항공기에 VOR지상국에 대한 지방위를 연속적으로 지시해줌으로써 항공로의 重要地點에 VOR지상국을 設置하여 정확한 항로상을 비행할 수 있게 함), DME (Distant Measuring Equipment) 및 Doppler와 같은 위치 및 진로를 알려주는 계통이 開發되어 항법사에게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 아울러 공중수송이 대륙간에 걸쳐 운행됨에 따라 항법계통에 要求되는 신속성 및 정밀성을 고려하여 무선위치지적(Radio Positioning) 및 천체를 利用한 技術의 開發

에 박차를 가하였다. 그러나 無線系統들은 지상중계소 및 공중장비들이 과도한 방송망이 필요하게 되어 계통들이 자연의 방해를 받게 되어 다소 制限點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래서 항법계통이 완전히 자체 내에 장비되어 위치 및 방위를 결정하여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항법계통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항법장치의 효시로는 제 2 차 세계 대전 중 독일이 V 2 호 로켓 항법장치로 개발한 자이로를 利用한 慣性航法을 Heading Source로 사용했었다. 전후 미국에서 MIT의 DRAPER 교수가 中心이 되어 1951~54년까지 研究한 結果, 6,000마일 비행에 오차는 겨우 15마일이라는 成果를 거뒀다.

그후 1958년에는 새로이 改良을 한 관성 항법 유도계통을 잠수함 노티라스불에 장착하여 북극해의 잠항 횡단에 成功하였다.

자이로의 研究開發은 그 후도 계속 실시되어 정밀, 소형화 되었고 한편 컴퓨터 技術도 상당히 진보되어 관성항법장치의 發達은 급속도로 눈부시게 되었다. 이 중 1962년 2월에 미국의 인공위성 "FRIENDSHIP I"에 장착하여 발사되어 이 계통의 有効성이 입증되었으며 그후 1968년 Litton社에서 民間航空用으로 開發한 "LTN-51" 계통을 American air line이 미국과 베트남 사이에 취항중인 B707에 장착하여 1년반 동안에 걸쳐 評價를 實施한 結果 대단히 좋은 成果를 얻었기에 FAA에서 전적으로 승인하게 되었다.

현재는 우주왕복선 및 최신여객기에는 거

의 이 航法裝備를 장착 완벽한 自体 自動 航法시스템을 구비하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모든 항법자료를 自体內에서 처리 하는 단일출처(Self-Contained Single-Source)로 처음에 位置資料를 提供받으면 계속해서 位置, 地上速度, 高度, 飛行方向資料들을 극도로 정밀하게 나타내 준다. 따라서 이 系統의 자료들은 自動操縱系統(Autopilot) 및 비행제기에 提供되어 유도 및 조종자료로 活用할 수 있게 된다.

II. 基本原理

관성항법장치(Inertial Navigation System)이라는 것은 대체 어떤 것인가? 어려운 것은 그만 두고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뉴턴의 운동법칙을 기초로 해서 쉽게 설명해가보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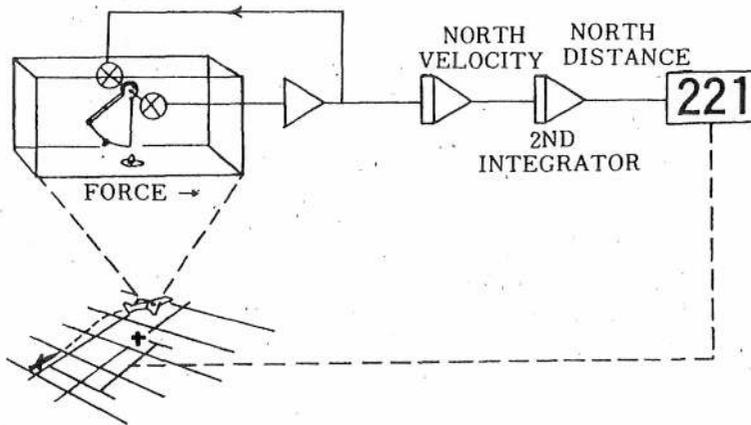
飛行機가 飛行하면 당연히 飛行機 속에 적재된 物件은 모두 관성의 영향을 받고 있을 것이다. 이 관성의 영향을 機械와 電氣的으로 찾아내 이것을 計算器에 넣어주면 航法士(Navigator)를 대신할 수 있지 않을까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 생각해낸 장치이다.

"정지하고 있는 物体는 정상상태를 계속하고 運動하고 있는 物体는 그 운동을 계속한다. 이 狀態(慣性)를 바꿀 수 있는 것은 外部 힘 뿐이다." "운동량 변화율은 外部 힘에 비례한다." 라는 뉴턴의 운동법칙에서 관성항법장치(INS)는 관성(Inertia)를 얻기, 위해 加速度計(Accelerometer)를 사

용한다. 그러나 비행기는 여러가지 자세로 비행하기 때문에 정확한 加速度(Acceleration)를 측정하려면 비행기의 자세에 관계없이 항상 수평한 Platform 위에 가속도계를 놓게 되어 있다. 이 加速度計에서 얻은 정확한 加速度를 적분기(Integrator)로 보내 時間의 函數를 넣어 컴퓨터에 보내면 잡지된 가속도로부터 기본계산을 응용하여 속도 및 거리를 알 수 있다. 가속도가 있는 한 속도는 변하게 되고 速度가 一定할 때 加速度는 0이 된다. 그러므로 관성항법계통

의 기본측정장치는 加速度計이다. 2개의 가속도계가 이 계통에 장착되는데 하나는 항공기 남북방향의 가속도를 측정해주고 다른 하나는 동서방향의 가속도를 측정해준다.

그러면 가속도계는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일까? 또 飛行機의 자세에 관계없이 언제나 수평을 유지하는 Platform이란 어떻게 되어 있을까? 또 地球의 자전이 있는데 지구좌표(Latitude, Longitude)로 표시하는 데는 어떤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인가?



(그림 1. 가속도계 및 적분기)

가속도를 알기 위해서는 그림 1로부터 진자의 회전축이 한쪽 끝에 진자가 중립점(Neutral position)에서 어느정도 흔들렸는가를 아는 장치(Pick-off Device)를 부착하면 된다. 이 장치(Pick-off Device)를 전기신호로 바꾸어 증폭기(Amplifier)에 넣어 증폭시킨다. 그리고 진자 선회축의 다른 끝에 흔들린 진자를 복원시키는 장치(Torgul Devi-

ce)를 장착하여, 전에 증폭된 전기신호를 받으면 다시 Netral position에 돌아오도록 해놓는다. 그래서 흔들리는 진자의 흔들림에 따라 복원장치에 보내는 전기신호의 강도가 틀리도록 해두면 이 신호의 강약이 그때그때 가해진 가속도가 된다.

이 신호의 강약을 전류로하여 회로를 연결해서 적분기에 입력될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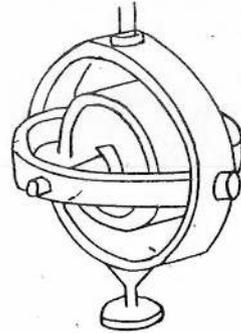
적분기에 보내지면 적분기에서는 입력된 가속도(ft/sec²)를 적분하기 시작한다. 적분기에서는 가속도가 시간에 완전히 곱해지며 그 결과는 속도(ft/sec)로 나타난다. 그 다음에 두번째 적분기로 보내지며 이 장치도 역시 시간을 곱하는 장치(Time multiplier)이다. ft/sec의 입력에 시간을 곱하면 그 결과는 거리(feet)가 된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항공기는 이륙시간으로부터 북쪽방향으로 221miles을 비행한 것이다. 앞 그림에서는 단지 한개의 가속도를 보여 주었지만 2개의 가속도는 북쪽/남쪽 방향 및 거리 뿐만 아니라 동쪽/서쪽 방향 거리를 알 수 있다.

관성계통과 관련된 계산기는 이륙지점의 위도 및 경도를 알아내어 항공기가 북쪽 및 동쪽 방향으로 얼마만큼 비행했는가를 계산해준다. Digital Computer는 매우 간단히 계속해서 항공기의 현재 위치를 계산해준다. 또한 요즘은 진자 대신에 Gyro를 사용하여 가속도를 측정해내고 있는데 이에 관해 알아 보겠다.

1. 加速度計에 利用되는 Gyr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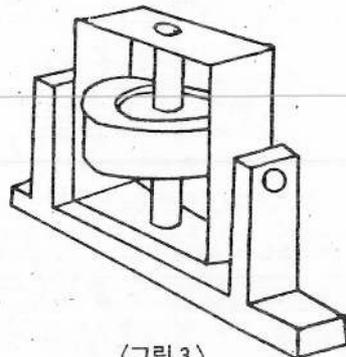
Gyro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것이 그림 2와 같은 Gyro이지만 이것은 2축 Gyro라고 해서 Gimbal이 2개 있어 이 2개축에는 자유롭다는 것이다.

그런데 가속도계에 사용하려면 이것으로서는 곤란하고 그림 3과 같은 Gimbal이 하나 밖에 없는 1개축 (Single degree of freedom Gyro)을 사용한다. 그러면 왜 이것을



〈그림 2〉

사용하는 쪽이 진자를 사용하는 것보다 좋을까? 이것은 항공기나 미사일이나 인공위성들에 사용할 때 느끼는 가속도의 폭이 상당히 넓어서, 약할 때는 50마이크로G에서 20G의 강도까지 움직여 주어야 한다. 진자로 써는 이 要求를 완전히 만족시켜 주지않기 때문에 Gyro를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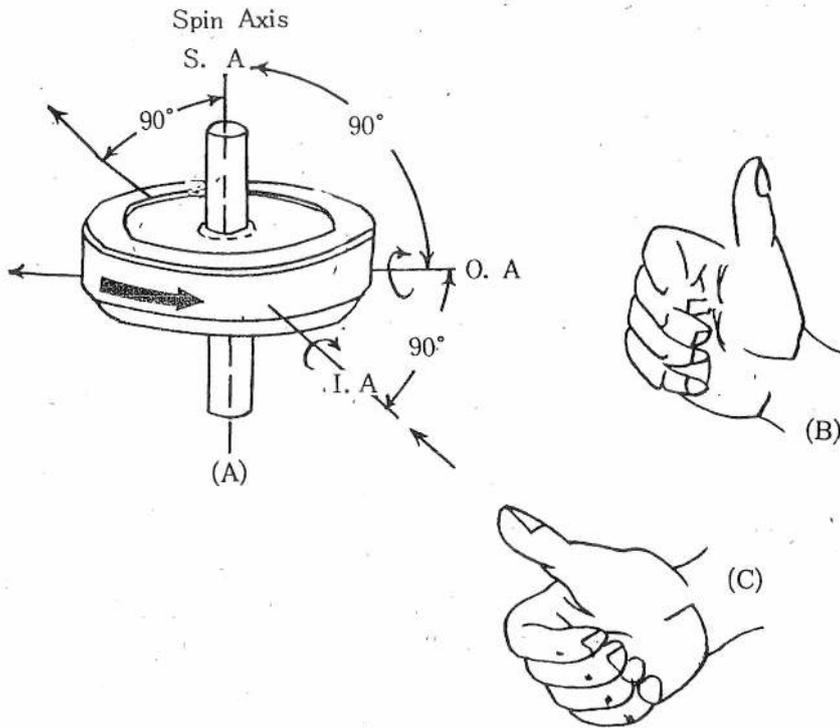
〈그림 3〉

2. Gyro의 特性

먼저 Gyro가 아닌 일반적인 어떤 物體에다 外部에서 힘을 가했을 때를 생각해 본다. 예를들어 골프의 공을 쳤을 때 공은 가해진 힘에 밀려 날려갈 것이다. 그러나 공이 맞지 않았다면 공은 원위치에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같이 일반적으로는 가해진 힘

과 같은 방향으로 반응은 나타난다.

그런데 Gyro 처럼 회전축(Spin Axis)를 中心으로 주위를 회전하는 바퀴에 의해 회전력을 얻고 있을 때는 옆에서 힘을 가하면 90도 빗나간 곳에 반응이 나타나게 된다. 좀 더 자세히 그림 4를 참조로 하여 설명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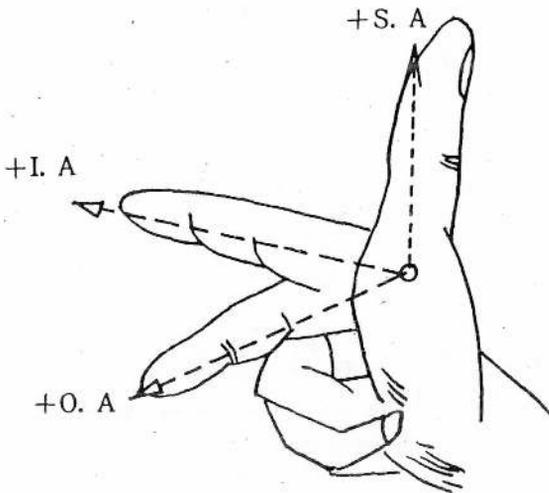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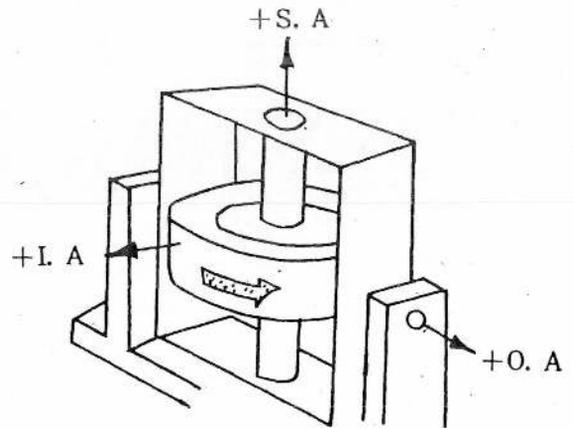


〈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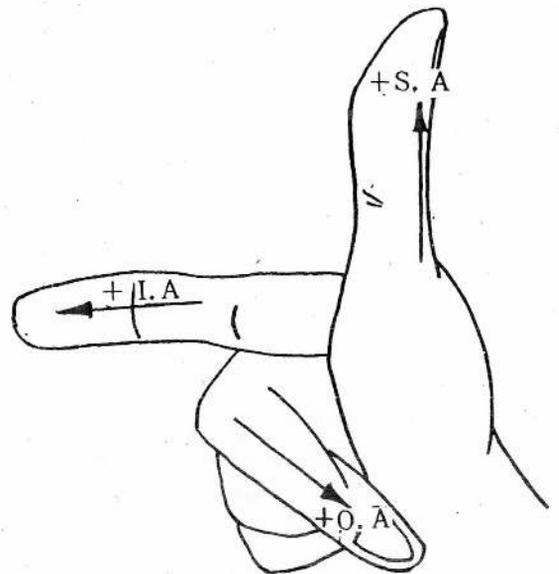
그림 4의 (A)에서처럼 Gyro의 팽이가 화살표 방향으로 회전하며, 이 中心에는 1개의 축(Spin Axis)이 있다. 이럴 때에 Spin Axis의 Positive한 方向은 그림4의 (B)에서 엄지손가락을 세운 方向이 되고 다른 4개의 손가락 方向은 Wheel의 회전 方向을 표시한다. 앞에서와 같이 회전의 中心

에도 축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회전을 가하는 方向은 Wheel주위의 어디서든지 가해도 좋다. 이것을 입력축(Input Axis=I.A.)라한다. 이와같은 힘이 가해지면 이 Input Axis에서 Wheel의 회전 方向으로 90° 앞선 곳에서 이 入力에 대한 반응(Reaction)이 나타난다. 앞의 그림 4에서는 O.A

(Output Axis)로 표시되어 있다. 이 반응 때에도 Input와 같은 회전력 Output이 된다. 이 반응이 나타나는 방향에는 또 하나의 축이 있으며, 이것을 出力軸(Output Axis)이라 하고, 또 이같은 반응의 동작을 Gyro의 Precession이라 한다. 이 3개의 축 S·A, I·A, O·A의 關係는 서로 직각으로 그 Positive의 방향은 다음 그림 5의 모양처럼 오른쪽손 손가락을 만들면 각 손가락 방향이 각각의 방향을 표시한다.



〈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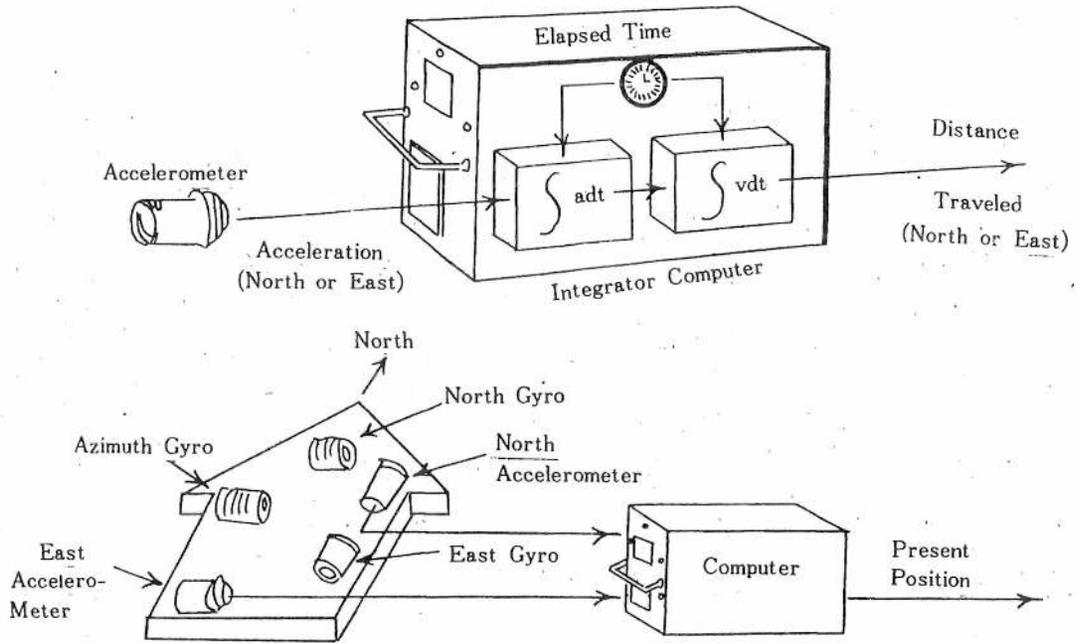
〈그림 6〉

그럼 여기에서 전에 설명한 1축 Gyro에 대해 생각해 보면 그림 6과 같은 관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게하면 알아내려고 하는 가속도의 방향과 직각으로 O·A가 향하도록 셋트하면 Gyro의 Precession을 利用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해서 얻어낸 Precession을 얻어냄과 동시에 진자 때와 같이 Gyro에도 Precession에 反對의 Torque가 작용하도록 해 주면 전과 같은 자세

로 다음 가속도를 가르쳐 준다.

CAROUSEL IV에서는 이와 같은 가속도계 3개를 수평안정판(Stabilized platform) 위에 (그림 7) 놓고 각각의 I·A의 방향을 하나는 Truenorth에 (X축), 다른 하나는 Trueeast (Y축)에, 나머지 하나는 그 장소의 지구중심에서 수직인 방향(Z축)에 맞추

는 것이다. 이것이 INS Alignment 一部로 INS를 사용할 때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다.



〈그림 7〉

이것으로 Gyro를 사용하는 가속도계(Accelerometer)의 간단한 원리를 알아 보았다. 그러면 이것을 없어놓는 수평안정판(Stabilized platform)은 어떻게 수평을 유지하는 것일까? 또 飛行機는 地表面을 利用하는데 어떻게 地球中心에 수직인 방향(Local Vertical)이나 True north에 대하여 방향을 維持할 수 있을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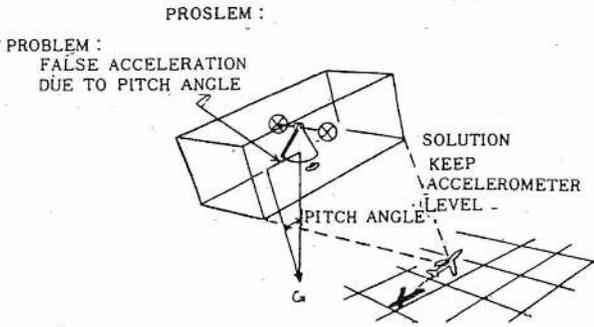
확실히 비행기는 시시각각 자세를 바꾸어 Pitch도 있고 Roll도 있으며, Heading도 바꾸지 않으면 目的地에 가지 못한다. 거기서 앞의 Gyro 때 생각한 Gimbal를 우리들이 지금까지 친하게 지내온 Gyro(Two-degree of freedom Gyro) 보다 Gimbal을 하나 더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이렇게 하

면 어떤 방향에 대해서도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 속에 Gyro를 놓아 앞에서의 가속도계에서처럼 이 Gyro에 비행한 거리, 방위에 대응한 변화율로 Torque를 주고 또 Gimbal에도 Torque Motor를 부착하여 보정해주면 된다. 이러한 어려운 계산은 모두 Computer가 맡고 있다. 이렇게하여 Platform은 Local vertical에서 좌표에 수직을 維持하고 North pointing Gyro로 항상 True north를 추적하고 있으며 East Gyro로 항상 True east를 향하고 있다.

3. 가속도계에 미치는 중력의 영향

이제까지는 加速度計가 航空機에 고정 장착되었을 때를 설명하였다. 이런 경우 가속

도계는 항공기의 자세에 의한 영향을 받는다. 다음 그림 8은 항공기가 이륙시 Pitch 자세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8)

이 장치가 기울어져서 진자가 0地点 사이를 움직이게 하는 사실은 重力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틀린 속도 및 거리를 야기시키는 틀린 가속도 신호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이 Pitch각에 의해 야기된 거짓 가속도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된다. 물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속도계를 수평으로 유지시켜야만 되는 것이다.

가속도계를 수평상태로 유지시키기 위해, 이 가속도계를 Platform이라 부리는 Gimbal 장치안에 장착한다. 이 Platform은 항공기가 어떤 자세를 취해도 Platform내부의 部品인 가속도계는 수평상태를 유지하게끔 하는 기계장치에 불과하다. Platform을 안정되게 유지시키는데 사용되는 Gyro-scope도 역시 Platform의 내부에 장착되어 있다. Gyroscope Gimbal을 조종하는 증폭기(Amplifier) 및 모터에 입력을 넣어서 가속도계의 수평을 유지하게 된다.

III. 관성항법계통의 정렬(Aligning the System)

여태까지는 이 계통이 미리 조정되어 작동준비가 되었을 때를 가정해서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이 계통을 작동시킬 때 꼭 고려해야 할 두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로 가속도계가 수평을 유지해야하며 두번째로 Platform (또는 Wander Azimuth 계통의 C-computer)은 진북을 향해야 한다. 이를 보통 회전나침반의 방향(Gyro Compassing)이라 부른다.

관성항법계통은 속도 및 위치자료를 얻어 가속도의 적분으로 이루어지는 계통이므로 어떠한 적분과정에서도 꼭 주의해야 할 사항은 처음상태 즉 여기서의 속도 및 위치를 알아야 한다. 관성항법계통의 정밀도는 처음상태의 정밀도에 기인되는 것이다. 따라서 System-alignment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두 가지 要件인 가속도계가 수평을 유지해야만 하는 점과 플랫폼이 진북을 향하도록 해야 한다. 즉 X자이로는 Platform과 眞北을 잇는 X축을 형성하고 Y자이로는 Platform과 地球中心을 잇는 Y축을 形成해야만 하는데 이같은 시스템을 북극을 표적으로한 관성항법이라 부른다.

북극표적관성항법은 북반구를 비행하는 대부분의 항공기가 사용하는데 이 항법의 한가지 단점은 극지방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즉 Platform이 항상 북극을 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항공기가 북극

바로 위를 지나갈 때는 Platform은 수직으로 북극을 향해야 하는데 이때 Platform이 地球中心과 직각을 이룬다는 것은 物理的으로 不可能하다. 따라서 북극표적관성항법은 극지방에서 수백마일 이내의 지역에서는 사용치 않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다.

이런 경우에는 변동표적관성항법을 사용한다. 이 방법도 기본원리는 북극표적 관성항법과 동일하다. 다만 Platform의 표적을 북극에 고정시키지 않는 점만 다를 뿐이다. 즉 앞의 북극표적관성항법은 Y자이로에 지구의 자전과 공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X자이로는 오직 眞北만을 향하도록 했지만 이번에는 X자이로에도 지구표면 오차에 대한 정보를 주어서 眞北에서 일정각도가 떨어진 지점을 향하도록 유도, Platform이 계속 수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항공기의 위치가 바뀔에 따라 Platform이 표적으로 하는 地点은 변화하지만 Platform은 계속 수평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IV. INS의 전망 및 장단점

전 세계를 무대로 한 항공교통량의 증가는 날로 증가해가고 있으며 특히 안전운행

뿐만 아니라 적의 목표지점을 정확히 파괴하기 위한 Pin point 공격이 요구되는 요즘 항로이탈을 막기위한 여객기 뿐만 아니라 군용기에도 최신 항공기에는 모두 장착되어 조종사의 업무부담을 현저하게 덜어준다.

아직까지 개발된 항법장비중에서 INS 만큼 정확하고 유용한 항법장비는 없다고 본다. 이것은 창점을 간단히 살펴보면

- ①지구의 전역에서 작동이 가능하고
- ②고도의 구애됨이 없으며
- ③전파발사가 없어 적에게 들킬 염려가 없고,
- ④적의 전파방해를 받지않을 뿐 아니라
- ⑤기후에 구애됨이 없다.
- ⑥또한 항공기의 모든 機動狀態에 순응할 수 있고
- ⑦독자적인 작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아직도 INS는 값이 비싸고 지구의 양극에서는 약간의 오차를 감수해야만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의 패널피를 안고도 항공기 구매자들은 항공기의 안전운행과 적의 目標地點을 정확히 공격해 들어가기 위해 그들의 구매욕구를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참고문헌 : ① Litton Guidance & Control Systems.
 ② I. N. S Guide (日本運輸部)

無人航空機 (RPV) 의

현재와 장래 (上)

尹 炯 基 記

최근에 있었던 레바논전쟁에서, 이스라엘군은 쉽게 그리고 이스라엘 항공기의 손실 없이도, 베카계곡에 있는 시리아의 GAINFULL 지대공미사일을 무력하게 할 수 있었다.

이와같은 큰 성과는 미사일체제를 집중 공격하기 위하여 Decoy용으로 무인기를 사용하였고, WILD WEASEL 공격기와 같이, 시리아의 SAM 및 대공포진지를 파괴하는데 필요한 각종 전자적 Data를 제공하여 주었던 무인기의 사용으로 성취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스라엘측은, 1973년에 있었던 제 4 차 중동전에서 이집트의 SAM진지를 공격하기 위하여 유인항공기 보다 값이 저렴한 기만용 무인기를 이미 사용한 바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유인항공기의 손실을 다소 방지하였다.

이스라엘측이 무인기를 사용하여 성공한 또다른 예는 레바논전쟁이 발발하기 13개월 전인, 1981. 5. 12일에 SA-6, 3발이 발

사되어 그중 2발에 이스라엘 무인기 1대가 격추되었으나 이스라엘의 유인정찰기는 고고도에서 아무 피해 없이 그의 정찰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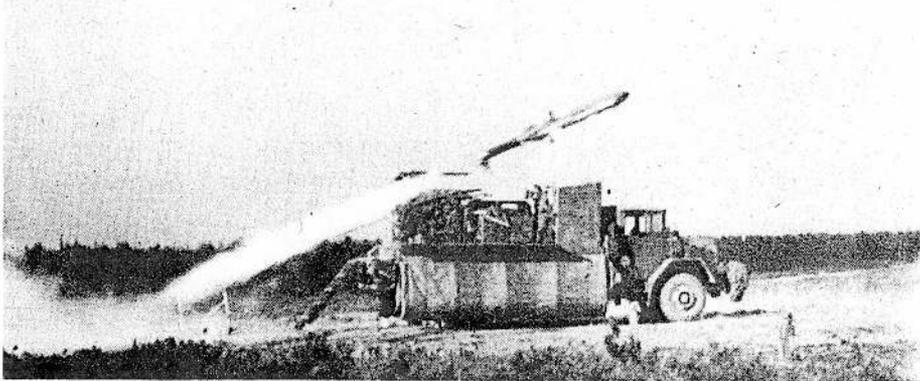
월남전기간 중에 미군이 비행한 각종 임무와 더불어, 이와같은 무인기의 임무는 적어도 무인기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입증하였으며, 또한 전투조건하에서도 그의 임무의 가능성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몇가지 예외와 목표기로 사용된 무인기를 제외하고는 어찌서 무인기가 실제로 취역하고 있지 않는지는 계속 의심스럽다.

일반적으로 Drone과 RPV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없다. 다시 말해서 이들 항공기간에 불분명한 구별을 함으로써 이득이 될만한 것도 없다. 이는 한계가 불분명하고, 각종 새로운 기술과 그 임무가 계속 개발되고 있으며, 과거의 정의와 종종 일치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RPV와 Drone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RPV와 Drone은 모두가 무인항공기로서 유인항공기와 유사한 Configuration을 갖고 있으며, 이들 항공기의 비행로(Flight Path)는 조종이 될 수 있다. 무인기에는 탄도미사일이나 또는 유도미사일이 포함되지 않으며, 순항미사일은 별개의 경우이다.

Drone과 RPV를 명확하게 구별하는데 지나치게 집착할 필요는 없다. 이는 두 낱말이 동의어로서 특별히 사용되고, 어떤 경우에는 두 낱말이 같은 항공기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 예는 Harassment RPV로, 이는 레이다 공격용 Mini-drone으로 부르고 있다.



〈단거리 전장감시 및 정찰용 RPV 기계화된 비행로를 따라 비행하며, DR항법을 사용한다. 수직 Gyro의 수단으로 고도가 조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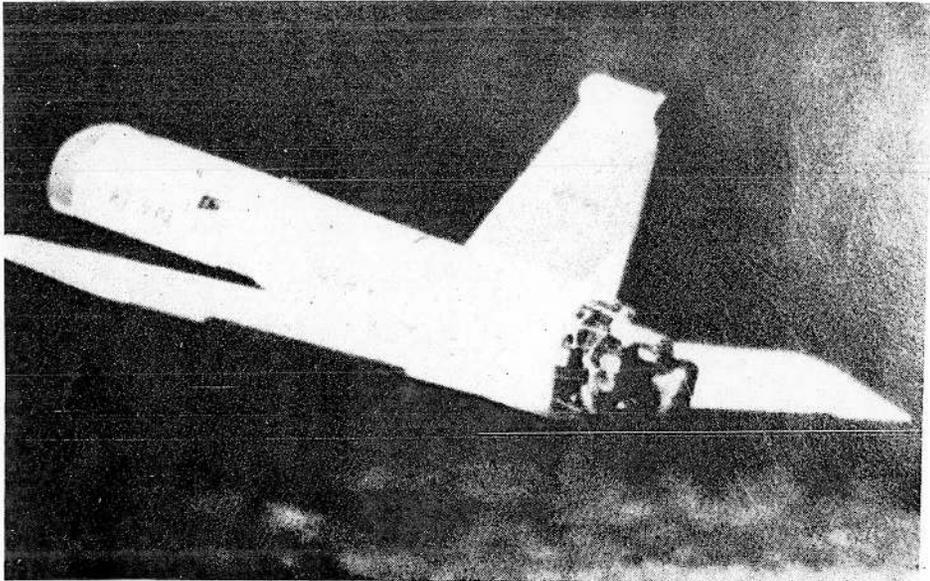
많은 전문가들은 RPV를 원거리에서 위치한 통제소에서 유도할 수 있는 항공기로 간주하며 Drone은 기계화된 비행로를 따라 비행하며, 비행로에 대한 여러 구간은 통제소에서 유도할 수 있는 항공기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독일의 전문가들은 Seeker와 탄두가 장치되어 있고,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소모용 무인항공기를 Drone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RPV는 물론 Drone은 재사용할 수 있다.

NATO에서는 이들 무인기 (미사일은 제외되나, 순항미사일은 포함됨)에 대한 공식명칭으로 UMA (Unmanned Aircraft) 로 부르고 있다.

무인항공기의 역사

제 1차세계대전이 시작된 후 그리고, 미국과 영국에서 1920년대 동안 많은 연구를 한 후에, 1934년에 영국 해군에서 최초로 작전할 수 있는 무인기(Drone)를 소개하



(서독의 VFWFOKKER사에서 제작한 TOUCAN Mini-drone, 250kph의 속도로 비행할 수 있으며, 최고 약 3,000m까지 상승할 수 있음.

였다. 이 무인기의 명칭은 QUEEN BEE였고 무선으로 조종하는 표적용 무인기(Target drone)로 목조형이었다.

최초의 무인정찰기는 1939년에, Rechlin에서 비행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1944년에 전개되었던 V1과, 무선으로 조종하지 않았던 최초의 무인기를 제외하고는, 표적용 무인기에 모든 개발이 집중되었다. 전쟁 후 가장 잘 알려진 대표적인 무인기는 Ryan FIREBEE I으로 약 7,000대가 생산되었다.

쿠바위기 및 월남전으로 정찰임무용 및 기타, 주로 EW임무용 무인기가 개발되었으며, 이 무인기체제는 표적용 무인기를 기초로 하였다.

이와같은 표적용 무인기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Ryan AQM-34(Model 147)였으며,

그중 20개형 이상이 제작되었다.

1964년에 CL-89 정찰용 무인기가 최초로 비행하였으며, 1970년에 독일 육군에 취역하였다. FIREBEE II는 최초의 초음속 표적용 무인기이며, 1970년대에 와서 전술용 RPV가 전세계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크기와 하중능력 및 임무가 변하였다. 그 외에도 전략용 RPV가 개발되었으나, 이 계획의 어떤 것도 생산되지 않았다.

Mini-RPV의 개념은,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점점 광범위하여졌으며, 이는 약 100kg까지의 항공기는 각종 전술적 이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또한 가격이 낮기 때문에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다. 따라서 대규모의 공격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독일에서는 변하는 특성을 가진 Mini-RP

V는 VFW의 Harassment (후에는 LOCUST)와 같은 계획과 Dornier 및 MBB 계획으로 제작되었으며, 이들 항공기는 1977년에서 1980년까지 비행하였다.

독일의 모든 회사들이 분석을 하여 왔으며, 50년대 말 이후 보다 최근에 와서는 KDB 1과 같은 각종 해외체제를 관리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다른 국가와 순조롭게 무인기를 완성할 수 있는 분야의 전문지식을 독일은 보유하고 있는 것 같다.

무인기의 역사를 살펴볼 때, 무인항공기는 실험적으로나, 또는 실제임무에서 여러가지의 각종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음이 입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주목할만한 일은 군사적으로 항공목표물과 정찰용으로 오직 2가지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표적용 무인기를 제외하고는 현재로서는 미국에서는 작전용 체제를 사용하지 않거나 또는 생산하지도 않고 있다.

알려진 바로는, 오직 2가지 개발계획(AQUILA 및 PAVE TIGER)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독일에서는 취역중인 한가지 체제가(CL-89) 있으며, 한체제(CL-289)는 개발중에 있고, 다른 체제(ARGUS)를 계속 개발할 것이냐는 문제는 논쟁 중에 있으며 한체제(KZO)는 개념단계에 있다.

각종 개발계획이 이와같이 저조한 이유는 여러가지의 이유가 있으며, 개발회사와 군 및 무장분야는 모두가 이에 대한 그 나름대로의 이유를 갖고 있다.

무인기의 분명한 장단점 외에도, RPV에 대하여 많은 의식적인 편견이 있다. 많은 공군조종사들은 RPV를 유인기와 거의 맞먹는 경쟁기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일부 회사들이 1970년대 동안 무인기는 유인기를 보충할 수 있는 항공기가 아니고, 유인기를 대체할 수 있는 항공기라는 미공군의 RPV개념을 믿으려 하였던 것은 분명히 잘못이었다. 그러나, 세계의 지상군들은 RPV의 사용에 관하여 상당히 관대하다.

그 외에도, 군 Planner들은 일련의 각종 임무를 위해서는 제한된 전투경험만을 갖고 있으며, 보다 최신의 제반계획을 위해서는 전혀 아무 경험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 때문에 약간 실망할 수도 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유인항공기체제는 다목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무인항공기의 장단점

RPV가 갖고 있는 전반적인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장점 :

○ 가격이 싸기 때문에 Jamming, decoy 및 공중공격임무용으로 보다 많이 생산할 수 있다.

○ 조종사의 위험부담이 없다. 따라서 보다 크게 전쟁저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 공중에서 취약성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

- 지상에서의 취약성이 보다 낮다.
- 이용성과 기동성이 보다 높다.
- 훈련비와 연료소모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 환경에 대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 인간생리에 의하여 나타나는 실제 및 비행상의 제한점이 없다.

단점 :

- 유연성이 보다 적다.
- 조종사를 대신하여, 항공기 자체에 무장을 하는데, 비용이 보다 많이 소요된다.
- 평시에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상공에 RPV를 비행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훈련의 기회가 보다 제한을 받게 된다.

○ 의존도가 보다 높다. 따라서 Data 전송중 전술적 제반 위험이 뒤따른다.

RPV의 임무

종전에 RPV가 이미 수행한 임무외에도 최신 기술이 발달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여러가지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 각종 표적기로 사용
- 상황정찰(사진, IR Linescan, SLAR/FLIR)
- 목표지시(탐색, 측정, 조명, 피해평가)
- 전자정찰(ELINT)
- 통신정찰(COMINT)
- 능동(Jammer, decoy) 및 피동(Chaff, Flares) ECM
- ECCM

○ 기만용 RPV를 사용, 적방공을 포화상태로 만들 수 있다.

- 통신기능(중계, C³, 원거리통신)
- 고정된 방사성 목표물에 대하여 공중 공격을 할 수 있다(방공제압, 적의 C³능력 제압)

○ 차량에 대한 공중공격(특히 적의 제2세대 공격)

○ 수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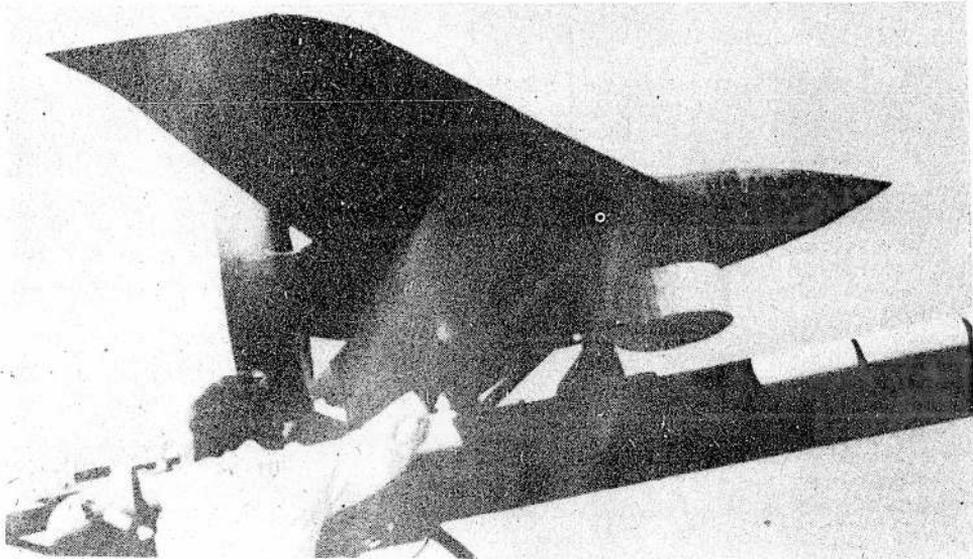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일부 이와같은 임무가 보다 상세하게 시험되었다. 다시 말해서, 아래에 언급한 몇가지 체제에서 최신 RPV의 개발기술을 알아 볼 수 있다.

표적기(Target)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무인기는 표적기로써 가장 널리 사용되었다. 표적용 무인항공기는 아주 특이한 훈련 및 시험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 개발이 무시되어 왔다.

표적용 무인기는 Mach 2까지의 모든 속도 영역에서는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륙 중량은 약 1,000kg까지이다. 최근에 개발을 하는데는, 혼합물질 및 최신 마이크로전자장비를 사용하여 가격을 감소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있음은 물론, 특수 목표물의 Simulation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하중(Payload)을 증가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Northrop사의 Ventura Division에서 개발중에 있는 NV-144는, 약 30년전에 개발된 BQM-34 FIREBEE I의 절반 가격에 비하여 그 가격이 불과 1/3정도 밖에 안 된다.



〈Lockheed사에서 제작한 최신형 AQUILA RPV로 공격할 수 있도록 목표물의 위치를 확인, 목표물을 제공하도록 설계되고 있음.〉

표적용 무인기의 한 특이한 면은 지상에서 유도하여 기동을 할 수 있도록 제트기를 개조한 것이다. 이 기술은 1945년 전에 독일에서 이미 사용하였으며, 오늘날에도 공대공교전에서 조종사를 잘 훈련시키기 위하여 미국에서도 계속 사용하고 있다.

독일에는 KZD 미니표적용 무인기를 제외하고는 개발된 표적용 무인기가 없다. KZD는 그 자신을 입증하였으나 취역하고 있지는 않다. 지대공미사일과의 시험 및 훈련은 필요한 표적용 무인기가 제공되는 외국의 사격장에서 실시한다.

정찰용 무인기

대부분의 각국의 군에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이유로 항공정찰용 무인기를 오래 전부터 필요로 하여왔다.

첫째, 현재의 각종 지역무기로 적의 부대를 분산하도록 하며,

둘째, 발전된 최신 정밀무기는 직접 목표물할당을 필요로 하고,

셋째, 유인항공정찰이 사용될 때에는 임무할당과 그 결과간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항공정찰을 위하여 RPV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RPV의 우수한 적합성(적 지역 상공을 저고도로 비행)과 월남전에서 RPV를 사용하여 상당한 결과를 성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독, 영국, 이태리, 불란서, 벨지움 및 이스라엘군에서만 RPV를 완전히 작전에 운영하고 있다.

독일군은 RPV를 최초로 취역소개 하였고, 독일군 정찰용의 전체적인 개념등을 감안해 볼 때, RPV의 사용에 독일군은 선보

적 역할을 하여왔다.

CL-89(NATO명 AN/USD-501)

캐나다와 영국 및 서독에 대한 주 계약 회사로서 캐나다에서 개발한 재사용할 수 있고 기동성이 있는 CL-89의 개발은 다른 여러체제의 개념을 위한 방법을 개척하였다.

CL-89무인기는 1972년에 독일 육군에 취역하였으며, 그의 임무는 사단급 수준에서 주·야간 상황정찰 및 전장감시 임무였다. 이 무인기는 발사 중량이 112kg으로, 보조 연료탱크를 사용시 약 50km 내지 65km까지 침투할 수 있다.

투하용 Booster를 이용 2.5초 이내에 760 km/h의 속도까지 무인기를 추진시키며, 이 속도는 Turbojet engine을 사용 유지된다. 탑재용 컴퓨터에는 필요한 Data(특히 비행할 지점과 정찰할 비행로)로 프로그램이 되며, 이는 비행유도를 하여 주고 카메라를 조종하여 준다.

착륙접근할 때를 제외하고는 무인기는 외부에서 유도할 수 없으며, 따라서 적의 어떠한 ECM에도 완전히 저항할 수 있다.

최종 착륙접근시 Radio beacon으로 조종하며, 낙하산과 Air cushion을 사용하여, 착륙을 한다.

하중(Payload)은 광학자동카메라와, IR linescanner(IRLS)로 구성되어 있으며 Film은 착륙후 제거 현상한 후 평가한다. 최적 조건에서는, 임무가 부여되어 최초 결과 보고서까지 불과 60~80분 밖에 소요되지

않는다. 다시말해서 RPV가 비행하고 나서 가장 빠를 때는 40분이 지나서 목표물과 교전할 수 있다.

서독 육군은 1970년 이후 CL-89를 사용 1,700회 이상의 비행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매우 만족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CL-289(NATO명 AN/USD-5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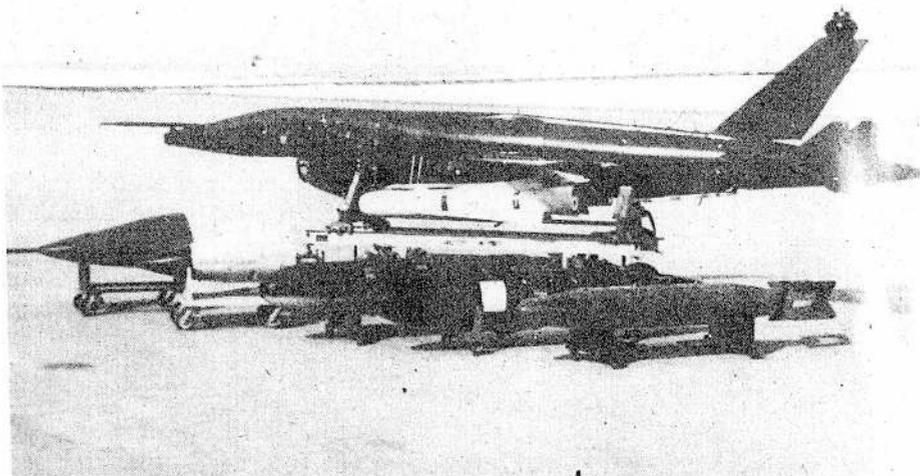
CL-289는 CL-89의 후속계획으로 그 구조와 임무계획이 CL-89와 유사하다. 캐나다와 서독간에 쌍방계획은 1976년에 시작되었으며, 불란서도 1977년에 이 계획에 참여하여 IRLS sensor와 jam-proof data transmission system을 개발하기 위하여 SAT를 계약하였다.

CL-289는, 군단 수준에서 목표 및 상황정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2000년 이후에도 취역하도록 되어 있다.

CL-289가 CL-89 보다도 향상된 점은 다음과 같다. 즉, 침투거리가 보다 길며, 2개의 Sensor를 장착할만큼 충분한 하중 능력이 있으며, 우수한 항법 능력과 Doppler radar를 사용함으로써 바람의 영향을 적게 받고, IR 영상으로 실시(real-time)에 Data를 전파할 수 있고, 비행로를 사전계획하는데 유연성을 크게 발휘할 수 있으며, 비행로를 보다 빈번하게 변화시킬 수 있고, Sensor를 자주 Switch on/off시킬 수 있다.

이와같이 여러가지의 능력을 보다 우수하게 향상시킴으로써, 중량이 더욱 증가하게 되었고 체제의 각종 부품을 새로이 개발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용절차와 훈련 및 하다.
 자료를 유지하는데 CL-89와 매우 유사



〈Teledyne Ryan사에서 제작한 FIREBEE 무인기. MAVERICK공대지미사일을 포함하여 각종 무기와 Sensor를 무장하고 있다. FIREBEE는 1960년에 최초 비행, 현재에도 계속 사용하고 있다.

ARGUS

ARGUS(Autonomes Radar-Gefechts-Uhrwachungs-System=autonomous radar battlefield surveillance system)는 stand-off정찰용으로 개발되었다.

이 체제는 Dornier사에서 개발한 KIEBITZ platform과 불란서에서 개발한 ORPHEE II radar sensor LCT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적의 이동사항에 대한 Data를 수집, 준비하여 전파하도록 설계되었다.

ARGUS는 사단급 수준에 전개하도록 되어 있으며, 정찰구역은 180° 방위각에 대하여 60km까지의 적지역을 정찰할 수 있다.

이 체제는 모든 기상조건에서도 작전할 수 있으

며 24시간 이상동안 작전할 수 있다.

KIEBITZ Platform은 reaction rotor 를 1개 사용하고 있으며, Rotor의 Twin Blade는 Blade-tip nozzle을 통하여 확장된 Cold air에 의하여 회전된다. Cold air는 300kw의 Allison 250 gas turbine을 회전시키는 Compressor에 의하여 제공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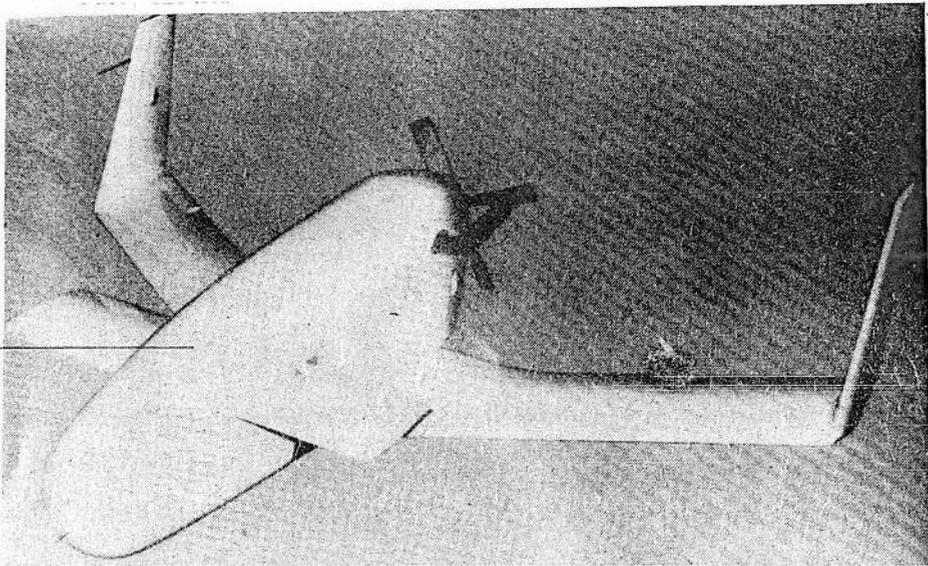
ORPHEE II는 Coherent pulse doppler radar로써, 이동목표물을 포착하기 위하여 이동목표 지시기가 장치되어 있다. 이 레이다는 수직축으로 회전할 수 있으며 고도 및 방위각에서 안테나가 고도로 정확하게 기능을 하는 것이 이 레이다가 갖고 있는 특징이다.

Radar data와 platform의 정확한 위치가

Control system으로 전파되며, Screen상에는 종합적으로 생산된 위치를 위한 교정된 real-time display가 나타나게 되고, 특별한 시간동안 radar data를 저장(store) 함으로써, 추가정보가 생산되어 display될 수 있다.

ARGUS는 계획대로 자동으로 Data를 전

송할 뿐아니라, 24시간동안 전 사단구역의 현재의 적 사향을 전투지휘소로 제공하여 준다. 최초로 육군을 위한 대규모의 실시간찰(Real time reconnaissance)의 긴급한 요구가 충족될 수 있게 되었다.



(Boeing사에서 제작한 PAVE TIGER무인기. ECM장비와 탄두 및 Sensor 등 각종 무장을 할 수 있으며,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목표물을 공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목표포착(Target detection)

목표물, 특히 포부대의 기동성이 점점 증가됨에 따라, 앞에서 언급한 무인기 체계로는, 도저히 충족할 수 없게 되므로, 새로운 형태의 정찰이 필요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적의 각종 목표물과 즉시 그리고 정확하게 교전할 수 있고, 가능한 한 피해평가도 할 수 있는 실시간목표물정보(Real time target information)의 준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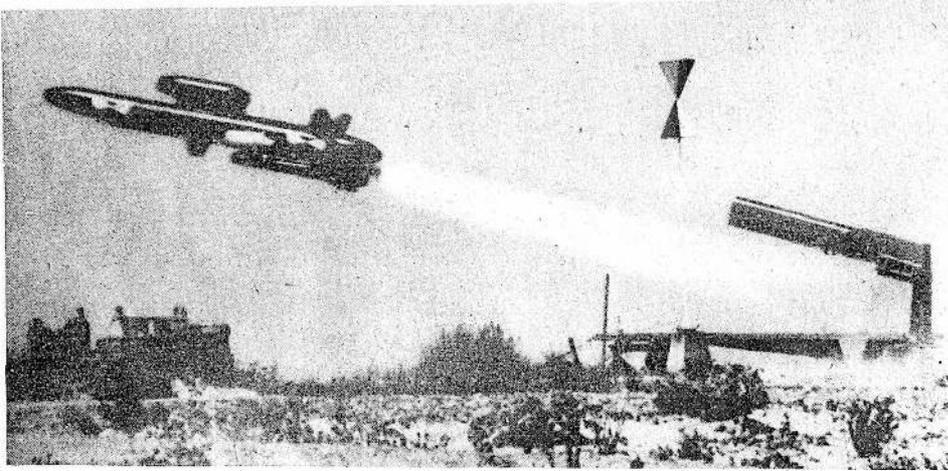
이와같은 방법을 이용함으로써, 터미널 유도발사체(어뢰, 미사일 등)를 포함하여 Tube식 및 미사일식 포부대의 능력이 상당한 정도까지 증가될 수 있다.

각종 재래식 체계보다 Coverage가 보다 넓고, Loitering time이 더 긴 그런 무인기 체계의 개발에 국제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같은 관심은 PHOENIX(영국), SKORPION(불란서), 및 KZO(서독) 등과 같은 개념단계에 있는 몇가지의 계획에 의하

여 입증되었다. 또한 이태리의 Metear MIRACH 20이 개발단계를 완료 중에 있으며, 미국의 AQUILA의 개발도 현재 완료 중에 있다.

이 외에도 이스라엘에서 개발한 SCOUT와 MASTIFF와 같은 두 가지의 무인기체체는 이미 작전 중에 있으며, 전투에서 그 능력이 입증되었다.



〈불란서의 Aerospatiale사에서 제작한 CT22 Drone의 발사장면, 견인능력이 있으며, 1회 비행중, 2개의 목표물을 성공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

AQUILA

미국에서 개발중에 있는 2가지의 RPV 체제중 그 하나인 AQUILA는 육군의 목표물포착과 조명(Illumination), 적 포부대의 위치지시, 재래식포 및 유도무기와 MLRS 체제의 피해평가 등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

AQUILA체제는 고도의 기동성(60분 Set up, 30분 Take-down time)이 있으며, FEBASE선 후방 10km에 전개하도록 되어 있다.

Hydraulic-pneumatic launch catapult와 net recovery system(Dornier사에서 개발 및 생산)이 다른 부품들이 적재되어 있는 것과 같이 트럭 위에 적재되어 있다.

극히 소수의 지상요원이 필요하며, Flight control system의 이용으로 발사해서부터 회수되기까지 거의 모든 비행단계를 수행할 수 있고, 하더라도 지상에서 발사 적국을 유린되게 할 수 있다.

발사 및 회수체제를 사용, 5분 간격으로 발사할 수 있고, 지상관제소에서는 여러개의 RPV를 동시에 조종할 수 있다.

Jam-free data transmission link를 이용 목표물을 포착하는데 필요한 Video image와 기타 첩보 외에도, 비행조종지령(Flight control command)을 전파할 수 있다.

AQUILA무인기는 Flying wing craft로 기장은 약 2m이고, 익폭은 3.9m이며, 동체는 Kevlar epoxy 혼합물질을 사용하였으며,

19kw pusher propeller를 사용한다.

이륙중량은 100kg이며, 비행속도는 90~180km/h이고, 최대 고도는 3,600m이다.

Airborne flight control system은 Pitot-static 및 strap-down system을 사용한 Digital식 자동조종장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장비는 주간용 카메라와 Laser rangefinder 및 illuminator 등을 들 수 있다.

AQUILA체제는 전차크기의 고정 또는 이동 목표물을 포착 자동 추적할 수 있으며, 레이저조명(Laser illumination)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목표물의 위치를 계속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다. 따라서 유도무기나 보통 튜우브식 포로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다.

망(Net)을 사용하는 회수체제는 RPV의 자동 최종접근유도방식(Automatic final approach guidance)을 사용하며, Airborne t-

ransmitter에서 방사되는 IR 신호를 망(Net)에 있는 2개의 수신기가 찾아낸다. 즉, 2개의 수신기는 비행로에서부터 자동조종에 이르기까지 어떤 이탈(Deviation)을 전파한다.

또한 RPV의 공중목표물 추적능력을 사용하는 자동 Back-up system이 있으며, AQUILA는 비상시에는 낙하산을 이용 착륙할 수 있다.

RPV(완전하게 무장한)의 가격은 350,000달러(미국)이며, 이미 부분적으로 개발 및 시험된 다른 장비를 사용하면, AQUILA 무인기는, 통신중계, ECM, ECCM (COMINT 및 ELINT), 공중공격, 기상자료포착 및 전파 등 여러가지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軍事知識코너○

戰場에서의 레이저 技術

편 집 실

來日의 戰場은 그 位置가 陸上, 海上, 또는 空中의 어디에 있던 한가지 共通點을 가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世界의 戰史

上 가장 殺戮的 光景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오늘 可用한 技術과 가까운 將來에 可用

한 技術은 戰爭의 樣相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고야 말것이다.

레이저는 1950年代 中반에 등장 이래 醫學, 農業, 送電 및 發電, 그리고 軍事 등 여러 分野에서 사용되어 왔다. 그런데 레이저가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곳은 軍事 分野인 것 같다.

第2次大戰에서는 戰車가 生殘性이 가장 높은 武器였다. 극소수의 火力武器를 제외하고는 거의 無敵이었고, 단지 戰車에 의해서만 파괴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 1973年의 아랍國家對 이스라엘의 中東戰에서는 戰車의 生殘性이 크게 떨어졌다.

소련의 第1世代 對戰車誘導미사일인 개인휴대용 AT-3 SAGGER는 3km의 射距離에서 戰車를 쉽게 파괴할 수가 있었다. 이러한 비교적 간단하고 값싼 武器의 등장으로 戰車를 敵에게 露出시킨다는 것은 致命的인 과오로 될 수 있다.

1973年의 中東戰에서는 그 期間이 짧았음에도 兩側에서 모두 3,000台 이상의 戰車를 상실하였을 것이다. 戰車가 이렇게 약하기는 史上 처음이었다.

高速艇, 潛水艦 또는 航空機에서 발사되는 對艦미사일은 원거리에서 巡洋艦이나 驅逐艦같은 큰 軍艦을 발견, 추적하여 격침시킬 수가 있다. 1982년의 포클랜드 戰爭에서는 對艦미사일의 致命的 效果가 여실히 증명되었던 것이다.

이스라엘은 1982年의 레바논 侵攻에서 高度로 발달한 武器와 이에 맞는 最近 戰術로서 다소 劣勢인 시리아空軍을 일방적으로

파멸시켰던 것이다.

이러한 武器革命을 가져오게 만든 것은 마이크로 電子, 誘導統制, 砲身の 堅固, 感知器와 探索器 및 射擊統制 등의 분야에서 이룩한 最新技術이었다. 이들 高度로 발달한 最新技術武器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여러 가지 물건중의 하나에 레이저가 포함된다.

레이저란 한마디로 말해서 單色, 凝集光 (Monochromatic coherent light)이 高度로 집중된 光束(Highly concentrated beam)으로 볼 수가 있다. 單一 波長, 다시 말해서 單色이며 또 位相에서 흰빛의 閃光처럼 擴散되지 않기 때문에 레이저光線은 平行線을 이르며 원거리까지 그의 放射를 일정한 方法으로 보낼 수가 있다.

레이저의 가장 最初의 그리고 가장 단순한 용도는 距離測定이었다. 野砲같은 間接射擊武器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各砲의 위치와 方位를 정확히 알아야만 한다. 과거에는 手動水平測量器로 陣地의 測量이 수행되었고 거리는 20m의 테이프자로 측정되었다.

오늘날에는 레이저測量, 距離測定器를 사용하며 10km까지의 거리는 數分內에 불과 3~4cm의 誤差로 測定할 수 있게 되었다. 이 技術은 主戰車砲의 정확한 사격을 가능케하는 射距離測定에도 응용되었다.

初期의 戰車에 있어서는 指揮官이 아무런 測定器具의 도움없이 표적까지의 거리를 目測하여야만 했다. 따라서 그것은 정확하지 못하였다. 이런 誤差때문에 第2次大戰에서

사용했던 戰車砲의 有效射距離는 1,000m를 넘지 못하였다. 光學的 合致式 距離測定器 (Optical coincidence rangefinder)가 目測 距離測定을 대신했으나 이것 역시 使用速度가 느리고 또 精確하질 못하였다.

레이저가 이 機能을 하도록 응용되고 있는데 戰車와 그 목표 사이의 거리는 이제 1秒內에 1피트 內의 誤差로 測定할 수 있다. 이렇게 精確한 距離測定能力으로 말미암아 戰車砲는 그 彈藥의 致死力을 十分 發揮할 수 있게 되었고 또 第1彈의 命中率을 크게 높였다.

1960年代 末에는 레이저가 처음으로 精密誘導武器에 사용되었다. 레이저 光의 빔 (Beam)인 標的指示器는 航空機에서 조작하여 特定目標物을 照明하는데 사용되었던 것이다.

레이저光이 목표물에 도달하면 넓은 角度로 반사하여 發射源에 되돌아 온다. 調整가속기 (Control actuator)와 레이저 探索器 (Laser secker)를 가진 爆彈은 標的指示器의 波長에 맞추어 목표물 가까이에서 落下시킨다.

그러면 爆彈의 探索器는 반사된 레이저의 에너지를 받아 目標物까지의 方向을 감지하고 運行指令裝置 (Steering commands)를 작동케하여 爆彈의 滑降을 調整하여 指示된 목표물을 명중시킨다.

越南戰 초기에 美空軍과 海軍의 戰爆機들은 北越에 있는 탄호아橋를 폭파하려고 출격하였다가 많이 격추당했다. 몇 台가 격추당했는지를 當局은 精確하게 發表하질 않

았다.

1969년에 레이저誘導爆彈을 사용함으로써 다리는 폭파할 수가 있었다. 레이저 武器를 사용하여 이 다리를 폭파하는데는 不過 3' 回의 출격으로 충분하였다.

越南戰에서 레이저誘導技術이 처음으로 사용된 이래 그의 軍事的 應用은 크게 확대되었다. MAVERICK 空對地 미사일용으로 레이저探索器가 개발중에 있으며, 次世代 헬기發射 對戰車 미사일인 HELLFIRE 미사일용의 레이저探索器가 생산중에 있다.

HELLFIRE는 TOW의 代替武器로 될 것이다. 史上 最初의 砲發射 誘導彈인 155mm COPPERHEAD의 성능은 아주 놀라운데 그것은 標準砲에서 9,000g까지의 加速으로 발사된 彈이 精確하게 목표물에 誘導되기 때문이다.

레이저武器가 갖는 利點은 이들 武器가 같은 標的指示器로 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COPPERHEAD용으로 설계된 地上의 標的指示器는 HELLFIRE, MAVERICK, 레이저誘導爆彈에도 사용될 수가 있는 것이다.

誘導武器에 대한 標的指示器가 갖는 이런 相互 運用性은 AH-64指示器, 標的獲得指示照準器 / 操縱士夜視感知器, 그리고 偵察 헬기의 標的指示器인 마스트裝置照準器 (Mast-mounted sight)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다.

따라서 레이저武器는 어떤 標的指示器가 照明해준 표적에 대해서도 공격할 수가 있다. 즉 레이저武器는 자체에 합당한 標的指示器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標的指示

기의 相互運用性으로 말미암아 표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效率性있게 또 신속히 공격할 수 있도록 가장 적절한 武器가 사용될 수가 있게 되었다.

現在 알려진 直射火器에 대하여 레이저 武器가 갖는 가장 중요한 利點은 彈의 無限한 可用性이다. 어떤 標的 地域을 數時間동안 계속해서 長時間 공격할 경우가 있다면 敵對部隊의 前方線上에 있는 直射 對戰車武器는 保有彈을 모두 사용해버릴 것이다.

그러나 레이저誘導武器는 曲射砲, 헬機 또는 레이저點追跡器를 가진 固定翼航空機에서 발사, 標的地域에도 集中시킬 수 있고 또 標的指示組에서 지시한 표적을 명중시킬 수가 있다. 그런데 레이저誘導武器만으로 地域防禦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는 누구도 주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레이저誘導武器가 任務遂行을 쉽게 만든다는 것은 누구도 否認하지 않는다.

美海軍도 레이저誘導彈을 갖고 있는데, 이는 5.54인치 MARK 45砲에서 발사된다. DEADEYE라고 불리는 이 艦砲發射誘導彈은 COPPERHEAD와 概念上 같으나, 射距離延長을 위하여 로켓트 모터를 사용한다는 점이 다르다.

DEADEYE 역시 앞에서 言及한 여러 가지 레이저 標的指示器를 사용할 수가 있다. DEADEYE는 또 航空機의 標的指示器 또는 艦上의 SEAFIRE 標的指示器의 도움으로 對艦攻擊도 수행할 수가 있다.

레이저標的 指示器와 點追跡器는 美國의

의 NATO 諸國 軍隊에도 있다. 英國陸軍은 Ferranti社 제품의 레이저標的指示器인 L-TMR(Laser Target Marker Ranger)을 배치하고 있다. ATLAS와 PAVE PENNY는 프랑스 및 其他의 NATO 諸國에서 운용중에 있다.

앞에서 言及한 레이저武器는 모두 YAG(1.06 μ m) 레이저光을 사용하였다. 二酸化炭素(10.6 μ m) 또는 二重方式(Dual mode) 레이저探索器를 이용한 레이저武器도 현재 개발중에 있다. 10.6 μ m는 赤外線 波長임으로 이런 방식의 探索器를 가진 武器는 사격하고 있어버리는 武器, 즉 自動終末追跡彈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레이저標的指示器는 선정된 표적을 照明함으로써 미사일 또는 彈에게 初期誘導의 실마리를 주는데 사용될 수가 있다. 彈 또는 미사일이 표적을 명중할 때까지 계속해서 照明하는 것이 아니라, 指示器의 操作者는 數秒의 照明後에 레이저를 꺼서 彈이나 미사일을 자체의 힘으로 비행의 終末段階까지 가도록 한다.

모터를 가진 車輛이나 飛行機는 자체내에 아주 뜨거운 部分을 갖고 있다. 이 뜨거운 部分은 熱의 형태로 8~15 μ m의 에너지를 放出한다.

二重方式 레이저探索器는 10.6 μ m의 波長을 쫓아가도록 同調되어 있기 때문에 車輛이나 飛行機의 뜨거운 部分, 즉 모터에서 放出되는 熱을 감지할 수가 있다.

따라서 레이저指示器의 操作者가 指示器의 작동을 끄면 彈, 미사일 또는 爆彈은

10.6 μ m의 에너지를 放出하는 곳으로 유도된다.

앞에서 言及한바 二重方式 探索器는 彈着地点까지의 照明指示를 필요로 하는 1.06 μ m의 현재 사용중인 레이저指示器보다도 훨씬 많은 표적을 照明指示해 줄 것이다.

二酸化炭素 레이저武器는, 처음부터의 標的指示를 필요치 않게 하는 발사 후 잊어버리는 武器로서 사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방식에 있어서는 探索器가 받은 車輛이나 飛行機의 모터에서 放出한 熱이 유도를 시작할 수 있으리만큼 충분한 波長을 가질때만이 武器는 標的, 즉 車輛이나 飛行機를 향하여 유도된다.

標的이 집중되어 있는 地域에서는 標的車輛의 적절한 加熱部分이 武器의 可視範圍内に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 10.6 μ m의 自動探索器는 아주 만족스럽게 기능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이 探索器도 단점이 있다. 표적의 指示를 받은 武器는 2마일 또는 그 이상의 거리에서 標的에 레이저指示點을 볼 수 있는데 비하여 自動探索器는 1,000피트의 거리까지에서는 표적을 照明指示할 수가 없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自動指示器의 機能距離가 제한되는데 이것이 바로 二重方式 探索器를 필요로 만드는 이유이다.

自動方式 探索器가 갖는 또 다른 단점은 표적이 적절한 加熱部分을 갖지 않을 때 표적까지 유도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敵戰車가 레이저武器의 可視範圍内に 있

어도 長時間 동안 그의 엔진이 꺼진 상태에 있으면 레이저指示器는 그 戰車를 표적으로 認知하질 못한다.

冷却狀態에 있는 戰車는 중요한 표적이 아닐 수도 있겠으나 熱과 같은 徵表를 찾아 다니는 武器는 적절한 徵表를 갖지않는 표적을 공격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발사하고 잊어버리는 熱探索 武器는 砲兵司令部의 觀測所를 공격할 수 없는데 그것은 이런 觀測所가 일반적으로 熱探索武器가 갖는 徵表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標的의 指示를 받는 武器를 사용할 때에는 레이저 操作者가 이런 武器에게 표적의 徵表를 준다. 이런 類型의 武器는 指示 가능한 표적이면 어떤 것이던 공격할 수가 있는 것이다.

레이저武器는 다음에 있을 戰爭에서 전투의 樣相을 바꾸어 놓을 능력을 갖고 있다. 레이저探索武器와 각종의 발사하고 있는 彈을 혼합해서 사용하면 露出된 戰車와 裝甲車는 쉽게 공격 파괴할 수가 있을 것이다.

레이저技術은 또 誘導方式을 改良 發展시키는데도 응용할 수가 있어서 많은 武器의 정확성과 파괴능력을 크게 증가시키는 레이저링 자이로스코프(Laser ring gyroscope) 및 其他의 장치에 사용되어질 것이다.

레이저가 전체적인 武器開發過程에 있어서 중요한 구실을 다하는 것은 틀림 없으나 만능적인 技術은 아닌 것이다.

그러나 레이저가 많은 新型의 精密誘導武器를 개발케하는 觸媒로서의 기능을 다

할 가능성은 높다. 이런 精密誘導武器는 쉽게 이해될 수 있으며 數年동안만 사용해 보면 信賴性이 높은 武器로 쉽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레이저武器의 日常的인 訓練使用에서 얻은 경험에 의하면 部隊는 보다 高度로 발달된 精密武器를 쉽게 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 경험이 있는 部隊는 레이저를 試驗武器로 사용하여 高價의 武器運用に 필요한 적절한 作戰敎理를 개발할 수도 있게 할 것이다.

COPPERHEAD와 海軍의 誘導砲彈과 같은 레이저武器가 적절한 생산, 시험 및 使用部隊에서의 운용경험없이 軍에서 사라지게 된다면 精密誘導武器의 全体 概念은 충분히 探求되어질 수 없을 것이다.

레이저와 이에 뒤따르는 技術은 NATO 軍의 武器體系 效果를 크게 향상시킬 것이다. 10年 또는 그 이상의 週期로 엄청난 費用을 들이면서 부분적으로 개량된 戰車를 생산할 것이 아니라 레이저 等의 새로운 技術로 현존의 武器보다도 몇배가 우수한 新武器를 개발, 생산하여야 할 것이다.

NATO軍은 技術을 적절히 응용하여 信賴性和 可用性이 높은 武器를 개발, 소련을 비롯한 東歐의 共產圈이 갖는 武器의 量的 優勢에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레이저武器는 NATO의 이러한 方向으로의 능력에 첫발을 내디디게 할 것이나, 그것은 레이저技術 開發에 얼마만큼 投資를 하는가에 달려 있다.

정신교육 효율화로

정신전력 강화하자

精神戰力이 組織效果性에 미치는 影響에 關한 研究

— 效果的인 空軍組織管理를 為한 力動的 戰略의 提高 —

대위 崔 秉 鶴
(제3579부대)

I. 序 論

軍隊는 國家防衛의 使命을 完遂하기 위하여 組織된 戰鬥集團이며, 一般社會組織이 營利나 利益을 目的으로 組織된 集團임에 比하여 軍隊는 敵과 싸워 이길 수 있는 「必勝의 戰鬥力」을 維持, 確保하는데 그 存在 目的이 있음은 明白하다.

과거의 戰略에서는 地上軍의 重要性이나 制海權의 優位로서 戰勝이 說明되었지만 現在의 戰略에서는 「制空權」의 確保가 또다시 戰勝을 說明하고 있음은 航空戰力의 空中優勢가 戰鬥에 있어서 그 關鍵이 된다는 점에서 空軍力의 重要性은 再言을 不要한다.

現代戰의 特徵인 高度로 科學화된 武器體系, 合理的인 作戰運營 및 部隊管理, 速戰速決을 驅使하는 優秀한 機動性의 確保가 戰勝의 要訣이므로 이제 空軍力은 領土와 領海의 次元을 넘어 領空을 防衛하는 가장 現

代的인 尺度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Alexander P. Seversky도 그의 著書인 「Air Power : Key to Survival」에서 「世界는 大陸과 空中의 對決이며 空中을 支配하는 者는 大陸을 支配하고, 大陸을 支配하는 者는 海洋과 世界를 支配한다」라는 有名한 命題를 남겼던 것이다.

그間 韓國空軍에서는 「必勝空軍」의 旗幟 아래 效果的인 軍의 目標達成을 위하여 많은 研究를 進行하여 왔으며, 特히 「空軍必勝研修院: 後日 空軍精神教育院으로 改稱됨」은 이를 研究·實踐하는 機關으로 그 一翼을 擔當함으로써 後日에 「國軍精神戰力學校」의 設立에 先導的 役割을 하였다. 이에 國防部의 次元에서도 「精神戰力」이 戰勝의 要諦임을 強調하여 이에 對한 研究 및 教育活動이 全軍的으로 活潑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이른바 「將兵의 精神戰力化 運動」을 推進하여 많은 成果를 거두고 있다. 더욱이 이는 空軍의 特性에 비추어 볼 때, 이 精神戰力の 重要性은 어느 軍에 比하여도 가히 높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本稿는 이러한 精神戰力이 空軍組織의 目標達成度인 「組織效果性」에 미치는 影響을 中心으로 效果的인 空軍組織管理를 위한 力動的 戰略의 提高를 그 研究目標로 삼고 空軍精神戰力の 強化에 寄与함을 그 目的으로 한다. 本稿를 進行하기 위하여 空軍組織管理에 있어서 精神戰力の 役割에는 決定戰力으로서의 精神戰力の 位置나 空軍組織管理의 特性을 檢討하고 이어서 目標管理를 통한 組織 效果性의 指向에는 目標管理의 狀況의 觀點과 空軍組織效果性의 合目的性 등을 各各 그 研究範圍로 삼는다.

研究方法은 主로 組織理論과 社會心理學, 軍事組織管理論과 戰略理論 등에서 參考文獻을 調査하였으며 人事行政과 指揮管理分野의 各種敎範과 指針書를 活用하였음은 勿論, 必勝研修院(精神教育院)과 國軍精神戰力學校의 「精神戰力 研究集」을 參考하였다. 特히 이러한 內容과 密接하게 關聯된 本研究者의 論文도 充分히 參照하였음을 아울러 밝히 두고자 한다.

II. 空軍組織管理에 있어서 精神戰力の 役割

1. 決定戰力으로서 精神戰力の 位置

軍의 戰力은 有形的 要素인 武器나 兵力

및 裝備 등과 無形的 要素인 戰術과 敎理 그리고 組織構成員 個個人이 가지는 精神力으로 区分할 수 있다.

特히 精神戰力이 總體的인 戰力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大端히 크다는 事實은 戰爭의 歷史가운데서 쉽게 發見될 수 있다. 그러므로 有形戰力の 增強은 勿論이지만 그보다도 無形的 精神力의 強化가 더욱 重要하게 認識되고 있으며, 그 開發을 위한 많은 努力이 傾注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아무리 數的으로 優勢한 軍隊라도 精神力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所期의 戰力이 發揮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精神戰力の 役割과 그 重要性을 戰略家인 孫子와 Karl Von Clausewitz는 다 같이 戰略의 要素가운데서 精神的 要素를 가장 重要視하여 順位の 맨 앞자리에 놓았으며 Bonaparte Napoleon將軍도 戰爭에 있어서 精神力과 物質力의 効力比率은 3對1이라고 하여 精神的要素가 余他の 戰略要素가운데서 決定的임을 主張하였다. 이어서 Clausewitz는 그의 「戰爭論」에서 戰爭의 理論은 精神的 諸力의 影響을 度外視할 수 없다. 軍事的 活動은 單純히 物質的 素材만을 그의 對象으로하는 것이 아니고 그 物質的 素材에 生命을 불어넣는 精神的 힘 또한 그의 對象으로하며 이 兩者를 區別하여 생각하는 것은 不可能한 것이다. 萬一, 精神的 力量의 問題를 度外視하는 理論이 있다면 그 理論은 반드시 破綻을 招來할 것이 틀림없다고 強調하고 있다.

Rosenberg Milton J,는 人間의 3大 意識

作用인 「知·情·意」를 그 精神領域으로 보고 이에 대한 意識活動을 各各思考·感情·意志라고 보는 精神戰力の 方法論을 提示한 바 있다. 이를 軍組織의 環境에서 精神戰力の 要因으로 比較하여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知」는 教育水準, 文明利器의 利用能力, 軍事知識, 放送媒体의 接觸 등의 自覺的 反應이고 둘째, 「情」은 愛國心, 國家政治의 受認度, 敵愾心 및 抗戰意識, 行動意識과 團結心 및 戰友愛 등의 自律神經 反應이며 셋째, 「意」는 軍組織에 對한 團結과 協調能力, 軍人精神에 依한 臨戰態度, 國民性에 立脚한 行動體系 등의 外顯的 行動을 말한다.

이러한 意識活動은 信念, 團結, 士氣, 등으로 나타남으로써 精神戰力を 形成하는 것이며 여기에서 리더십의 役割은 이러한 意識活動을 目標達成으로 誘導하는 그러한 構成能力 즉, 誘導度數를 意味한다. 여기에 比하여 Kurt Lewin도, 類似한·見解를 提示하고 있는바 뭉쳐진 軍隊의 構成員들이 部隊目標을 達成하는데에는 2가지의 基本要件이 成立되어야 하는데 目標을 指向하는 心理的 힘을 構成하고 있는 構成員 間의 心理的作用과 目標에 對한 誘意價 卽 集團構成員들이 行動을 誘發하는데 魅力을 느낄만한 價置 있는 것이 上昇的으로 作用하여 集團의 心理的 힘을 形成한다고 한다. 따라서 必勝을 目標로 指向하는 軍隊組織에 있어서 精神戰力の 크기는 軍組織構成員의 必勝意識과 必勝에 對한 誘意價와의 上昇的 結合度라고 할 수 있으며 이의 結合力은 바로 目標指向的 리더십과 能動的 管理体制內에서

만이 達成可能하다.

戰力은 優秀한 武器體系와 透徹한 精神力 및 優越한 戰術·戰技가 均衡있는 「相互力動的 作用」을 할 때 必勝의 戰力化가 保障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戰力の 極大化를 이루게 된다.

그러나 精神戰力の 構成要因과 上昇作用이라는 觀點에서는 一次的으로 個人的·社會的·國家的 次元에 있어서 各各 그 精神作用을 本能(絶對的 作用)·環境(相對的 作用)·理念(超自我的 作用)을 精神作用의 支配的 要因이라고 보며, 이는 戰力化基盤에서 各各 期待感과 安定感, 所屬感과 信賴感 그리고 思想과 目的意識으로 作用하여 士氣·團結·信念의 精神戰力の 要因이 된다. 이를 리더십이 組織化시킴으로써 必勝의 精神戰力으로 上昇作用시키게 되며 이는 精神戰力の 形成過程을 示唆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土台로한 精神戰力の 役割과 그 重要性은 戰鬪의 勝敗를 가름하는 「決定戰力」에 있어서 確固不動한 位置에 있음은 勿論, 그 開發可能性 또한 無限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結局 人間의 精神과 意志에 따라서 움직여지기 때문이다.

2. 空軍組織管理의 特性

現代戰의 樣相은 地上과 海上으로 그리고 空中으로 그 決戰場이 變化되어 왔으며 여기에서 航空戰力の 重要性은 날로 더하여가고 있다.

美空軍의 參謀總長이었던 Le May 將軍은 空軍이건 陸軍이건 間에 現代軍人은 「制空權」

이 達成된 以後에 비로소 地上 및 海上作戰이 可能하다는데 意見이 一致되고 있으며 따라서 現代戰에 있어서 첫번째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航空戰에서 勝利를 거둔다는 것이라고 主張하였다. 이러한 空軍力の 重要性은 第3, 4次 中東戰 및 印支事態는 勿論, 最近의 Falkland戰鬪 및 Lebanon 戰鬪에서도 當然하게 입증되고 있다.

이처럼 空軍力の 役割이 國家安保에 있어서 그 重要性을 더해 갈 때 國家的인 次元에서 空軍力の 增強과 그 比重에 있어서 보다 큰 理解와 協力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Lucian W. Pye 教授는 軍의 役割과 特殊性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

첫째, 軍은 本質적으로 競爭의이며 軍의 最上의 機能은 他國軍에 比하여 恒常 자기를 試驗하는 것이다. 再言하면 자기를 他人과 항상 比較하는 것이므로 그 國際的 基準을 알아야 하며 그 자신의 弱點에 敏感하여야 하는 것이다.

둘째, 軍은 항상 合理的이어야 하고 이들이 다루는 機械는 高度의 效率性을 要求하며 每日 그 효율성을 실용적으로 試驗한다. 또한 後進國일수록 先進國을 하나의 目標나 標本으로 삼아 눈앞의 現實보다는 좀 더 現代化와 효율화에도 關心을 돌릴 수 있다.

셋째, 軍은 恒常 그 國家의 民間社會로부터 분리되어 존재하며 그 姿勢와 判斷에 있어서 獨特할 것이 要求되고 있다. 따라서 國家의 現實과는 떠나서 좀 더 産業化된 共通의 基準에 焦點을 맞추고 精進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指摘하고 있다.

이러한 軍의 役割과 特殊性에 對한 說明은 軍이 外部環境의 變化에 좀 더 能動的으로 適應함으로써 그 任務를 다할 수 있다고 볼 때, 現代戰의 主役으로서 그 임무를 다할 수 있다고 볼 때, 現代戰의 主役으로서 큰 역할을 遂行하는 空軍組織의 特性을 이와 比較하여 要約하여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空軍은 高度의 科學軍이며 技術軍으로 構成되고 組織되어 있다는 것이다. 특히 航空機는 20世紀 科學文明의 結晶体라고 할만큼 高度의 精密性과 복잡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航空機를 中心으로한 各種 航空裝備, 航空機를 감시하고 誘導管制하는 Radar System, 全作戰體制에 걸친 指揮統制通信網 航空機의 整備·維持管理에 必要한 幾千種의 附隨裝備까지도 航空機와 並行하여 高度로 精密하고 복잡한 科學장비들로 構成되어 있다. 따라서 空軍은 이를 主武器로서 戰鬪에 臨하는 技術軍의 特性을 가진다.

둘째 空軍을 建設하고 維持하며 정비하기 위하여 막대한 投資 및 運營費가 所要된다. 上記한바대로 空軍武器體系의 構成要素들은 最新科學을 利用한 그의 精密性 때문에 대부분 高價의 裝備들인 것이다. 구대여 航空機나 誘導武器의 價格을 그 例로 들지 않더라도 電子武器體系나 巨大한 활주로 施設 등의 運營費는 實로 막대한 것이다.

이와같은 高價의 裝備들을 우리의 現實情에 適合하도록 最小의 費用으로 最大의 作戰效果를 올릴 수 있는 費用對效果 分析을 통한 더욱 科學的인 武器體系의 選定이 要求되는 것이다.

세계 高度로 복잡한 体制로 構成되어 항상 긴밀하게 相互關聯性을 가지고 움직이는 有機體的 組織이다. 高性能의 航空機와 武器 体系 및 專門技術이 三位一體로 결합되어 相互間에 緊密性을 가지고 有機的으로 作動될 때만이 最大의 作戰效果를 올릴 수 있는 것이다.

以上과 같이 空軍組織 自体가 지니는 特性을 3가지로 区分하여 보았던 바, 綜合的인 觀點에서 空軍은 그 組織運營上 機動性, 融通性, 自足性, 標準性 등을 갖는 「戰鬪組織體」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空軍의 特性과 Alexander P. Seversky 의 「空軍論」의 結論間에는 脈絡的으로 相通하는 內容이 있으며 이는 매우 示唆的이다. 이 結論을 要約하여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航空優勢를 確保하지 않고서는 陸·海軍의 作戰은 不可能하다.

둘째, 海軍은 從來의 戰略的 攻勢의 機能을 喪失하였다.

셋째, 敵國의 封鎖는 空軍의 任務가 되었다.

넷째, 空軍만이 空軍을 擊滅할 수 있다.

다섯째, 航空戰에 있어서 質的要素는 量的要素보다 相對的으로 決定的이다.

이러한 現代戰에서 차지하는 空軍力의 重要性和 함께 精神戰力은 어떠한 戰力보다 決定的이고 最終的 性格임은 明白한 것이다.

Ⅲ. 目標管理를 통한 組織效果性的의 指向

1. 目標管理의 狀況의 觀點

C. I. Barnard는 組織을 目標達成을 爲한 協同體制라고 定義하였다.

즉, 합리적이고 效果적인 組織管理를 爲해서 「組織目標에 依한 管理」가 要請되는 바 이는 組織內의 要求, 環境으로부터의 要求와 抵抗, 組織의 업적 및 리더의 個人的 욕망에 따라서 比重과 그 內容이 달라진다.

그러나 조직에 있어서 目標가 일단 定立된 다음에는 以後, 組織內의 大小決定에 있어서 前提의 機能을 하며 各 段階의 決定을 支配하게 될 것이므로 그의 性質이 包括的이며 抽象的이고 그 影響도가 크다. 특히 軍組織에 있어서 平時의 軍組織目標은 國防衛에 있어서 國家의 要請이 있을 때 軍事力을 조직화하고 訓練시키며 장비를 갖추는 것이다. 그러나 戰時의 目標은 敵의 軍事力을 破壞함을 뜻한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端的으로 「組織의 目標狀況」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目標의 機能을 첫째로 未來指向性 둘째로 計劃機能 셋째로 正統性的의 根據 넷째 效果性的의 基準 다섯째 最高管理者의 役割이라고 보는데 이를 Harold Koontz 와 Cyril O' Donnel 은 모든 管理者는 論理的으로나 도덕적으로 行여목적을 가지고 있

는데 그것은 그가 管理者로서 組織目標가 人的·物的資源의 最小限의 支出(消費)이나, 그의 統率에 있어서 資源을 可能한 많은 目標에 達成할 수 있도록 그의 責任있는 意志로서 組織目標를 위하여 努力하는 것이라고 言及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組織目標가 갖는 重要な 特質로는 첫째, 組織目標達成에 関하여 構成員 間에 助長的 相互關係가 發生한다는 것이며, 둘째, 構成員의 行動樣式이나 判斷을 統制하는 힘이 發生한다는 事實이다.

이와같이 組織目標는 個人目標와 相互不可分의 關係를 가지고 있으므로 人間이란 機械와는 對照的으로 그들 自身의 位置를 다른 사람의 位置와 關聯하여 評價하게 되며 다른 사람의 目標도 그들 自身의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러한 組織目標는 組織活動의 一定한 限界를 設定하며 努力에 對한 方向을 提示하여주는 것으로서 그 內容의 分明함은 勿論 目標가 지니는 價值性이 介在하여야함은 當然하다. 萬一 目標가 明確하게 設定되지 않으면 任務를 遂行하는 各 擔當者의 活動이 散發的인 混亂을 招來하므로 目標의 妥當性, 成果의 價值性, 內容의 具體性 및 測定可能性이 마련되어야 合理的인 目標達成을 期할 수 있다. 戰鬪에 臨하는 兵士들에게 確實하고 具體的인 任務를 賦與하는 것도 이와같은 理由에서이며, 平時의 任務遂行이나 訓練 등에서도 妥當한 目標와 價值있는 成果를 期待함도 이와 같은데서 起因된다.

또한 組織은 外的으로 環境과 相關性을

가지며 內的으로는 組織變數와 作用하고 이는 時·空間的으로 有機的인 結合을 通하여 目標를 追求하고 있다. Goetz Briefs의 見解처럼 組織은 그만큼 「狀況的 存在」임을 意味한다.

組織을 社会的 存在로 본다면 어떠한 組織이든 社会的으로 存在하는 조직은 社会로부터 끊임없는 影響을 받게 될 것이며, 同時에 社会에 對하여 끊임없이 影響을 주게 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組織內的 社会的 側面에 있어서도 組織個個人의 行態는 組織業績의 水準이나 集團成果에 있어서 反映된다.

특히 軍組織에 있어서의 階級要因은 影響度가 크고 이는 將兵들의 士氣관리와 집단 凝集性에 決定的인 役割을 주게 되므로 指揮官이 어느 程度의 合理的인 指揮統率을 하느냐에 따라서 部隊目標達成은 물론이러니와 部隊發展을 期할 수 있다. 軍組織의 屬性中에는 경쟁성과 硬直性을 드는 學者는 그것이 敵과의 戰鬪를 前提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理由外에도 이와 類似하지만 임무의 절대성과 狀況性 그리고 多樣性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개인의 行態를 表出하게 하는 기대와 效用을 包含시킨 「動機賦與의 狀況」은 組織의 狀況的 側面을 說明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며 軍組織에서의 最小限의 「戰鬪狀況」을 解明할 수 있다고 判斷된다. 개인의 動機와 慾求는 周圍環境中에 있는 어떤 目標를 指向하게 되는데 이를 目標는 個人에 따라서 效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근절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기도 한다.

이같은 知覺이 期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며 기대가 높으면 動機의 強度가 높아진다. 이와같은 關係는 循環的인 樣態를 갖는 경향이 있고 이와같은 關係가 어느 정도 상호작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重要한 點은 目標에 대한 動機를 滿足시키는 것은 狀況에 따라서 各各 다르다는 것에 對하여 注目하여야 한다. 그것은 動機가 目標에 對하여 期待에 따르는 效用 즉, 만족을 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가장 強한 動機로부터 目標指向的 活動이나 目標活動中 어느쪽의 行動이 發生하게 된다. 이것을 期待理論으로서 Victor H. Vroom은 「Force = Balance X Expectancy」로 공식화하고 있으며 L. W. Porter와 E. E. Lawler는 이에 主觀的 認知까지 加味하고 있다.

이렇게 期待된 努力은 職務遂行能力과 認知된 職責에 依하여 成果를 가져오고 이는 認知된 公正한 報償에 依하여 外的·內的의 報償으로서 滿足을 얻게 된다. 이러한 認知된 公正을 Victor H. Vroom은 均衡이라고 이름하면서 이러한 報償은 德分으로서 成果에 對하여 均衡이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均衡이 狀況的으로 公正할 때와 그렇지 못할 때의 사이에서 均衡을 이룰 때 心理的인 滿足感을 주게 된다고 한다.

이것은 주어진 組織狀況에서 볼 때 리더십이 그 狀況에서 어떻게 發揮되어야 하고 그 狀況이 리더에게 有利한지 不利한지를 決定하는 狀況變數를 考慮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리더 — 멤버관계, 리더

地位의 힘, 課業의 構造가 그러한 狀況變數이다.

특히 리더가 可變的인 狀況에서 이러한 狀況變數를 고려하여 效果적으로 目標을 달성하는 것이 보다 重要한 리더십의 역할이며 이는 평시보다는 戰時에서 지휘관의 리더십이 그 역할과 重要도에 있어서 그만큼 「獨立變數的 性格」을 갖는다는 意味이다.

結果的으로 軍의 目標管理에 있어서 평시의 모든 訓練과 軍備 및 戰術開發은 바로 전시의 그것을 위한 것이며 戰鬪勝利는 軍의 最上의 目標이므로 戰鬪에 參與하는 將兵들의 士氣振作과 戰鬪參與의 意義에 對한 充實한 동기부여가 뒤 따라야 함은 물론 軍人의 가치관 확립에 대한 精神教育이 先行되어야 함은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戰時狀況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戰場心理學」 분야내지는 「戰場指揮管理」分野 등에서 그 理論과 實際에 부합되도록 다각적인 研究가 요망된다고 보며 특히 정신 전력의 강화는 必須不可缺한 것으로 確信하는 것이다.

2. 空軍組織效果性的의 合目的性

組織效果性的의 概念은 目標達成의 概念과 類似하게 볼 수도 있으나 이는 보다 價值指向的이고 人間指向的이며 組織의 未來에 있어서 成功指向的이고 또한 發展指向的인 概念이다.

組織理論의 전문가인 E. H. Harrison은 이를 가리켜서 조직 전체를 形成하는 모든 조직구성원과 資源에 關係된 것으로써 組織

任務의 達成을 評價하는데 기여하는 조직체계의 成果概念이라고 定義하고 있으며 Peter F. Drucker도 能率性이 組織의 生存을 위한 最小限의 상태임에 대하여 組織效果性은 조직의 成功에 근거한다는 견해를 提示하고 있다. 그러나 Paul E. Mott는 組織效果性의 概念이 매우 多次元的임을 示唆하면서 그것은 生産 및 過應을 위하여 「힘의 中心部」로 이들을 動員시키는 「組織의 能力」이라고 主張하고 있다.

軍에서의 組織效果性에 對한 研究는 未盡하지만 軍조직의 존재이유에 對한 모든 軍事的 價值體系의 統合이며 軍組織의 目標達成은 國家安全保障과 戰鬪勝利에 달려 있다는 見解다. 이는 戰鬪抑制力에 對한 效果的인 確保 및 強化의 程度이며 窮極的으로는 自由와 平和에 對한 最善의 守護能力의 程度라는 견해는 軍조직의 目標達成度라는 기준에서의 組織效果性의 概念과 어느程度一致한다.

그러나 特殊目的을 지니는 軍組織에 있어서는 좀 더 一般社會組織과 比較의 觀點에서 體系의 理論化된 軍組織效果性의 概念을 定立함이 實질히 要請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組織效果性에 對하여 本 研究者의 操作的 定義를 내려보면, 組織全體를 構成하는 人的·物的資源을 動員하여 組織目標를 가장 合理的으로 達成하는 程度 或은 그러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공군조직효과는 공군조직의 모든 戰力을 投入하여 空軍組織의 目標 즉, 國家안전보장, 戰爭抑制力의 增大, 戰鬪勝利, 自由와 平和의 守護, 國

家發展에의 寄與 그리고 制空統一을 위한 領空守護에 이르기까지를 가장 合理的으로 達成하는 程度라고 定義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직효과성의 개념이 多次元的이고 價值介入의이므로 이의 構成要因을 發見하는 作業도 容易하지 않다.

L. W. Porter와 E. E. Lawler II 및 J. R. Hackman은 조직효과성에 對하여 전통적으로 조직의 성과를 測定하여 왔던 產出·能率性·收益性 등의 範圍群에서 벗어나서 未來의 組織的 要求에 부응하기 위한 범위를 다음과 같이 提示하고 있다.

첫째, 높은 질적서비스 둘째, 環境에 對한 최소한의 손실 셋째, 정직과 充實 넷째, 조직 구성원의 육체적, 心理的 健康에 對한 積極적인 기여이다.

B. S. Gorgopoulos와 A. S. Tannenbaum은 이에 對한 規範적인 研究를 通하여 이의 3가지 基準을 提示하였는 바 이는 첫째, 生産性 둘째, 伸縮性 셋째, 조직적 긴장의 不在이다. 이와 유사한 見解로서는 F. Friendlander와 H. Pickle의 要因인 첫째, 收益性 둘째, 從業의 滿足感 셋째, 社會的 價值를 들고 있다.

그러나 組織效果性의 구성요인을 說明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Theodore Caplow의 「SIVA Model」이다. 이것은 4가지의 重要한 구성요인의 頭文字語를 따서 命名한 것으로써 이에 對한 說明은 다음과 같다.

첫째, 安定性으로써 組織內·外部의 變化와 挑戰에 對하여 그 自体를 支撐하는 能力을

意味한다. 둘째, 統合性으로써 組織의 Program 을 實行함에 있어서 相互協同, 內的갈등의 감소, 문제해결을 위한 양호한 意思傳達 및 分派性的 解消 및 構成員들의 相互作用의 增大를 意味한다. 셋째, 自發性으로써 構成員 개개인의 만족감과 그들 멤버십을 불러 일으켜 組織規範을 強化시킴을 意味한다. 넷째, 成就로서 組織이 所有한 環境에 있어서 重要한 評價主題로서 組織활동의 純結果를 意味한다. 이렇게 볼 때 安定性和 統合性 및 自發性은 成就 즉, 目標達成에 대한 作用變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軍組織에 있어서는 평시와 戰時로 구분하여 目標을 추구하는 바, John R. Beishine 은 평시와 전시의 目標을 效果적으로 달성하는 与否에 따라서 軍組織效果性은 提高될 수 있다고, 主張한 바 있다.

특히 軍조직의 重要한 任務는 戰鬪와 戰爭에서 勝利하기 위하여 戰鬪에 처한 準備 즉, 軍비의 유지와 動員을 위한 능력의 確保 및 實證的인 物量의 保存이라고 E.H. Harrison은 強調하고 있다.

그러나 軍조직도 社會조직의 특수한 類型이라고 볼 때, 組織의 構造와 機能은 組織의 原理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으며 그 任務와 역할이 社會조직의 그것과 다를 뿐이다. 따라서 軍조직 效果性의 構成要因도 다음과 같은 몇가지 範圍나 기준으로 이해내지는 適用되어야 한다고 보며 空軍조직의 特性을 고려하여 이를 제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目標達成의 범위으로써 조직구성원 개

개인의 임무수행은 勿論, 空軍組織의 存在理由가 되는 理念的 次元에서부터 平時의 戰力保存 및 戰力強化(精神戰力強化는 물론 포함) 등과 같은 實質的인 次元을 包含한다.

둘째, 社會組織的인 範圍으로써 그 조직에 대한 만족과 적응, 단체정신으로부터 조직의 「構造的 分化」와 「機能的 統合」, 원만한 軍民關係, 環境변화에 대한 창조능력 및 沮害要因의 극복 등의 여러차원을 포함한다.

셋째, 人間價值的 範圍이다. 軍人으로서 職業에 대한 보람, 使命感과 긍지, 人間的 價値와 「삶의 質」의 向上, 精神的 態度 등의 次元을 包含한다.

이렇게 空軍組織效果性을 설명할 수 있는 研究者 나름대로의 範圍를 提示한 것은 아직도 空軍조직에 的適用 내지는 試圖가 充分하지 못하다고 判斷하기 때문이며 向後 이에 대한 폭넓은 연구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空軍조직효과성은 <空軍組織관리를 위한 具體的인 改善 및 發展方案>과 直接的으로 連結시켜보면 軍人정신함양, 目標의식 強化·指揮方法改善·基本慾求充足·意思傳達促進·制度的 標準化 등이 相互脈絡的으로 作用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空軍組織效果性은 空軍組織의 發展과 정신전력의 強化方案을 위하여 構成要因을 選定한 本연구자의 견해를 例로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目標달성에는 전투승리· 임무완수· 空軍목표달성· 국가발전기여를 들 수 있으며 변화창조능력에는 任務狀況變化, 沮害要因의 克服, 統合性 增大를 들 수 있다. 또한 價値

性에는 使命感과 責任感, 組織風土改善, 研究發展을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組織效果性에는 精神的 態度내지는 價值觀이 內在되어 있다고 볼 때, 精神戰力의 重要도와 함께 이에 대한 그 研究 및 接近方法에 對한 向後 關心과 努力이 要望된다고 할 것이다.

IV. 結論 및 提言

韓國空軍은 他軍에 比하여 그 歷史는 길지 않았으나 푸로펠러機에서부터 音速을 2倍半까지 突破하는 超音速 空軍으로 發展하였다.

이는 現代戰의 樣相이 달라지면서 世界는 航空戰力의 優勢確保에 따라서 戰勝이 說明되므로 空軍力의 重要性은 過去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屢연한 事實과 一致하고 있다.

本稿에서는 지금까지 정신전력이 空軍組織效果性에 미치는 影響을 確認, 檢討하여 보았다. 여기에서는 精神戰力의 役割과 重要性 및 空軍組織管理의 特性, 그리고 目標管理의 상황적 觀點과 公軍조직효과성의 合目的性을 主要内容으로 하여 이를 效果的인 空軍組織管理를 위한 力動的 戰略의 提高에 焦點을 두면서 연구를 進行시켜 보았다.

이렇게 研究를 進行시켜 온 結果 把握된 重要한 事項과 일반적인 傾向性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現代戰에 있어서 空軍力의 役割은 重要하다.

둘째, 空軍力의 핵심은 정신전력이다.

셋째, 정신전력은 戰鬪의 승패를 가름한다. 넷째, 空軍目標達成은 空軍組織效果性으로 나타난다.

다섯째, 정신전력은 公軍조직효과성에 대하여 큰 影響을 미친다.

여섯째, 이러한 空軍目標達成이 가능한 것은 目標指向的 管理体制內에서 만이 可能하다.

일곱째, 目標指向管理에 있어서 리더십의 역할은 重要하다.

여덟째, 따라서 정신전력은 目標管理를 指向한 效果的인 리더십의 역할을 通하여 極大化될 수 있으며 왕성한 士氣管理를 바탕으로 空軍目標 達成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여덟가지의 結果를 通하여 本稿의 問題提起 었던 「정신전력이 公軍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은 公軍조직효과성에 대한 精神戰力의 「獨立變數的 性格」이 그 타당성과 신뢰성에 있어서 論理的 脈絡으로 立證되었다고 判斷되어진다.

가장 效果的인 空軍目標達成을 위하여 空軍조직효과성의 增大와 空軍精神戰力의 강화는 가장 重要한 것으로서 리더십의 役割과 制度的 표준화 및 合理化 過程을 通하여 形成 達成된다. 또한 이는 公軍조직의 목표지향적 관리체제에 있어서, 그 原動力이 되는 基本임무의 完遂, 人間管理의 充實, 將校의 Elite化, 教育의 質적개신, 研究개발사업의 확충, 軍민관계의 내실화 등에 의하여 達成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構造, 政策的 측면과 行態

值的 側面으로 大別하여 몇가지 提言을 하고자 한다.

첫째로, 構造, 政策的인 측면에서는 무엇보다 합리적인 목표관리의 적용으로 計劃과 實踐間의 연계가 有機的으로 이루어짐으로써 制度的 合理性和 未來指向性을 提高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狀況的으로 構造的 分化이다.

또한 空軍의 任務는 祖國의 領空守護에 있는 것이므로 평소의 실천적 훈련을 통하여 적의 기습남침에도 일격에 이를 분쇄할 수 있는 完璧한 영공수호의 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교육의 질적개선 역시, 優秀한 敎官의 養成과 敎育制度的 補完 및 敎育施設의 擴充 등에서 과감한 교육투자와 空軍敎育에 대한 関心이 더욱 向上되어야 空軍의 將來는 期約된다고 볼 수 있다.

둘째로, 行態, 價值的 側面에서는 먼저 全空軍構成員의 참다운 軍人精神이 절대적으로 요청된다. 한국공군은 그 精神的 土臺가 精銳軍으로서 淸령결백하고 인화단결하여 「必勝의 空軍」으로써 그 表象이 되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개개 空軍構成員은 戰爭과 平和 그리고 自由의 참다운 意味를 깨닫고 그 「自由와 平和를 守護하는者」로서의 戰爭觀과 死生觀을 確立하여야 한다. 이것은 軍人으로서 단 한번만 죽을 수 있는 貴重한 勇

氣인 同時에 軍人으로서 가질 수 있는 最後의 價値이기 때문이다.

空軍組織行態에 있어서도 指揮官의 部下에 대한 関心の 向上, 敎育의 參與的 方法과 優秀한 專門敎官의 育成, 效率的인 業務分析, 福祉管理 및 처우개선, 上下間에 대화의 광장 마련, 動機賦與的 士氣管理 등은 空軍組織管理의 來像을 約束하는 事項들이다.

특히 將校의 바람직한 행동과 태도는 士兵들에 대하여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따라서 이는 空軍組織效果性을 形成하는 原動力이 됨은 勿論이다.

결국 전공군조직구성원이 必勝의 정신진력을 갖고 合理的인 리더십과 왕성한 사기로서 完癖한 任務遂行을 할 때 空軍의 目標達成인 「制空統一」의 大業을 이룰 수 있으리라 거듭 確信한다.

그러므로 「成功的인 目標管理를 通하여 精銳의 精神戰力으로 武装된 韓國空軍은 明白하게 未來指向的이고 人間中心的이며, 價値目的的인 力動的인 發展戰略이 수립, 實踐될 때 궁극적으로 「空軍組織效果性」은 合目的性을 指向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다름아닌 「必勝의 制空統一」을 向한 韓國空軍의 眞 意를 確認하면서 本稿의 末尾를 代身한다.

＝ 後 記 ＝

本稿에서는 원칙적으로 「註」를 첨부하여야 하나, 紙面關係上 생략하였음.

— 編輯者 註 —



隨 筆

멋있게 미친 사람들



文 重 燮
〈豫備役 陸軍少將〉

至極히 常識的인 말이지만 健康問題에 對하여 크게 두가지로 区分할 수 있다.

即 肉身的 健康과 精神的 健康이다.

하루 세끼를 잘먹고, 잘자고, 新陳代謝가 잘된다고 해서 健康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人間의 健康問題는 잘먹고 잘자는 것만 으로는 健康問題를 測定할 수 없는 일이다.

健康에 自身이 있다고 壯談하던 사람이, 하루 아침에 덜컥 쓰러지는 事例를 우리 周邊에서 볼 때마다 더욱 切實하게 느끼는 일

이다.

특히 精神의 健康問題는 더욱 그러하다.

어느 心理學者는 오늘날 이 땅위에 사는 全人類의 七~八割은 程度의 差異는 있지만 누구나 多少의 精神異常이 있다고 말한바 있다.

하기야 슬퍼도 울지않고, 기뻐도 기뻐할 줄 모르고, 남의 도움을 받고서도 고마움을 모르는 오늘에 사는 그릇된 現代人을 가리켜 健康한 사람, 또는 健全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多情했던 夫婦關係가 하루 아침에 남남이 되고,多情해야 할 骨肉之情의 兄弟가 怨讎처럼 反目하고, 이웃과 이웃이 서로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오늘에 사는 우리 社會가 어떻게 健全한 社會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오래 살기 爲해 백가지 良藥을 먹으면서 오래 산다고 할지라도 홀로 養老院 窓가에 기대어 自身の 身勢타령이나 하게 마련이라면 問題는 달라지는 것이다.

不幸한 이웃을 보고도 自己의 일이 아니라고 冷談하는 사람은 決코 健康한 사람 또는 健全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와는 反對로 바보같이 미친 사람이라고 따들림 받은 사람이 반드시 健康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断定지을 수도 없다.

要는 「어떻게 미쳤느냐? 무엇에 미쳤느냐」가 問題된다.

爲當 鄭寅普先生은 聖雄 李舜臣將軍을 가리켜 한마디로 「바보將軍」이라고 酷評한 바 있다.

왜냐하면 戰功을 세울때 마다 姦臣들의 謀陷에 依해 官職을 剝奪當하고, 獄苦를 치르고, 白衣從軍을 하는 등 말못할 苦楚를 당하면서도 나라가 危急하여 國家의 부름을 받으면 한마디의 不平도 없이 命令에 無條件 服從하다가 마침내 싸움터에서 목숨마저 잃어버린 「바보 李舜臣」이라고 말했다.

果然 忠武公 李舜臣將軍을 「바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그 무엇인가에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토록 超然할 수가 있었을까?

그렇다면 「무엇에 미쳤느냐?」가 問題되는 것이다.

瑤池鏡같은 世上일기기에 酒色에 미치는 사람, 돈에 미치는 사람, 權力에 미치는 사람을 우리 周邊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다.

그러나 미치는데 있어서는 「멋있게 미쳤느냐? 그렇지 못했느냐?」가 問題된다.

忠武公 李舜臣將軍은 人間의 境地를 넘은 超人間的인 거룩한 그 行動을 筆舌로는 到

底히 形言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鄭寅普先生은 聖雄 李舜臣將軍을 「바보將軍」이라고 表現한 것으로 풀이 된다.

一九三六年 「베를린 올림픽 大會」에서 당당히 「마라톤」에 優勝의 榮光을 차지한 孫基楨生先은 그 當時 一錢이면 어디서나 살 수 있는 「아이스케익」 한개도 사먹은 일이 없었다고 말했다.

무더운 날씨에도 渴症을 참아 가면서 強訓練에 訓練을 繼續했다는 말을 들었다.

또한 孫基楨選手는 父母님의 심부름을 할 때에도 뛰어 다니면서도 絶對로 발꿈치를 땅에 대지 않고 다녔다는 말을 들은적이 있다.

바꾸어 말하면 孫基楨選手는 「마라톤」에 미친 사람이었다는 말이 된다.

이렇게 미칠정도의 執念과 我執이 없었다면 어찌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의 王者」가 되었겠는가?

한 國家가 先進國으로 發展하는데 있어서도 「올바른 일에」 미치는 사람이 많이 나올수록 그 國家는 發展하게 마련이다.

教育者는 가르치는 일에 미쳐 誠意와 努力을 다 기울여야 하고, 學生은 自身과 社會를 爲해 배움에 미치는 일에 吝嗇하지 말아야 하겠다.

教育者는 그저 學生이 좋고, 가르치는 일이 즐거워 教育에 미치는 그러한 教育者가 되어야 하고, 學生은 健全한 精神으로 實力을 培養하면서 先生님의 가르침을 받아 人格陶冶에 專念하는데 미쳐야 할 것이다.

近者에 「教育의 아버지」로 通하는 「페스

탈 로찌」는 그가 教育事業에 成功한 사람이라고 그런 稱号를 받은 것은 決코 아니다.

오히려 그의 一生은 失敗의 連続이었다.

「케스탈 로찌」가 自己農場에 세웠던 公民學校도 失敗했고, 80餘名의 孤兒를 모아 直接經營하던 孤兒院도 失敗했던 것이다.

그러나 「케스탈 로찌」는 「사랑으로 가르친다」는 教育理念으로 始終一貫한 教育者였기에 「教育者中の 教育者」가 된 것이 아니겠는가……?

오늘날 우리 나라가 이만큼 發展한 것은 알게 모르게 「무엇인가에 미쳐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장사에 미친 사람들이 있었기에 二百五十億弗의 輸出이 可能했고, 運動에 미친 젊은이들이 있었기에 「몬트를 올림픽」과 「뉴델리 아시안 게임」에서 二十餘個의 金메달을 딸수가 있었고, 技能에 미친 젊은이들이 많이 있었기에 每年 열리는 「技能 올림픽」에서 世界의 技能工을 制覇하여 우리나라의 國威를 世界万邦에 크게 宣揚하지 않았던가…….

더우기 零下의 強추위를 무릅쓰고 『蒼空을 支配』하는 者만이 『勝算의 戰鬪』를 繼續할 수 있다는 信念下에 強訓練을 繼續하고 있는 國軍將兵들이 儼存하고 있기에 後方に 있는 國民 모두가 安心하고 産業戰線에 邁進하면서 마음속 깊이 國軍將兵들에게 感謝하는 것이다.

한마디 老姿心에서 當付해 들것은 우리 모두가 맡은바 職分에 한번 『멋있게 미치

는 勇氣와 슬기』를 가져보자는 것이다.

이는 勿論 個人的 榮光은 勿論 國家의 慶事도 여기에 있음을 똑똑히 깨달아 躬行動으로 옮겨 보자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미친 사람』이라는 그 말을 들을 수 있도록 各其 맡은바 職分에 充實해 주기를 바라면서 拙評 「峻嚴한 審判」으로 나의 '무딘 붓을 놓는다.

峻嚴한 審判

濟世에 머물다 가는
人生 旅程의 目標은
푸른 꿈속에 살면서
때묻은 나의 良心과
또 다른 나와
繼續 싸우면서 산다.

世俗에 머물다 가는
너와 나의 生涯는
흘러가는 그 歲月속에
크고 작은 事件을
하나 둘
말없이 解決해 준다.

時間속에 머물다 가는
人生 旅程의 行路는
限定된 時間속에 살면서
이룩해 놓은 業績을
時間과 空間이
峻嚴하게 審判해 준다.

희 망 의 조 건



姜 睪 一
(작 가)

봄은 고독하지 않아 잔인한 계절이다.

겨울은 우리에게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라고 명령한다.

겨울 속에선 그래서 방부제 냄새가 풍겨온다. 겨울은 금욕적이고 스토아적이다. 겨울 대기의 절반이 무색의 포르말린처럼 멍정한 것은 그 때문이다.

봄은 지나치게 그리스적이다.

봄은 풍만하고 찬란한데다 불륜하도록 몽상적이다. 봄은 또 자유라는 이름의 식용크림을 얹고 우리에게 다가온다.

봄은 겨울이 지나간 황량한 거리에서 난처한 얼굴로 희망을 專賣한다. 그래서 봄이 되면 사람들은 누구나 희망에 마취당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희망은 철저한 추상명사여서 아무도 이 여신의 얼굴을 본 적이 없다는데 봄의 고통이 있다.

봄은 일년 4계절 중 가장 地上的인 계절이다.

봄이 되면 사람들은 거리로 나가 감히 자신을 팔아버릴 결심을 한다. 그리하여 봄의 대로에서 만난 사람들에게선 벌써 실패한 풍류아의 세속적인 목소리가 들려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의 지참금은 확실히 희망이다. 봄이 되면 아무도 감히 희망을 거절할 용기가 없다.

사람들은 마치 5류 영화관에 가듯이 봄이라는 이름의 푸른 티켓을 들고 희망역으로 밀려간다. 그러나 푸른 완행열차에 실려 그곳에 당도한 후 사람들은 봄이란 이름의 티켓만으로는 희망역을 통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희망은 노동을 요구한다. 노동은 수고의 체운을 지닌 뜨거운 동사이다. 그리하여 희망은 오직 고통과 수고 속에서만 자생한다. 희망은 고통과 수고의 피사체이다.

수고나 눈물없는 희망이 창백하거나 교활해 보이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헐값에 매매되는 저 봄시장의 희망은 이미 희망이 아닌지도 모른다. 희망을 지불하므로 얻어지거나, 아니면 3월이나 4월이라는 이름의 시간의 숫자가 당연히 인간에게 가져다주는 저 隊商들의 사은품 같은 것은 더욱 아니다.

희망은 결코 외부로부터 오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체질속에서 자생하는 능동적인 영혼의 고산식물이다.

그러므로 봄은 희망의 계절이라는 말은 슬프도록 식물적인 표현이다. 그것은 희망이 없는 자, 고통과 수고가 없는 자들을 위

한 무책임한 정신의 국부마취인 것이다.

희망은 언제나 고통의 담보 뒤에 우리에게 다가온다. 사람들은 대개 다가온다라는 이 수동형을 자생한다라는 능동형보다 아름답게 생각한다. 인간의 외로움 탓일 것이다.

희망은 제재소 단절기 아래 쌓이는 치즈 빛 톱밥과 같다. 원목은 오직 잘라지기 위해 단절기 앞에 도착한다. 단절기의 톱날이 원목의 나이트 속을 파고들지 않는 한 단절기 아래 고무포 위엔 톱밥이 쌓일리 없다.

단절기가 원목의 심장을 가르고 왕왕거리기 시작하면 고무포 위엔 그 고통의 질량만큼 치즈 빛 톱밥이 쌓여간다. 이 치즈 빛 톱밥이야말로 고통의 진액이다.

그러나 나무는 잘려지지 않으면 창조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톱밥은 창조의 진액이기도 한 것이다.

고통이란 인간이 지닐 수 있는 상처의 이름 중 가장 크고 뜨거운 상처의 이름이다.

모든 위대한 生成은 고통받도록 규정돼 있다.

히브리 민족들은 인간의 삶 속엔 아름다운 세가지 모형이 있다고 믿어왔다.

그것은 농부의 「수고」와 운동선수의 「훈련」과 그리고 군인의 「순종」이 그것이다.

이 세가지 삶의 모형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삶의 확률도 우연도 아니다.

삶은 영원히 정직한 수공업이다.

봄의 주인공은 진달래도 개구리도 시냇

물도 아니다. 봄의 주인공은 오직 농부일 뿐이다.

농부는 그 삶 속에 세가지 교훈을 지니고 있다. 그중 하나는 농부의 정직성이다. 땅에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농부는 정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땅은 너무도 정직한 산물이어서 농부도 정직하기를 강요하기 때문이다. 농부의 정직성은 곧 수고의 시작이다.

또 농부의 위대함은 「깨어있음」이다.

농부는 언제나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농부는 결코 자연계의 시기를 놓쳐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아무리 유능한 농부라 할지라도 파종과 추수의 때를 놓치거나 끊임없이 날아드는 참새떼를 방관해버리거나 식물의 안쪽에서 소리없이 기생하는 잡초들을 목격하지 못한다면 그의 가을은 절망 속에서 다가올 것이다.

그러나 농부의 정직이나 깨어 있음보다 더 위대한 농부의 속성이 있다. 그것은 농부의 기다림이다.

가을 추수를 위해 농부는 계절의 4분의 3을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된다.

땅은 기다림을 통해서만 인간에게 곡물을 증여한다.

기다림이란 소리없는 노동이며, 소리없는 형벌이다.

그러나 농부에게 기다림이란 이미 노동도 형벌도 아닌 하나의 신앙이다.

그들은 기다림을 형벌이라기 보다 차라리 헌신이나 희생이라고 말하기 좋아한다. 농부는 파종된 한알의 씨앗이 대지의 체온 속

에서 철저히 썩기를 기다려야만 한다. 또 모든 식물은 사람처럼 유년기와 청년기와 그리고 장년기의 정직한 과정을 통해서만 인간에게 비로서 곡물을 허락한다. 아무도 그 식물의 과정 중 단 한가지라도 생략할 수 있을 권리는 없다.

봄이다.

풍문만으로도 향기로운 최초의 계절이다. 그러나 이 봄이 우리에게 당연히 희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에선 안 된다.

봄이 희망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생에 대한 인간의 열망이 지금 태지 속으로 희망의 봄을 이끌어 내고 있는 것이다.

〈정신교육 1문 1답〉

문) 공산주의의 본질적인 개념은 무엇인가?

답) 공산주의란 사유재산제를 폐지하고 재산을 공유화하면서 계급없는 평등한 사회를 건설한다는 구실 아래 공산당이 비공산체제를 무너뜨리고 1인 독재 또는 1당독재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내놓은 음모와 파괴의 방법론이다.

詩

길

병장 변상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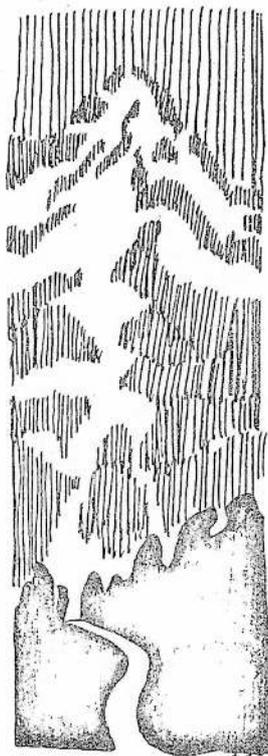
〈제3659부대〉

序

지금의 우리는
아픔을 모른다.
상처 위로 파고드는
역사의 자국을 느끼지 못한다.
음악으로 새겨진
푸른 멍줄은
밤이면
파르라니 되살아 오르고 있다.
계속된 날
목적지도 없는 영혼은
뜨거운 염통 아래서
응어리채로 식어버려라.

I

밤이면
서러운 달빛도 통곡하다 간다던
그 하늘을 보고



초라한 모습으로 내가 섰다면
아예
타오르도 못하게 말렸겠다.
그 모습으로

그 넋 잃은 정신으로
포근한 어머니 품에
무엇을 드릴 수 있느냐 물었겠다.
죄없는 어머니 가슴에
못질을 하려느냐 꾸짖었겠다.
회백색의 눈길로
내가
머영하게 망울진다면
아예
피어나도 못하게 꺾었겠다.
있도 없는 가너린 모습으로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느냐고
파편같은 목소리로
고함을 지르겠다.
넓은 하늘을 바라 보라고
하루에도 몇 번은 쫓겨났겠다.
가슴으로 뚫어오르는
혈관을 타고 뚫어오르는 눈을 보며
내가
앞을 못 헤이고 있을 때면
부끄러워져라.
영혼의 거울 앞에 서서 부끄러워져라고
나의 가슴을
산산조각 내어 버리겠다.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아예

알랑은 묻어 두었겠다.
끓어 샅은 나의 앞에서
땅을 치며 통곡을 했겠다.

II

애야
느낌도 없는
너의 작은 가슴은
시방
뜨거움으로 끓고 있지만
나의 이 상처의 깊이는
알 수가 없단다.
너희들은 맑아오는 하늘을 보고
푸르름한 강산을 보고 지내왔기에
이 땅의 상처자국은 알 수 없단다.
부러진 총들이
구멍난 철모들이
그리고
그리고
너의 형같은 젊은이들이
조국을 사랑한다고
무엇에도 빼앗길 수 없다고
주먹으로 몸으로 굳어져
철조망처럼 솟아 있었단다.
무궁화 꽃잎처럼 피어 있었단다.
회오리 쳐오는 군화 자국은
아픈 풀꽃을 꺾어버리며
광란으로 헤매었었다.
네 누이가 죽고

형이

동생이

아……

땅은

붉은색으로 울었다.

하늘은

충혈된 눈으로 직시하며

咀呪의 구술을 외었다.

땅이 몸부림치는 새벽이면

가슴으로 파고드는 아픔으로

夭折한 어느 용사는

북녘을 바라보며 울었다.

가슴을 뜯어가며 울었다.

애야

피어린 기록들은

지워질 수는 없는 것이란다.

상처를 주고간 그날들은

但只

역사로만 기록된게 아니란다.

가슴으로 새겨져 있는 것이란다.

실핏줄마다 흩어져 있는 것이란다.

Ⅲ

균열되는 태양아래에 서면

책으로 파고드는 아픔들이

모호한 뇌리를 스치며 질타하고

난

난

충혈된 눈으로 밖을 떠돌고

망사로 짜여진 얽은 영혼은

매일을 환등기 속에서 울고 있고

……

구름같이 그렇게

그렇게 뿌연

산등성이 위로

끓은 적색의 이리떼들이

잔인한 웃음을 문지르고 있었다.

건너 능선에

검은 눈동자로 노려보고 있는

녹색의 나의 군복이

전우가

형님이

입술 사이로 열기를 토하며

굳게 엮드려 있었다.

예리한 파공성들이 귀를 스칠 때

누우런 연기 사이의 상처가

바위틈으로 스미어들고

나무틈으로 스미어들고

아아……

결코 쓰러질순 없다며

最後의 하나까지도 싸우겠다며

그렇게 피어린 전투는

안개처럼 거두어지고

죽음으로 널려진 숲들 사이로

젊은 혼들이 하늘을 오르고 있었다.

자랑스러웠노라며

웃음으로 하늘을 오르고 있었다.

머언 노을 사이로

하늘이

가슴을 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고 있었다.

.....

아침이면
밤의 상처는
간곳이 없고
하늘이 어디쯤인지
하늘이 어디쯤인지
기억할 수도 없고

IV

毎日 각혈을 한다.
더 이상 뛰어갈 수 없는
내 작은 몸덩이를 보며
끓어오르는 가슴으로 각혈을 한다.
무엇을 했던고
무엇을 할건고
버릇같은 한숨으로 땅을 굴린다.
저곳에서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진대
그 광란의 회오리 속에서 기다리고
있을 진대
아.....
같은피를 타고도는 혈관을 가지고
너는
매일을 눈물로 지새고 있는데
가로막혀진 붉은 벽돌이
왜 이렇게도 탄탄하고
들리지 않는 나의 목소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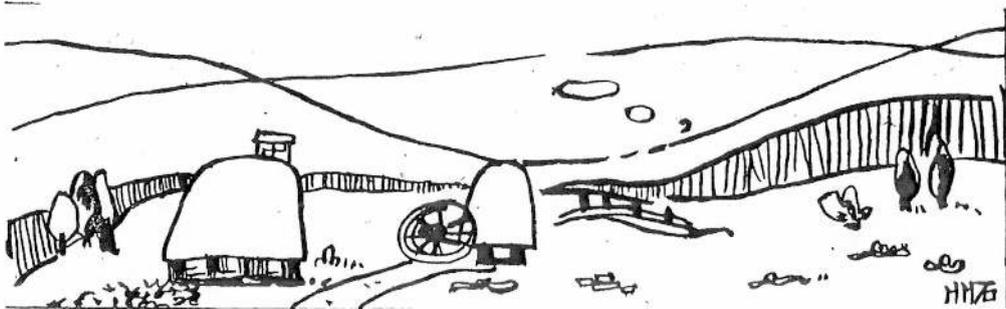
매일 쇠소리를 내며 달려가건만
붉은 눈알의 접점은
왜 이다지도 답답하고
내어다보는 눈도 없이
헛된 망상을 펼쳐 놓으며
너를
왜 그렇게도 학대하고
참는 너의 환영따라
희미한 미래가 직시된다.
기다려라
기다려라
이 때까지의 고통으로는
지탱하기도 어려울다만은
기다려라
기다려라
자멸하는 저 조각조각들이
깊숙이 묻혀질 때까지 만이라도
결코 존속되어 질 수 없는
역삼각의 저 형체들은
내
피로서 외워 두었다가
네 손을 잡는 날
네 귀에 대고 크게 읽어주리라.
내
이렇게 애틍는 가슴으로
毎日
每日을
각혈을 한다.

終

지금의 우리는
 아픔을 모른다.
 상처 위로 파고드는
 역사의 자국을 느끼지 못한다.
 이제
 젊음을 모두어 놓고
 뜨겁게 용솨음 쳐야한다.
 우리가
 그 짙은 愛國의 목소리를 버리려는가
 가슴으로 베아리치던 祖國을 버리려는가.
 지나온 발자취들을 거슬러
 護國의 정신과 뜻을 이어야 한다.
 사랑스러워져야 한다
 우람한 발걸음들이
 땅을 밀물처럼 뛰어다닐 때
 햇불처럼 꺼져들지 않는 혼은

웃고 있을지니
 폭우 속에서라도
 달빛처럼 빛날 것이려니
 방사선같은 혈관을 타고
 파도처럼 거세게 숨을 쉴 것이려니
 우린
 大韓의 아들임을 자랑스러워해야 한다.
 더 크게 내딛는
 꿈을 키워야 한다.
 이 땅과
 하늘
 그 품안에서
 크게 기지게 켜고
 힘찬 호흡으로 달려야 한다.

.....



“核戦争”은 과연 일어날 것인가?

- 영화 「그날 이후」를 계기로 다시 한 번 살펴본다 -

徐 光 云

〈과학평론가〉

수백만의 미국시민들은 1983년 11월 20일 밤 ABC·TV 전국 네트워크를 통해 방영된 핵재앙공포가상영화 「그날 이후」(The day after)를 시청하려고 가정과 교회와 학교로 몰려들었다.

ABC·TV가 7백만달러의 제작비를 투입, 3년간의 각고 끝에 햇빛을 보게 된 2시간 15분짜리 이 영화는 정치적 의도가 전혀 없다는 ABC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문제에 관한 불꽃튀는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먼저 「그날 이후」의 줄거리를 보기로 한다.

이 영화의 무대는 미중부의 대도시 캔자스시티이다. 이 도시 주변에는 실제로 핵미사일이 대량으로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영화가 시작되면 집을 나가려는 딸

때문에 속상해 하는 심장의과 의사부부, 캔자스대학의 로렌스 교정에서 등록하고 있는 학생들, 딸의 결혼을 준비하는 농민의 가정 등 평화롭고 일상적인 미국생활이 한동안 비춰진다.

그러다가 한 공군병사에게 비상이 걸리면서 이 영화는 시청자를 핵전쟁의 지옥 속으로 끌어들인다. TV와 라디오의 긴급뉴스는 처음에는 명확하지가 않다.

어느날 동독군의 일부가 반란을 일으킨다. 이들을 진압하기 위해 소련은 베를린을 봉쇄하고 소련군을 투입한다. 소련군은 동서독 경계선을 돌파하여 서독으로 진격해온다. 이처럼 대전의 위기가 고조되자 소련은 모스크바 시민들을 소개시킨다.

베를린이 봉쇄되고 미국과 적국간에 최후 통첩이 교환되며 그러다가 3기의 핵탄두가

갑자기 군부대에 떨어지면서 캔자스시티는 지하방공호와 교외로 대피하려는 시민들로 아비규환을 이룬다.

소련군의 진격을 저지하기 위해 연합군이 전술핵무기 3발을 진격부대 상공에서 폭발시켰기 때문이다. 소련군은 이에 대항해서 서유럽지구의 나토군 사령부에 수 미상의 핵무기를 발사한다. 미·소양국의 지도자들은 휴전협상을 시도하나 실패하고 만다.

로렌스 미공군 핵무기 저장소에서는 거대한 미니트맨·미사일 등이 굉음과 함께 분사진을 내뿜으며 적국을 향해 날아가고 적국으로부터도 핵폭탄이 계속 날아온다.

캔자스 상공은 순식간에 여러 개의 태양이 동시에 출현한 듯한 강렬한 빛과, 열과, 폭음 그리고 불기둥, 버섯구름으로 뒤덮이고 만다. 그러자 캔자스시티에서는 대공황이 일어난다. 사람들은 슈퍼마켓으로 달려가 생활필수품을 사다 저장하고 지하실로 대피한다.

곧 이어 소련의 핵탄두가 떨어지기 시작한다. 핵폭발이 일어난 후, 시가는 폐허가 되어버린다. 식량과 물을 구하기 위해 사람들은 낙진과 방사능을 무릅쓰고 밖으로 나선다.

거기서는 강탈이 벌어지고 사람들은 자위를 위해 총으로 무장한다. 강탈범이 군에 잡혀 총살당하기도 한다. 미국대통령이 방송을 통해 미국은 핵공격에도 불구하고 항복하지 않았다고 선언한다. 식량을 배급하는 군트럭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식량이 떨어지자 난투가 벌어진다. 모든 것이 파괴되고 방사능에 오염된 사람들은 죽거나 죽어가고 병원은 거대한 무덤으로 변해간다. 너무도 처참한 「그 날 이후」가 전개된 것이다.

이 영화는 폐허가 된 자기집을 찾은 의사가 그곳에 웅크리고 있는 한 가족에게 나가라고 소리치다가 함께 부둥켜 안는 장면으로 끝난다.



일요일 저녁 끝난 아워 인 오후 8시에 방영된 「그 날 이후」프로는 미국민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7천만명이 시청한 것으로 추산됐다. 레이건대통령도 그 전주에 은밀히 시사회에서 이 영화를 감상했으며 백악관 대변인은 20일 밤의 TV방영 때는 다시 시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캔자스시티에서는 이 영화가 방영되는 날 밤 1천5백명의 반전운동가들이 광장에 모여 촛불시위를 했다. 이 광장 한 모퉁이에서는 이 시위에 반대하는 일단의 보수파 운동가들이 모여 소련국기에 불을 질렀다.

워싱턴시의 식당은 이날 밤 손님이 반 이상 줄었으며 사람들은 영화가 방영되기 30분전에 식당을 나와서 집으로 향했다.

이 영화에서 핵전쟁 도발자가 누구인지는 전혀 암시되지 않고 있으나 「핵전쟁이 오늘도 일어날 수 있으며 그 누구도 무사하지는 못한다」는 메시지만은 분명히 전달하고 있다. ABC 측은 앞서 미 전국의 모든 중·고등학교에 시청안내서를 배포하고 이 영화의 의문점에 대한 해답을 소상히 설명해 주었다.

또한 일부 ABC가맹사들은 이 영화가 방영된 후 「전화 프로쇼」를 마련, 시청자들로 부터의 질문에 응했고, WBRC-TV(앨라배마주 버밍햄 소재)는 시청 도중 충격으로 의식을 잃은 시청자들을 위해 의사를 미리 대기시켜 놓기도 했다. 미정신의학협회는 12살 이하의 어린이는 이 영화를 보지말고 또 어른이라할지라도 혼자서는 시청하지 말도록 강력히 권고하는 한편 프로 방영 후 즉각 정신건강상태를 체크하도록 요망하기도 했다.

단순한 TV 영화 이상의 정치, 사회, 문화, 교육적 측면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 영화를 놓고 보수주의자들은 레이건대통령의 군사력 증강을 저지하려는 선전술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반면에 반핵단체들은 이 영

화가 군축에 큰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신과 의사들은 이 영화가 시청자에게 고도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심어줄 것으로 우려를 표명했으며 백악관도 이 영화가 물고 올 핵동결, 반핵평화운동에 대한 역공세를 펼 준비에 들어갔다.

레이건대통령은 전주에 이 영화를 미리 보고 그에 대한 대응으로 자신의 방위정책을 설명하는 18페이지 짜리 책자를 만들어 배포토록 했고, 슬츠국무장관도 이 영화가 방영된 직후 ABC방송 보도 「특집프로에 출연, 레이건행정부의 핵정책을 변호하고 나선다.

슬츠국무장관은 「핵전쟁은 그저 먼 미래의 얘기만은 아닌 것」이라면서 「이 영화는 핵전쟁이 용납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는 사실을 생생하게 그리고 극적으로 묘사해주고 있다.」고 평했다. 또 「미국의 핵정책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 10년동안 핵전쟁을 막는데 성공했었다.」고 말하고 미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핵무기가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ABC방송은 이 영화를 방영한 후 1천75명의 시청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면서 그중 6백62명이 방영에 「지지를 표명」하고 3백93명이 「부정적인 견해」를, 그리고 나머지는 후속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행정부측과 보수주의자들의 부정적인 반응과는 달리 ABC방송 간부들은 「우리들은

물론 이제까지 만든 영화 중 가장 의미 깊은 영화」라고 자찬했고, 캔자스시티의 연방 비상대책국 국장 패트릭·브리히니씨는 「시민들의 자체방위 필요성을 새삼 강조시켜 주는 것」이라면서 「그 날 이후」를 높이 평가했다.

핵동결 주창자인 로버트·드리너목사와 헬렌·칼디코트박사는 「그 날 이후」프로가 핵역사의 전개과정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궤도수정시킬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엘리엇·레비타스(조지아주)와 맨·그리크만(캔자스주)의 두 민주당하원의원은 비록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11월 18일 의회 휴회 직전에 제출한 결의안에서 이 영화를 소련에 보여주도록 촉구했다.

한편 「그 날 이후」는 제3차대전 발화지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 서독의 서베를린시에서도 20일 오전 시사회를 가졌는데 이 영화를 본 1천여명의 시민들의 반응은 「핵공포에 대한 충격」 바로 그것이었다.

이 날 조팔라스트극장에서 상영된 이 영화를 관람한 한 여성은 이 영화가 자신으로 하여금 이같은 재앙의 발생을 막기 위해 무엇인가 하도록 자극을 주었다고 말했으며 다른 한 남자관객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대학생 라우프·수시케군(21)은 핵전위협이 베를린 시민들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핵무기와 외국군이 주둔하지 않는 중립독일을 원한다」고 말했다.

핵전쟁의 가능성과 공포는 이와 같은 가

상영화 「그 날 이후」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 미·소 사이의 중거리 핵미사일(INF) 협상이 깨진 후, 동·서의 최대 집단안보기구인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바르샤바기구가 거의 같은 시기에 똑같은 문제를 토의할 것으로 보여 주목을 끌고 있다.

두 기구는 1983년 12월초에 각각 브뤼셀과 소피아에서 국방상 등 각료회의를 소집, 중거리핵미사일의 문제를 포함한 현안을 토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나토의 경우는 12월 5일부터 이틀동안 브뤼셀에서 회의를 열고, 나토국방상들은 유럽미사일의 배치에 대응하려는 소련의 SS20 미사일 증강 배치 위협문제를 다루는 한편, 미국이 제안한 신형 정밀무기와 전자 첩보 체제 생산문제를 논의하게 된다.

캐스퍼·와인버거 미국방장관은 이번 나토 국방상회의에 제출하는 보고서를 통해 바르샤바조약기구측의 재래식무기 우월에 맞서기 위해서 초정밀 고성능 비핵무기를 대량 생산하고 중동산유지 등 비나토방위지역일지라도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전략지역」에서 나토가 중대한 역할을 맡을 것을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 나토 회원국들은 엄청난 생산비를 들여 재래식무기를 개발하는데 난색을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나토 방위관할 지역도 현재의 서구, 북대서양 그리고 북미 지역으로 한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와인버거장관의 제의는 상당한 논란을 일으킨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새 회원국인 스페인 등을 포함, 나토 16개국의 전외상들은 같은 12월 8~9일 회의를 열고 소련의 제네바협상 거부 후 심각하게 대립되고 있는 동·서관계를 타개하기 위한 새로운 활로를 모색했으나 별다른 묘책을 찾아내지는 못한 것 같다.

한편 바르샤바기구의 경우 나토국방상회의와 때를 같이하여 소련·동독·폴란드 등 바르샤바조약 7개 회원국 국방상들도 12월 5일 불가리아의 수도 소피아에 도착, 2 일간의 회의에 들어갔다.

이번 소피아회의에서는 동·서진영간에 날카로운 대립을 보이고 있는 중거리 핵미사일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서방 및 소련권 소식통들은 보고 있다.

이들은 이미 지난 10월 20일 바르샤바 국방상회의에서 나토가 미사일을 배치하면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보복조치를 취하겠다고 결정했음을 지적, 이번 회의에서 서구의 유럽미사일 배치와 관련, 바르샤바 동맹국들의 대서방 보복조치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바르샤바조약기구는 현재 나토의 신형미사일 배치에 대항, 동독과 체코슬로바키아에 새로운 미사일 격납고 건설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번 국방상회의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루마니아의 태도이다. 탈소 독자노선을 견지해온 루마니아는 미·소중거리핵문제에 관해 중도적인 입장을 표명, 미·소의 제네바협상 복귀와 새로운 미사일의 배치 중지를 요청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처럼 나토와 바르샤바의 두 진영이 국방상회의를 저마다 열고 사후대책을 검토한 일은 제네바 중거리핵협상(INF)이 결렬됐기 때문이다. 불씨는 불과 8분이면 모스크바를 강타할 수 있는 퍼싱Ⅱ 미사일과 초저공으로 적진을 깊숙이 파고드는 크루즈미사일의 배치를 둘러싼 진통 때문이다.

이른바 미국의 「霧의 선택」제안으로 시작된 협상은 소련측의 「逆霧의 선택」제안으로 22개월 동안 제자리 걸음을 해왔다. 미국이 제안한 「霧의 선택」은 소련이 유럽을 겨냥해 배치한 모든 중거리핵미사일을 폐기하면 미국도 퍼싱Ⅱ와 크루즈미사일을 유럽에 배치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逆霧의 선택」은 미국이 퍼싱Ⅱ 및 크루즈를 배치하지 않으면 소련은 SS20 중거리 핵미사일을 영국과 프랑스가 보유하고 있는 핵미사일 숫자인 1백62기선으로 줄이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은 영국과 프랑스의 핵미사일은 협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 그것들은 미국 정부가 관할할 수 없는 것이고, 소련의 제안대로라면 미국은 SS20에 대항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미국은 다시 「잠정수준 동결」의 새 제안을 내놓아 교착상태를 타개해 보려고 시도했다. 무대를 비단 유럽에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양국이 전세계에 배치한 모든 중거리 핵미사일을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자라는 것이 그 골자이다. 유럽에 배치된 미사일만을 대상으로 하면 아시아에 배치한 1백여기의 SS20이 규제에서 빠지는 점을 고려한

제안이다.

소련은 이같은 제안이 자신들에게만 일방적인 감축을 강요하는 것이며 퍼싱Ⅱ와 크루즈미사일의 배치를 허용하게 된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협상은 유착상태에 빠지고만 것이다.

이처럼 옥신각신 미·소간의 군축협상이 진행되고 있을 때 1983년 9월 1일 소련군에 의한 KAL기 격추만행사건이 일어났다. 전세계의 규탄에 견디다 못해 소련측은 억지충항-책임전가로 이른바 그들이 파악한 진상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는데 발표자가 뜻밖의 인물이어서 세계는 또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소련군 참모총장겸 국방성 제1차관인 니콜라이·오가르코프元帥가 돌연 기자회견에 나타난 것이다.

이는 일찌기 소련의 정치풍토에 없었던 일이며 군사력 팽창을 배경으로 소련의 군부가 상당한 정치실력을 거머쥐게 된 것이라는 추측을 빚게 했다. 최근 프랑스에서 발간된 세계해군年鑑에 따르면 소련은 84년 초 미국보다 4배나 많은 군함과 잠수함을 보유할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소련 해군력의 최강점은 잠수함대이며 총 3백 75척의 잠수함 중 2백16척이 핵추진잠수함이고 이 가운데 67척의 핵잠수함은 도합 9백 52기의 탄도 미사일을 적재하고 있다.

브레즈네프에 이어 소련의 실력자로 등장한 안드로포프의 처美강경노선이 점차 고개를 내보이는 것도 안드로포프가 소련공산당 서기장 겸 최고회의 간부회장으로 자리를 굳히게 된 이면에는 강력한 군부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금 소련에서는 군부세력이 정치세력을 누르고 모험을 하려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그 날 이후」로 직결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67년 중동전 때 미·소사이에서 전쟁이 날뻔한 일도 없지 않았다. 미국방장관을 지낸 로버트·맥나마라는 1983년 9월 14일에 〈포린 어페어誌〉에 실린 한 기사를 사전에 기자들에게 공개했다.

「67년 6월 미국과 소련은 전쟁 일보전까지 갔었다. 당시 소련이 최초로 하트라인을 사용했다는 보고를 받고 서둘러 이른 아침에 국방성에 도착했다. 당시의 소련수상 알렉세이·코시킨이 존슨대통령과 즉각 대화를 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소련은 미국이 중동의 전쟁지역 인근 지중해에 항공모함 1척을 파견한데 매우 당황했었다.」

코시킨의 전화에 대한 답전을 하도록 하기 위해 맥나마라는 백악관에서 취침 중인 존슨대통령을 깨웠다. 이 때 코시킨의 발언은 당신들이 전쟁을 원한다면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맥나마라는 중동전을 둘러싼 미·소사이의 이같은 위기가 어떻게 해소됐는지 또 지중해에 파견된 미 함대의 동향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은 채 세부적인 내용이 아직은 대외비에 붙여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미국 제트기들이 이스라엘을 지원하기 위해 요르단을 폭격했다는 언론의 오보가 있었다고 그는 지적했다.

어쨌든 만일 미국이 소련으로부터 선제

핵공격을 받을지라도 누가 핵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소련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미국관리들이 판단하기 전에는 보복핵공격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맥나마라는 주장했다. 1961년에 24메가톤급 핵탄 2개를 실은 미국의 폭격기가 노드 캐롤라이나주에 추락하여 난리를 치른 일이 있었는데 그러한 우발적 사고가 소련의 공격으로 오인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하는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맥나마라는 핵전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핵무기를 배치한다는 자체론을 강조하고 있는데 소련에는 군보안사령부(GRU)

에 직속된 「스페츠나즈」라는 「공포의 특공대」가 3만명이나 있다. 서구의 핵을 파괴하고, 암살, 후방기지 교란을 꾀하려는 이 특수부대는 모험주의자들이다.

영국에서 15~18살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70%가 핵전쟁은 반드시 일어나고 52%는 그들이 죽기 전에 일어날 것으로 믿는다는 비판적인 보고도 있다. 핵전쟁의 공포는 극동에서 보다 유럽에서 더 실감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다.

안일과 태만 속에

사고요소 날개친다

서독의 소련문제전문가
레온하르트의 분석

소련의 特權層 「노멘클라투라」

편 집 실

인구 2억7천만명의 소련을 지배하는 것은 겨우 수십만의 권력엘리트 집단 즉, 노멘클라투라라고 한다. 권력의 힘으로 단물을 빨아 먹어온 노멘클라투라는 안드로포프 정권하에서도 그 지위를 보전하는데 급급하고 있으며 소련에 만연하고 있는 거대한 「지하경제」와 손을 잡기 시작했다고 한다. 한 때 동독 사회주의정권의 젊은 이론가로서 활약하다가 현재 서독에 머무르고 있는 소련문제연구가의 제1인자인 볼프강 레온하르트가 베일에 싸인 노멘클라투라의 실상을 분석한 글을 소개한다.

유고슬라비아의 전 부통령 밀로반 질라스가 그의 저서 「새로운 계급」에서 소련의 특권계급의 실태를 파헤쳐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것은 약 25년전의 일이다. 그로부터 4반세기가 지나는 사이에 소련의 새로운 계급은 확고부동한 존재로 굳어졌다.

소련의 권력엘리트는 노멘클라투라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 말의 원래의 의미는 각 집단(공산당·정부·군·KGB)의 주요한 직책을 서열에 따라 망라해 놓은 리스트를 가리킨다.

소련의 독재적인 관료제도하에서 지배적 권력엘리트는 서방세계와는 달리, 의회에 의한 통제 범규범 및 여론에 의한 제약 따위

에는 전혀 구애됨이 없이 모든 결정을 내리는 것은 이들 노멘클라투라들이다.

조지 오웰의 유명한 소설 「1984년」에서 「당내국」이라고 불리는 것이 구체화된 것이 바로 소련의 노멘클라투라라고 할 수 있다.

노멘클라투라의 계급은 위로부터 네가지로 나눌 수 있다. 최 고위에 있는 것은 공산당중앙기관·중앙정부·군·KGB의 지도층에 속한 사람들이며 제2위는 소련방을 구성하는 15개공화국의 중요한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며 제3위는 소련의 1백55개주(오블라스트) 수준에서 권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라밋의 가장 하위에 위치하는 사람들은 地区(레이온) 수준, 즉 지구의 당위원회·정부·KGB·경찰의 관료들이다.

노멘클라투라라고 해서 새로운 계급의 특권을 누리려는 것은 있지만 이들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들의 특징은 그보다 각종의 권력을 보유하고 있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사회경제적으로 말하자면 이들은 국가재산의 집단적 관리자라고 할 수 있다. 국영기업의 주식을 산다든지 하는 일은 할 수 없지만 그 이익의 분배에는 참여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금전적 수입은 노멘클라투라 관료들이 누리는 특권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기타의 각종 물질적 특권이 더 크다.

노멘클라투라官僚는 일반사회로부터 격리된 별장이나 저택을 이용하고 특별한 상품(특히 외국제품)을 진열한 전용상점에서 식품이나 소비물자를 살 수 있다. 그들은 또 특별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전속미용원과 양장점을 이용하고 자녀들을 위한 전속유치원과 학교를 갖고 있는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다.

노멘클라투라의 아마도 유일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전에 소련의 공업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일 것이다. 그렇지만 소련이 선진공업국이 된 현재 그들은 공업화의 담당자로서의 역할을 이미 잃어버리고 점차로 사회에 기생하는 존재로 변해가고 있다.

노멘클라투라官僚는 현재의 중앙집권적 관료제도가 소련경제의 필요성과 전혀 상반되며 공업·농업의 발전 및 기술 진보를 지연시키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그들은 소련경제의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모종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그것을 교묘히 지연시키고 방해하고 있다.

경제분야에서의 개혁이 그들의 특권과 권력을 위태롭게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게다가 노멘클라투라官僚들은 그러한 엄청난 특권을 향유하면서도 그들 자신의 사유물 거의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이 사용하는 것을 허용받고 있는 것은 모두가 정부의 재산이다.

그들의 주택에 있는 모든 것, 즉 값비싼 가구·회화·웅단·고급유리제품·도자기 등 모두가 국가의 소유물이다. 실제로 그들이 전유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전용별장이나 전용주택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국가에 기식하고 있는 손님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노멘클라투라官僚는 지위에 따른 특권과 사유재산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통감하고 있는 것 같다. 게다가 그들은 국가의 정책에서 벗어났다고 간주될 경우 언제든지 경질되어 모든 특권을 박탈당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 때문에 조금이라도 나날의 생활의 불안함을 없애고 자기 가족에게 유산을 남기기 위해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손에 넣고자 하는 자연의 유혹에 노멘클라투라 관료들은

사로잡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소련에서 새로운 현상이 만연하고 있다. 사영기업과 암시장 등 부당한 수단으로 축재하려고 애쓰는 움직임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유리 안드로포프가 소련공산당서기장에 취임한 직후 소련지도부는 대규모의 오직 추방캠페인을 전개했다. 1주일 사이에 몇 번씩이나 소련의 각 신문은 중대 오직 스캔들에 관해 관계기관이나 省·장소·주법·관련자금 등을 상세히 보도했다.

소련국내의 오직을 둘러싼 가장 중요한 점은 사복을 채우고자 하는 당과 국가의 당국자들을 연루시킴으로써 이러한 오직이 비합법적인 「제2경제」를 움직이는 힘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공식」적으로 소련은 국가가 구석구석까지 눈을 번득이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에 의해 운영되게 되어 있다. 그러한 「공식경제」의 틀에서 벗어난 경제활동이 소위 「제2경제」다.

소련에서는 농업분야에 있어서의 소규모 개인경영을 제외하고는 개인의 영리활동이 금지되어 있고 사람을 고용한다든지 개인적인 물품판매는 「투기」로 간주되어 위법행위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의 영리활동금지가 별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모든 사람이 욕구하는 식료품이나 공업제품이 자주 품절이 되고 게다가 국영유통제도에서 관료주의적 결함이 늘어감에 따라 「제2경제」쪽이 점점더 활기를 띠고 있는

것이다.

「지하경제」의 기업가가 착착 늘어나고 있으며 마침내 시장경제에까지 참여하게 되었다. 그들도 암시장에서 원료와 기계를 구입하고 생산증가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그들은 자기자본을 투입하여 暗노동자들을 시간제로 고용하고 있다. 暗노동자들은 국영기업보다 5~7배나 많은 임금을 받으므로 즐거운 마음으로 일한다.

이들 「지하기업」에서 생산되는 것은 대부분 의복·신발·가정용품·천가죽제품·전기제품 등 소비재들이다.

私營기업가는 때로는 장사를 위해 멋대로 철도차량이나 화물기를 전세내기까지 한다. 이러한 사실은 소련 각지에서 사영기업가들을 연결하는 조직망의 존재를 보여주는 징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사영기업가의 활동이 아같이 대규모가 되어 거액의 자금을 움직이게 된 이상 그들을 「투기」나 「암거래상인」 등으로 부르는 것은 이미 적절하지 않으며 위험을 무릅쓰고 새로운 경제적 이니셔티브를 잡으려고 하는 중요한 사회집단이라고 부르는 편이 좋을 것 같다.

따라서 「제2경제」에 종사하게 된 사람들이 1921년부터 시작한 레닌의 「신경제정책」(NEP)과 같이 궁극적으로는 자기들의 활동도 당국으로부터 공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견해도 그렇게 틀린 것은 아닐 것이다.

어쨌든 사영기업가가 사기업의 합법화를 위해 전개하고 있는 賄賂전술은 사유재산을

늘리려는 수 많은 노멘클라투라들의 욕망과
합치되고 있다.

안드로포프 서기장이 오직을 없애려는 캠페인을 호소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노멘클라투라와 「제1경제」 당사자사이의 결탁 증대를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일대 캠페인도 격렬한 비난, 일

부 공무원의 지위격하, 체포가 수주일간 계속되었을 뿐 돌연 끝나버리고 말았다. 예컨대 이 캠페인이 안드로포프 서기장 자신의 손으로 개시되어 지휘되었다 하더라도 소련 권력기구의 내부에는 이 캠페인을 저지할 만한 힘을 가진 세력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것 같다.



孤立된 共産世襲王朝

편 집 실

이 글은 「리더스 다이제스트」지의 편집위원이며 작가인 Anthony Paul씨가 평양을 방문, 취재한 르뽀 기사이다.

내가 탄 낡은 구식 AN-24터보 프로펠러
機가 압록강을 넘으면서 벌써 나는 북한이
라는 곳이 유별난 사회인 모양이구나 하는
예감을 가질 수 있었다.

중공인 조종사가 조종하는 소련제 비행기
가 북한을 들어서자 밖으로는 흰 눈으로 뒤
덮인 황량한 땅이 내려다 보였고, 그 위를
회색 구름들이 뭉게뭉게 돌며 지나가고 있
었다.

비행기가 공항 활주로를 향해 하강하기
시작하자 비행기 안에 있던 10여명의 북한
승객들은 갑자기 호주머니에서 그들의 지도
자 김일성의 얼굴이 들어있는 배지를 꺼내
가슴에 달기 시작했다.

1,700만개의 배지

북한 승객들이 서둘러 가슴에 단 김일성
의 얼굴이 박힌 조그만 금빛 배지는 나에
게 이 한반도의 공산화된 北半에서 기세를
떨치고 있는 유별난 「개인숭배」라는 것이 얼
마나 극성스러운 것인가를 보여 주는 한낱
序論에 불과했다.

북한에 체류하는 동안 한 개인에 대한 신
격화 운동이 도대체 이렇게까지 극단화할
수 있을까 하고 거의 믿을 수 없을 정도였
다. 눈을 뜨고 있는 동안은 잠시도 김일성
의 얼굴과 이름을 잊는 것이 허용되지 않
았다.

우선 평양 공항의 터미널에서 묘하게 재
는체 하는 표정을 한 김일성의 모습이 비

행기에서 내리는 승객들을 내려다 보고 있었다. 공항을 찌렁찌렁 울리는 마이크장치에서는 웅장한 오케스트라가 울리는 가운데 찌지는 듯한 테너의 목소리로 김일성을 찬양하는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터미널 건물 안에 들어섰더니 거기에도 김일성은 도처에 있었다. 통관실 부근의 거대한 벽화에도 있었고, 터미널 입구 옆의 게시판에도 있었다. 또한 건물안의 높은 곳마다 틀속에 천연색 사진으로 앉아 건물 내의 모든 방을 내려다 보고 있었다. 공항 밖 도로와 들판에도 평양의 거리와 호텔 로비에도 김일성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곳이 없었다.

김일성은 이와 같이 동상이 되거나 사진을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조그마한 배지가 되어 1,700만 북한인민의 가슴에 모조리 하나씩 붙어 있다.

북한은 온갖 역설적인 현상이 판치는 사회이지만 북한의 명칭도 그러한 괴이한 패러독스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우선 이름만은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근사하게 붙였지만 북한이야말로 민주주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회이다.

모든 권력은 김일성이 혼자서 손아귀에 움켜쥐고 있고, 김일성의 일가친척과 심복 부하들로 구성된 약 13명의 최고위층 패거리에게 가지 못한 진짜 인민들은 나라를 통치하는데 한 마디의 발언권도 허용되지 않는 곳이, 북한이다.

게다가 무엇보다도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이 붙은 북한은 아무리 좋

게 보아주려해도 도저히 공화국일 수가 없다. 정반대로 김일성은 바야흐로 근대 정치사에서 그 전례를 볼 수 없는 특이한 「업적을 남길 준비를 갖추고 있다. 「마르크스-레닌주의」혁명을 슬쩍 세습군주제로 바꾸기 위해 모든 준비를 착착 서두르고 있다.

祖上까지 神格化

「위대한 수령님」-북한에서는 김일성을 언제나 이렇게 부르고 있거니와 이 김일성은 벌써 君主처럼 행세하고 있다. 김일성 그 자신만이 위대한 것이 아니고 그의 조상들까지 다 위대한 사람들이었다고 꾸며낸다. 김일성의 아버지와 증조할아버지까지도 새로 건립된 「神殿」에 모시고 동상들을 세웠는가 하면 학교 교실이나 무대를 통해서 신격화하고 있는 김일성의 증조할아버지는 1886년 평양대동강 어귀에서 미국 「해적선」을 공격, 격침시키는데 지도자 노릇을 했다고 하며, 그의 아버지는 1926년 일본 식민 통치자들과 용감하게 싸우다가 죽었다는 것이다.

자기의 할아버지, 아버지를 이렇게 신격화한 김일성은 이제 자기 아들을 내세워 자기 자리에 앉힐 준비를 하고 있다.

올해 70세가 되는 김일성은 현재 고�혈압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41세가 되는 자기의 아들 김정일에게 권좌를 물려주려고 노골적으로 그 준비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지난 몇년 동안 김정일은 당과 군대의 각종 요직을 차지해왔는데 조만간 그의 아버

지는 그를 부주석 겸 최고국가기관인 중앙 인민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할 것이라는 것이 북한 소식에 밝은 사람들의 예상이다.

북한 사람들은 이미 김정일을 「우리의 친애하는 지도자」라고 부르고 그의 생일을 축하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다.

김정일의 생일날이었던 81년 2월 16일 북한의 라디오 방송들은 처음으로 김정일을 공개적으로 김일성의 유일한 후계자라고 불렀다. 평양에 주재하는 어느 외교관은 「국민들은 오래전부터 김일성 王政을 체념해왔는데 이제 그들은 王政뿐 아니라 불원간 세습적 왕조를 강요당할 판이죠」라고 말했다.

김일성이 처음으로 북한 사람들의 앞에 나타난 것은 1945년 2차대전이 종식된 직후였다. 일본이 연합군 앞에 무릎을 꿇자 소련군이 북한으로 밀려들어와 38선 이북의 모든 북한 영토를 점령했다. 그때 소련군 탱크를 앞세우고 북한으로 돌아온 북한 사람들 중에 소련의 붉은 군대 유니폼을 입은 뚱뚱하고 얼굴이 편편하게 생긴 33세의 김성주, 즉 오늘의 김일성이 끼어 있었던 것이다.

의심스런 과거

중학교를 중퇴한 그는 1932년 韓·滿국경에 있던 항일 케릴라부대에 가담, 抗日 케릴라 전쟁을 한 것으로 선전되고 있다. 그러나 韓民族이 일본 식민지통치에 대항해 벌인 항일전쟁에서 김일성이 과연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 심히 의심스럽고 그가 실사 어떤 역할을 했다해도 극히 미미한 것

이었다. 게다가 태평양전쟁 말기에 싸움이 가장 치열했던 4년동안 그는 소련에 있는 정치교육캠프에 들어가 세뇌교육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 기록으로 입증되고 있다.

김일성은 말하자면 소련이 북한을 점령한 후, 북한을 赤化하기 위해 내세운 소련의 앞잡이로서 출발한 인물이었다. 소련이 처음 김일성을 앞세워 소위 북한 노동당을 창당했을 당시를 회상하는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김일성은 하루에 서너 차례씩 소련 비밀경찰 평양 책임자였던 「로마넵코」 소장의 사무실을 찾아가곤 했다고 한다. 그리고 김일성이 북한 노동당이 창당되자마자 취한 첫번째 조치중 하나는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을 명예당수로 선출한 것이기도 했다.

1950년 6월, 김일성은 잘 훈련된 북한 인민군을 동원, 38선 전역에 걸쳐 남침을 감행함으로써 한국전쟁이라는 참극을 빚어냈거니와 김일성의 이 대담한 행동도 「스탈린」의 사주로 감행된 것이라는 것이 많은 권위자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敗戰 후 숙청 선포

3년동안의 처절한 전투 끝에 북한군은 물론 북한 공산당도 지리멸렬한 상태에 빠졌고 공산당 내에도 김일성에 대한 불만이 노골화함에 따라 김일성은 한때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김일성의 그에 대한 반응은 무자비한 숙청이었다.

김일성의 가장 큰 라이벌이었던 朴憲永은 미국 스파이라는 혐의를 뒤집어 쓰고 투옥되었다. 그 후 朴憲永은 스스로의 죄를 완

전혀 시인한 것으로 조작되어 처형되었고 전쟁 실패의 탓이 그에게 돌려졌다. 김일성의 소위 「집단 지도사업」이라고 명명한 이 숙청을 통해 수천명의 박헌영 동조자들이 처형되거나 강제노동수용소로 유배되었다.

한국 전쟁 후, 이러한 일련의 피비린내나는 숙청사업을 성공적으로 끝낸 김일성은 다시는 자기에 대해 감히 도전하는 자가 없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 북한에서 자기에 대한 개인숭배를 오늘날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사실 북한에서 현재 광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김일성에 대한 개인숭배 운동을 보고 최근 그곳을 방문했던 나는 깔깔대고 웃고 싶은 마음보다 일종의 불안감마저 느껴졌다. 6페이지 밖에 안되는 북한 신문을 하나를 보았더니 거기에는 김일성의 이름이 241번이나 나와 있을 정도였다.

남을 가리키는 숲의 손가락

그러나 이보다도 더 우스꽝스럽고 도저히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는 괴이한 일이 있으니 이따금 평양당국이 술한 돈을 내고 「뉴욕 타임즈」나 「런던 타임즈」같은 西區 신문들의 지면을 사서 김일성 연설의 전문을 게재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래 놓고서는 북한의 당 기관지 로동신문은 세계의 우수한 신문들이 - 예를 들면 磷酸肥料개발에 관한 김일성의 敎示에 -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고 시치미를 뚝 떼고 보도한다.

과거 몇년동안 이 괴상한 일에 북한이 쓴 돈은 500만불 이상이나 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김일성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에는 費用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평양의 어느 지하철역은 김일성의 청년시절을 그린 거대한 천연색 벽화로 장식되어 있었는데 이 역의 역장 이득순(45세)이라는 자는 자랑스러운 듯이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수령님께서 1978년 9월3일, 우리를 방문하셨을 때 사용하셨던 열차의 칸을 항상 비워 두고 있습니다.」

평양시 중심부에 자리잡은 만수대 언덕을 가면 거기에는 김일성의 지시로 조선혁명박물관이라는 것이 건설되어 있는데 그 박물관 밖에는 24m높이의 자신의 동상까지 세워놓고 있다. 높이 쳐든 오른 팔도 南쪽을 가리키고 있는 이 거창한 김일성 동상에는 매일 학교·직장·공장 또는 집단농장 등에서 북한 사람들이 3,000내지 4,000 명씩 무리를 지어 찾아와서 세번씩 절을 하고 꽃을 바친다.

공장으로 쫓겨난 대학교수

사실 김일성 숭배가 최극단에 달한 북한에서는 이 세상에 김일성 이상 가는 인간이 있을 수 없다. 김일성은 공산주의자이면서도 그에게는 자기보다 앞서 공산주의를 創始하고 실천한 공산주의 선배도 있을 수 없다.

평양의 중앙광장인 김일성광장을 둘러싼 건물들에는 김일성과 「마르크스」 및 「레닌」의 초상화들이 즐비하게 걸려 있는데 김일성의 초상화는 다른 초상화보다 갑절이 크고 게다가 밤이되면 오직 김일성의 초상

화에만 스포트 라이트가 비춰진다.

혹시 잘못 실수로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초상화를 不敬하게 대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치도곤을 맞는다.

우체국 직원들도 김일성의 얼굴이 들어가 있는 우표에 소인을 찍을 때에는 혹시 김일성의 사진이 훼손될까봐 우표 구석에다 조심스레 찍어야 한다.

북한에서는 아직도 집안에서 선반이나 벽을 바를 때는 낡은 신문지를 많이 쓰고 있거니와 그럴 때도 신문지에서 김일성의 사진만은 오려내서 경건하게 모셔 뒤야지 잘못해서 그의 뚱뚱한 얼굴까지 같이 붙었다가 들기면 혼이 난다.

남한으로 내려온 귀순자의 말에 의하면 한 노인은 김일성이 여학생들과 같이 찍은 잡지 삽화를 보고 「김일성수상께서 재미보시는 군」하고 빈정대다가 들켜 당국에 끌려가 온몸이 시커멓게 멍들도록 두들겨 맞았다고 한다. 또 어떤 농부는 술이 취해서 벽에 걸려 있던 김일성의 초상화를 쳐서 떨어뜨렸는데 「反 김일성 감정을 가진 자」라는 죄목으로 3년 징역형을 받았다고 한다.

북한의 최고학부 김일성 대학에서는 어떤 교수가 학생들을 앞에 놓고 훈계하면서, 교육을 받았다고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을 오만하게 대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하고, 김일성을 예로 들면서 수령님이야말로 대학교육을 받지 않고도 성공한 사람의 좋은 예라고 말했었다고 한다. 그러자 김일성의 배경을 그와 같이 「불경스럽게」상기 시켰다고 해서 그 교수는 하루 아침에 대학교수에서

공장 노동자로 전락되고 말았다.

五家作統으로 住民통제

북한에는 오늘날 이와 같이 김일성을 신격화 하려는 운동이 극도에 달하고 있거니와 북한사회도 김일성의 독특한 전체주의에 맞추어 철저히 조직화되어 있다.

김일성은 1958년에 소위 5호 담당제라는 것을 도입, 북한 인민을 빈틈없이 組織化하기 시작했다. 북한 전역 주민들을 대략 5가구 정도로 세분화하고 북한 노동당의 믿을 만한 당원을 하나씩 우두머리에 앉혀놓기 시작했다.

이 북한 노동당 열성당원들은 각자 맡은 5가구 단위조직체에서 개개인의 지식·재능·취미·희망·이데올로기적 성향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이 새로운 조직의 목적은 한국민의 전통적으로 강한 가족관념을 黨이 지배하는 사회에 대한 의무감으로 대치하려는 데 있다.

이와 동시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탁아소와 아동학생 궁전이라는 것들이 도처에 세워져 있는데 이들은 사실상 어린이 양육의 큰 몫을 가정으로부터 인계 받아 맡아 하고 있다.

북한당국은 이와 같은 인류 역사상 전례 없이 가혹한 제도를 북한 주민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러한 제도의 참된 목적을 숨김없이 선전하면서 아예 감추려 하지도 않는다. 가령 내 방에 비치되어 있던 영문 책자에는 이런 귀절이 있다. 「어린이들은 집 단적으로 양육되면 규율있는 조직생활에 익

숙해진다……. 우리는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김일성원수를 열렬히 존경하도록 교육시킨다.」

그러나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김일성은 항상 곁에 붙어 있다. 농촌에서 일하는 노동자든 도시 노동자든 한시도 김일성을 잊도록 허용되는 일은 없다.

북한의 가장 작은 행정단위인 里마다 党史학습실이 있다. 생산대·어머니회·민병대들에도 각기 학습실이 있고, 5戶집단들에서도 김일성의 사상을 공부하는 학습회는 지겹게 계속된다.

농한기인 겨울철에도 농촌 노동자의 일과는 선전실에서 열리는 회합으로 시작된다. 이 회합은 으레 한명의 관리가 김일성의 저작이나 「항일전사의 회상」같은 널리 배포된 김일성 찬양 저작물을 소리내어 낭독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한편 도시노동자의 하루도 예외없이 30분간의 정치학습회의로 시작된다. 게다가 1주일에 두세번씩 저녁식사 후 2시간 이상 계속되는 회합에서는 당 기간요원이 나와 「미제국주의」따위의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주재한다.

2 시간 동안 자동차 20대 목격

북한은 대외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사회일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국민상호간에 내왕이 극도로 억제된 폐쇄 사회이다.

주민들의 여행은 가까운 친척이 죽은 경우같은 특별한 때에만 허용되는 등 극도로 제한되고 있다. 친척이 죽은 경우처럼 특별한 때에도 여행에 필요한 경찰의 허가증과

糧券을 얻으려면 복잡한 수속을 거쳐야 하며 기차나 버스 요금도 보통사람으로서는 자주 탈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비싸다.

외부세계에는 가끔 승용차들이 봄비는 평양거리의 사진이 나도는 수가 있지만 그런 사진은 특별히 제작된 선전용 사진일 뿐이다.

사실 평양처럼 교통난이 없는 도시는 상상하기 힘들다. 오후 3~4시경에 두시간 동안 중심가를 걸으면서 내가 헤아린 자동차의 수는 20대밖에 되지 않았다. 게다가 다른 공산권 국가들에 비해서 평양시의 가장 놀라운 특징의 하나는 자전거마저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평양에 거주하는 한 외국인은 이렇게 말한다. 「북한 주민의 상당수가 자전거를 살만한 여유가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북한 사람들의 생활권을 대체로 가정이나 일터에서 걸어다닐 수 있는 거리 안에 국한시켜야 한다는 정책에서 나온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내외적으로 격리상태에 있는 북한사회에서 가끔 볼 수 있는 피이한 현상이 있으니 그것은 북한사람들이 외국인들에 대해서 심한 혐오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한번은 약간의 외국인 기술자들이 어느 지방도시에 있는 공장에 배치돼 있었는데 하루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그들에 대한 급식이 느닷없이 중단되고 난방의 공급마저 중단돼버렸다고 한다. 이 소식을 듣

고 다른 외국인 하나가 그들을 구하려 차를 몰고 달려가자, 그 도시의 주민들이 그 차에 와르르 달려들어 칩을 뺏어 자동차가 온통 칩으로 하얗게 된 일이 있었다고 한다.

심한 외국인 혐오증

얼마전 남포에서는 한 일본 화물선 선장이 김일성에게 충분한 경의를 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의 선원 전원을 항구의 김일성동상 앞으로 데리고 가서 김일성을 찬양하는 한 시간 길이의 연설문을 읽도록 강요당했다.

어느 영국의 보험회사 대표는 북한 선박과 다른 나라 선박과의 충돌로 인한 배상 문제를 협의하러 평양에 갔었다고 한다. 그 사람은 북한 당국으로부터 배상금 지불을 거부 당한 후 떠나려고 공항까지 나갔더니 공항에서 나가지 못한다고 제지 당했다. 그 사람은 결국 2주일 동안이나 공항 터미널에서 방황하고 있다가 평양 주재 외교관들의 개입으로 간신히 평양을 빠져 나갔다고 한다.

오늘날 북한 사회에서 김일성 개인숭배를 위해서와 같이 돈을 아낌없이 쓰는 또 하나의 분야가 있으니, 그것은 끊임 없이 군사력을 증강시키기 위한 김일성의 노력이다.

인구비례로 볼 때,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군사화된 사회이다. 1,700만도 안되는 인구인데 70만의 정규상비군이 있고 또 250만의 노동적위대와 소위 붉은 청년학생근위대가 있다. 18세에서 45세까지의 모든 남자와 18세에서 35세까지의 모든 독신 여성은 최

소한 1주일에 2시간씩의 정기적인 군사훈련에 참가해야 한다.

평양당국의 발표에 따르면이라도 국민총생산(GNP)의 16%가량이 군사비에 쓰이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20%가 훨씬 넘는다는 것이 권위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시아누크」의 함구무언

김일성에 대한 또 하나의 괴이한 사실은 광적인 김일성숭배운동 덕택으로 북한에서 김일성 이상 더 널리 알려진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김일성을 어렸을 때부터 잘 안다고 나서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김일성은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로 남아 있다는 점이다. 또한 그의 가까운 가족이나 그의 게릴라시절 同志였다는 생존자 몇명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그와 가까워진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 같다.

필자는 전 캄보디아 국가원수 「노르돔 시아누크」의 초청으로 평양엘 갔었고 「시아누크」야말로 외국사람으로서 김일성과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그 「시아누크」조차도 김일성의 어렸을 때나 기타 김일성 개인에 관한 질문을 받으면 함구무언이다.

김일성을 만난 적이 있는 한국인들이나 외교관들은 살이 피둥피둥 췌 김일성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자기 주장을 강력히 내세우는 성격인 것 같다고 평한다.

김일성의 가장 뚜렷한 육체적 특징은 그의 오른편 목 뒤에 생긴 야구공만한 크기의 혹이다. 북한의 모든 간행물에 실리는

김일성의 사진은 모두 이 흑이 보이지 않는 각도에서 찍은 것들이다. 또한 키가 다소 작은 편인 김일성이 키가 큰 손님들과 함께 사진을 찍을 경우, 북한 신문들은 김일성이 더 크게 보이도록 하기위해 사진을 조작해서 실는다.

김일성이 일하는 습관은 매우 불규칙하다. 내각회의가 때로는 한밤중에 시작되기도 한다고 한다. 어떤 영화제작자는 이른 새벽에 김일성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그 사람이 만든 영화가 되먹지 않았다고 호통치는 전화였다고 한다.

300년 낙후된 농촌

북한에서 김일성을 만나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최근에 도착한 아시아의 어느 大使는 신임장을 제정하려고 김일성 궁전에서 소환이 있기를 며칠동안 계속 기다렸다. 그러다가 마침내 들어오라는 전갈이 왔는데, 시간을 보니 새벽 2시였다고 한다. 그 외교관은 부랴부랴 옷을 갈아입고 기다렸으나 계속 접견을 연기하는 전화만이 여러차례 오더라는 것이었다. 그 사람이 마침내 김일성 앞으로 안내된 것은 그날 오후 늦게였다고 한다.

북한에 주재하는 외국 외교관 및 상인들과 더러 만나보았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김일성을 멸시하고 혐오하는데다 가난한 북한 사람들의 생활상태에 대해 연민마저 느끼는 것같았다. 한 西歐 실업인은 이렇게 말했다. 「평양은 帝政러시아 때의 소련도시와 비슷합니다. 생활양식이나 소비용품으로 볼

때, 평양의 생활수준은 2차대전 직후 가난에 쪼들릴 때의 유럽도시들을 방불케 합니다. 게다가 그나마 평양시민들의 생활이 북한 전역의 생활을 반영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방도시들을 보면 1920년대 또는 1930년대 유럽 소도시들과 비슷합니다. 시골로 가 보면 더욱 형편없습니다. 어느 공산권 외교관이 나를 보고 북한의 농촌이 300년쯤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할때 내가 300년이라는 것은 너무하고 200년쯤 뒤졌을거라고 했지요. 그랬더니 그사람은 「당신은 잘못보고 있소」하고 화를 내더군요.

내가 평양에 있는 동안 북한 당국자들은 김일성의 70회 생일인 82년 4월 15일 김일성을 더욱 추켜 올리기 위한 거대한 「主体塔」의 건립을 서두르고 있었다. 평양시 한 북관을 가로지르는 대동강가에 세워지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기념비 꼭대기에는 불꽃이 밝혀질 예정인데 나를 공항까지 전송나온 안내인은 「이 불꽃은 세계를 비추는 햇불로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한국에는 옛날부터 「세상의 부귀영화는 일장춘몽」이라는 속담이 있다. 김일성은 그 거대한 주체탑에 햇불이 켜지는 날 틀림없이 자기를 추켜 올리는 찬양의 노래 소리를 듣고 자기의 권세가 앞으로도 무한히 지속될 것같이 회심의 미소를 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자기보다 앞서간 공산세계의 두 선배 즉, 「스탈린」과 「모택동」도 죽은지 불과 몇년만에 국민들로부터 매도와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을 잠시나마 방문해보니 김 일성이나 그의 아들 김정일이라 해서 앞서 간 두 공산두목보다 더 재수가 좋으리라고 생각할만한 근거는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 외부사람들로서는 그들이 일장춘

몽에서 깨어날때 - 어차피 꿈은 끝나고 마는 것이니까 - 그 깨어남이 북한이나 남한의 국민, 그리고 나머지 세계에서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 되지 않기를 빌 뿐이다.

〈정신교육 1문 1답〉

문) 공산주의자들이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바는 무엇인가?

답) 현존하는 비공산주의 정부를 타도하고 공산당이 정권을 탈취하여 공산당 1당의 독재체제를 수립하는데 있다.

軍 生活과

우리의 마음姿勢

대 위 김 택 성

〈제3975부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이 사회라는 단어에는 여러 의미가 있으나 우리 인간이라는 개체를 두고 볼 때에 이 사회는 바로 인간을 두고 하는 말이다. 즉,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인간이 요구하는 것이다.

사회는 바로 사람이 사는 곳이다. 그리고 이 사회는 사람이 이루고 있으며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기를 원한다. 즉 이렇게 사회가 요구한다는 것은 바로 사람이 요구하는 것이다. 보다 안전하고 문명적, 문화적 발달속에서 평화와 자유속에서 살고자 함이 바로 그것이다. 이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거의 단언하여 이는 인류의 궁극적 목적인 것이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인류사회의 일들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그 의미는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하게 하는 것일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우리가 살아온 과정과 우리가 소속되어 왔었던 집단들을 살펴보자.

처음 우리 태어날 때, 그때는 오직 두 사람의 자손, 그리고 곧 그 가족의 일원이 되고, 자라고, 말하고, 걸어다닐 때에는 동네와 이웃간의 친구가 되고 더 자라서 학교에 다니게 되면 그 한 사람은 여러 친구의 동료나 반원 그리고 그룹의 일원으로 그 소속범위가 넓어진다. 그리고 그가 나이를 먹어 갈수록 알고 소속하여가는 집단이 많아진다. 그만큼 그 사회원 개체가 서로 얽히고 짜여져서, 혼자서 만든 결코 이 사회를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는 자연적이고 필연적이며, 이 얽히고 섞힌 사슬들은 이제 지구촌에서 서로를 묶고 있다. 지구 저편 우리나라의 정반대편에 있는 아르헨티

나에 있었던 그 전쟁은 우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을까? 아무런 영향이 없을까?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이 세계 곳곳에 여러 영향을 주고 있음을 우리는 인간 문명의 이기를 통하여 하루하루 빠짐없이 그 즉시 즉시 보고 듣고 있다. 이런 사실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는 지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중이다. 그 기간은 짧은 것도 긴 것도 아니다. 단지 어떤 이들은 지루하게 느낄 뿐이고 어떤 이들은 헛되이 보내버려야 하는 기간으로써 생각할 뿐이다. 하지만 시간과 일들이 사람들의 인생을 이루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들의 마음자세가 상당히 많이 잘못 형성되어 있음을 본다. 우리 지금 젊은이들은 20대의 초반이다. 이는 인생에서 가장 힘찬 기간이라고 다들 알고 있다. 가장 두뇌가 활발히 움직일 뿐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가장 강건할 때이다.

어찌 생각하면 이 세월에 우리 자신들만을 위한 시간이 되지 못하는 것이 아쉬울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가장 강건한 이들이 국방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국방을 우리들 아버지에게 맡길 것인가. 아니면 우리들 동생들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겠는가.

세월은 빠르게 가고 시간에 비해 국제정세는 급변하며, 변화는 날아간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급히 변해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생애 대한 희망과 사회에 대한 꿈을 꺾어 버린지 벌써 오랜 것을 보는 것은 참으로 마음 아픈 일이다.

아직 그들 나이가 얼마인가. 그들 육체에 머무른 힘이 무한한데……. 그들에게 이 세상이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사회적, 과학적으로 어찌 돌아가는지를 알게 하는 그 어떤 것이 빠져 있음을 느끼게 된다. 서운함 정도가 아니라 이런 올바른 가치관과 자신이 속한 위치를 정확히 보는 눈이 없음이 강하게 한탄스럽고 때론 슬프기도 한 것이다.

그 한사람 젊은이의 눈동자 속에서 그의 인생을 볼 수 있고, 그의 미래, 그가 속한 사회의 미래상, 그가 사는 나라의 미래, 그 더욱 나아가서는 인류의 앞날을 볼 수가 있기에 크게는 우리 인류의 장래요, 더 급하게는 우리나라의 장래의 사회를 더욱 생각하여 보는 것이다.

우리 또래의 사람들이 자라온 환경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도 그리 지나친 말이 아니리라 본다. 그런 여러 사정들이 우리 젊은이들을 대부분의 경우에 조금은 잘못되고 그릇된 가치관과 세계를 정신없게 하는 문화 속에 휩쓸려 들게 했음을 우리 자신들이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막아야 한다.

그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싶다. 사실 우리는 우리에게 자라면서 주어진 지식과 습관과 성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키워온 환경이 거의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보아도 지나친 것이 아닐만큼, 우리의 판단과 적응, 대처하는 성향이 자신의 살아온 과거를 표현하고 있음을 본다. 우리는 이런 환경에서 살아와서 이런 인류의

흐름속에 있어도 자각하지 못하는 것이다. 바다에서 그 흐르는 조류를 불러면 우리는 높은 하늘로 올라가야 한다. 즉 이 사회의 거대한 흐름, 정치, 문화, 사회, 경제, 군사, 종교의 거대한 흐름을 관조하여 본다면 우리 인류가 가는 방향을 알 수가 있으리라.

우리는 그 속의 한 나라, 대한민국이요, 그 안의 한 지역이요, 작은 한 사회속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자신 한 사람의 인생만을 바라보는 좁은 눈을 키워서 큰 흐름을 본 후에야 자기의 한 작은 인생과 자신의 한 작은 말은 임무나 일이나 사상을 그 흐름에 대치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마치 큰 댐 밑에 멋지게 살고자 집을 짓고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정원을 설계하고 있는 것이다. 그 댐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에 넣지 않고서 자신의 일에만 열중인 것이다. 이는 우리가 객관적인 눈으로 보아서 분명 그릇되고 허무한 일임이 분명하다는 것을 누구나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 자신의 인생이나 사상에 있어서는 이를 척응치 않고 있는 것이다. 군 생활은 대체로 반복되는 따분한 일과로 되어 있다.

그리 기쁜일도 많지않고 지루하고 불만스런 것이 더욱 많고 때로는 흔히들 말하듯이 배운바 하나도 없이 썩어서 몸버리고 제대한다. 이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제일 안된 일은 우리 모두가 부정적인 생각에 젖어 있는 것이다.

어떤 개선책이 나온다 해도 그것을 고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나 자신부터 말할

만큼 이 부정적인 사고 성향이 넘쳐 있을 을 본다.

그러나 이런 사고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은 아니라고 본다.

우리나라 젊은이라면 어떤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다 군대를 거쳐간다. 그게 이 사회에 대한 경험없이 거의 대체로 순수한 학생이던 때로부터 곧장 오거나 아니면 조금 사회에 대한 경험이 있다해도 아직은 그 물에 젖지 않은 그런 상태이다. 그러나 그들은 군에 들어와서 사실을 강요받는다.

그리고 심한 반발이 마음속에 일고,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도 이는 군대라는 체제에 눌리어 자신들 마음속에서 다른 형태로 저장되어 버린다.

인간에 대한 불신, 분노가 바뀐 불신, 그리고 겉으로만의 친화, 사회에 대한 불신, 사회전반에 대한 불신임, 이런 것이 사람의 마음을 자기만의 세계로 가져가버리는 것이다. 이 불신임이 쌓이면 그 기간이 많을수록 우리는 자신을 강한 강보에 쌓아 넣어 버리게 된다. 이것이 우리를 이기주의와 자신만의 인생, 자신만의 꿈으로 일관되게 하는 것이다. 타인과는 그 자신의 것을 채우기 위해 곁에 참석해주기를 원하는 것으로써 그 관계를 그쳐버리는 겉으로 만의 친화속에 있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군에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익히고 무슨 생각이 박혀서 나가게 되는가? 우리 군은 사회를 위해 좋은 자질들을 키워주고 있을까? 젊은이들만 모인 이런 곳이 그 어디에 있을까? 이 젊음과 활기 패

기가 있을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는가?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닌, 이 나라와 사회, 자신의 가족, 그리고 자신을 지키며 한동안 이 젊은 때를 국방을 위해 희생하기 위해 우리가 지금 이 군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 생활 하나하나를 편안하게 보내는데 힘쓸 것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함이 옳고 또 그목적에 합당한 시간들이 될 것이다. 이 마음자세가 바람직하리라.

우리는 힘써 노를 저어도 이 세계의 흐름을 따르기가 사실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의 삶은 자신이 어디에서 출발했으며, 지금 어디에 있고, 또 어디로 갈 것인가를 알지 못한다면 그 세파에 밀리어 정말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길목, 허망한 골짜기에 빠져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이는 우리의 마음 자세에 그 방향키가 있다. 우리의 습관에 그 동력이 있다. 우리가 이 세계의 취한듯한 문화에 젖어 넘어가 버리지만 말고 붙들고 보아보자. 우리는 주간지, 소설, 전문잡지 3권의 책이 있으면 어떤 것을 먼저 보는가. 기실 주간지이다. 그러면 그것을 읽은 후 나머지 책들을 읽을 시간이 우리에게 남아 있던가. 아님이 틀림없다. 그리고는 또 언젠가 이런 같은 경우에 또 이르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역시 그러고 있는 것이다.

이리하여 우리에게 있는 지식은 그저 주간지 속의 유희와 쾌락을 넘어서지 못하고 마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전문지식을 가져보자. 우리의 국방이 처한 위치와 우리의 조세부담으로 우리가 과연 안전하게 우리의

편리하고, 안락하고, 자유스런 인생을 꿈꿀 수 있는 나라를 사회를 꾸릴 수 있겠는지도, 그리고 이 자세와 이 우리의 힘으로 그들을 막을 수 있는지, 자신의 마음에 솔직히 답하여 보자.

만약 우리가 이 물음에 나는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과연 누가 이를 세우고 지킬 것인가. 나 하나 짚어야라고 나 자신도 말하지만 누구의 마음속에는 그 “나 하나 짚은 빠져도……”하는 생각이 없겠는가?

우리는 우리들 자신의 젊음을 내세우기 위해 이 곳에 머무르며, 그 의무를 하고, 있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가정과 사회 그리고 나라를 위한 것이다. 우리가 사회에 있었을 때, 우리보다 앞선 선배들이 그렇게 하였었고, 또 후배가 그리 할 것이다. 이렇듯이 모든 사람이 그 젊은 시절을 불꽃으로 피운다든지 연기로 사르든지 꼭 거쳐야 하는 곳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 생활이 연기로 사르는 것보다야 불꽃으로 피우는 것이 낫다는 것을 너무도 확실히 안다.

그러면 어찌하여 연기로 사르는 사람들이 많은가. 우리는 큰, 아주 큰 마음의 벽돌을 넘어설 수 있어야 한다. 그건 이 세상의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으며 나 자신은 어디에 섰는가를 알아야 한다.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바로 큰 댐 밑에 집 짓는 일처럼 이런 일이 어찌 계속되어가도 보고만 있을 것인가. 역시 우선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어디선가 마음을 옳게 한 사람들이 먼저 실행하여야 한다. 그 교육은 누가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눈들이 뜨이는
것 밖에, 자신의 일에 열심히하여 우선 자
신의 위치를 지키고 보라. 지금 인류 사회
가 어디로 가고 있으며, 우리의 위치가 어

디인가를,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그리고 누가 해야하는가를……, 바로 우
리 자신이다.



軍 生活과 Recreation



대 위 김 홍 기

〈공군사관학교 교관〉

모름지기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고 충실한 삶을 찾고자 한다. 이러한 소원은 옛날이나 현재나 미래나간에 한결같이 인류가 추구하여 왔던 것이다.

그러기에 문화를 창조하는 여가는 노동에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로서 우리 인간생활에 필요불가결한 것이었다. 레크리에이션은 민주 사회를 영위하는데 있어서 인간의 기본적인 요구로서 아득한 옛날부터 인간이 즐겼던 여가의 활동인 것이다. 더우기 오늘날 기계문명의 발달로 말미암아 여가시간이 증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과거에는 어느 특수한 소수인에게만 독점된 여가는 오늘날 남녀노소 사회적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누구나 이 여가를 향유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갖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여가의 분배가 국민 대중에게 동등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생활이 더욱 복잡해감에 따라 고된 생활에서 시

달리며 답답한 마음과 Stress를 풀어 줄 사이도 없이 항시 고달픈 생활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면을 감안해 볼 때 우리 군 사회에서도 레크리에이션은 반드시 필요한 활동으로 생각된다.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토를 방위하는 것은 국군에 부과된 중대한 사명이다. 이 거룩한 사명을 완수하는데 있어서 군대는 항상 임전무퇴, 백전백승의 신념을 가지고 전투력을 강화하는데 모든 힘을 기울이게 된다. 그러기에 군대생활은 고된 훈련과 가혹한 시련이 따르기 마련이다. 이러한 군무생활은 흔히 격렬한 신체적 활동과 정신적 긴장을 가져오는 생활이다.

그러나 이 벅찬 생활에서 벗어난 자유시간의 활동 즉, 레크리에이션은 군대생활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불가결한 생활의 일환임이 아닐 수 없다.

엄격한 군대생활은 항상 긴장, 구속, 임무, 책임, 강제가 따르기 마련이며 레크리

에이션은 이와는 반대로 이완(Relaxation), 해방, 자발적인 활동으로 이끌어 주는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서 군무생활과 여가생활은 정반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이 양자는 마치 수레바퀴와 같이 병행하면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원래 사람은 기계와 달라서 항상 긴장된 생활만을 되풀이 할 수 없다. 긴장의 연속은 권태감을 일으키고 모든 일이 비능률적으로 되며 사기를 잃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훈련이 고되고 벽찰수록 사병들에게 기분을 전환시켜 원기를 회복할 수 있는 레크리에이션을 제공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것은 호손(Hawthorne)의 실험에서 이미 밝혀진 것과 같이 생산에 종사하는 노무자에게 적당한 휴식과 레크리에이션을 함으로써 작업능률과 생산향상을 가져 왔다고 한다.

이 원리는 군대생활에도 작용되는 것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군대 레크리에이션은 내일의 훈련과 전투력을 높이는데 그 원동력이 되는 여가활동인 것이다.

위에 적은 바와 같이 우리 군에 반드시 필요한 레크리에이션을 어떠한 방향으로 가져가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려고 한다.

군대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특수한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군기, 사기, 단결을 으뜸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군대의 레크리에이션은 이러한 점에 기여할 수 있는 방

향으로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로 레크리에이션을 통해서 사기를 높일 수 있다.

사기 왕성한 군대는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이를 즐기어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그러나 사기를 잃은 군대는 무력할 뿐이다. 그러기에 군대의 사기는 바로 전투에 있어서 승패를 좌우한다.

군대에서 즐겨 부르는 군가가 사기를 북돋우는데 큰 힘을 주고 있다. 노래를 즐겨 부르는 군대는 명랑하고 사기 왕성하며 한 마음으로 귀일하게 된다. 실망에 잠겼을 때 서로 같이 노래를 부름으로써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갖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예를 흔히 본다.

사병들에게 즐거운 레크리에이션을 마련해 준다면 그들이 흔히 가질 수 있는 욕구 부족, 고독, 불안, 피로, 권태, 향수 등과 같은 사기를 저하하는 악조건을 완화하고 해소하는데 효과를 주는 것이다.

한 부대에서 사병들에게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즐거운 활동을 실시한 결과 즐겁고 명랑해지며 활기를 띠게 되었다. 그리고 가끔 있었던 탈영병도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군대의 레크리에이션은 이를 사병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사병의 사기를 높이고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복지를 증진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둘째로 레크리에이션을 통해서 협조, 단결심을 길러준다.

레크리에이션 활동에는 개인적인 활동도 있지만 대개는 여러사람들이 모여 서로 어

울리면서 즐기는 집단적 활동이 많다. 집단적 스포츠나 레크리에이션 활동은 팀을 구성하고 있는 사병으로 하여금 상호 협력과 종적, 횡적으로 긴밀한 유대를 갖게 되며 협력 체제를 갖추게 된다. 그리고 소속의식이 강화된다.

예를 들어보면 한 클럽의 사병들이 한곳에 모여 음악, 연극, 스포츠, 담화, 포오크댄스, 놀이 등과 같은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서로 즐기며 웃음을 나누는 가운데 각자가 평소에 가질 수 있는 우월감이나 편견, 질투, 사회적 지위, 불화, 불안, 초조, 긴장 등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친선, 우정, 이해, 협조의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서로 단합하게 된다.

미국의 지역사회 레크리에이션(Community recreation)의 주된 목표도 실은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협조와 단합을 기하는데 좋은 구실을 하고 있다.

소년 소녀단, 4H클럽, 부인회 같은 사회단체, 종교단체, 봉사단체에서 스포츠나 레크리에이션을 받아들인 이유는 실로 회원간의 소속의식과 상부상조의 협동정신을 강화하는데 있는 것은 사실이다.

군대의 레크리에이션은 모름지기 사병들의 소속의식, 공동의식을 강화하고 상호간의 협동정신과 굳은 단결을 돕는 좋은 구실을 하는데 그 의의와 가치를 찾도록 하여야 한다.

세째로 명량한 분위기의 조성에 초점을 두어야겠다.

군대의 생활에서 내무생활과 자유시간은

사병들에게 가장 즐겁고 흐뭇한 시간이다.

이 여가를 이용하여 각자의 취미에 따라 신문, 라디오, TV, 독서, 바둑, 장기, 음악감상, 게임, 스포츠 등을 즐길 수 있다. 그리고 내무반, 분대, 소대, 중대단위로 그룹을 짜서 스포츠 놀이, 포오크댄스, 합창, 연극, 장기차랑 등 다채로운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오락활동은 사병들에게 그들의 흥미와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유일한 기회이며 가장 흥겹고 위안을 가져다 주는 생활이다.

사람은 각자의 흥미와 욕구를 찾고자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기꺼이 참가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에 참가함으로써 만족을 느끼며 순수한 마음과 동심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이러한 심경에 달한 사람의 마음에는 모든 고민, 불안, 괴로움이 사라지고 오직 즐거운 삶에 대한 의욕이 생기며 명량한 기분과 아울러 여러 사람과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생활을 즐기게 된다.

따라서 군대 레크리에이션은 이러한 건전한 취미와 오락을 제공함으로써 내무생활을 화기애애한 무드로 이끌어 주도록 한다.

네째로 여가선용으로 교양을 높여야 할 것이다.

고된 훈련에서 벗어난 뒤에 사병들의 여가가 무익하게 이용될 수는 없다. 그들에게 부여된 귀중한 자유시간인 여가를 현명하고 유익하게 이용하여 이를 건설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으로 이끌어 준다. 이것은 바로 사병들의 교양 향상에 많은 도움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면 여가를 어떻게 보람있게 선용하여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우선 사병에 대한 여가교육에 역점을 두어 실시되어야 한다.

인간생활에 있어서 여가에 대한 지식 이해 방법, 기능, 습관, 태도를 길러줌으로써 그들은 여가를 소중히 여기며 건전하고 가치있는 활동을 배우게 된다.

오늘의 여가는 내일의 창조적 활동에 보탬이 되는 것이라든가 새로운 인식을 갖도록 한다면 군대 복무를 끝마친 뒤 사회인으로서 바람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다.

문화 국민이란 여가를 소중히 여겨 이를 유익하고 현명하게 이용할 줄 아는 국민으로서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국민을 말한 것이다. 그리고 행복한 인간이란 여가를 선용할 줄 아는 사람을 뜻하고 있다.

다섯째로 긴박감(Stress)의 해소이다.

현대생활은 날이 갈수록 더욱 복잡해지며 항상 긴장, 초조, 불안에 쌓이고 있다. 그러기에 현대생활은 긴장과 불안의 시대라고 한다. 시달림을 받고 있는 현대인들은 현실도피로서 음주, 극장, 경마, 유행가 등 관능적 향락적 퇴폐적인 오락으로서 일시적이나마 현실을 잊으려고 한다.

사회가 근대화 할수록 현실에서 도피하려는 경향이 심하다. 그리고 요즘 현대병이라 일컫는 고혈압, 심장병, 동맥경화증, 신경통, 노이로제의 원인이 현대생활에서 오는 Stress에 기인되고 있다.

흰 쥐를 하루동안 계속해서 소음을 들려

주었더니 흰 쥐는 결국 죽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죽은 흰 쥐의 사인을 조사한 결과 쥐의 부신이 비대 됐으며, 위에 많은 금이 생겼다는 실험 결과가 전에 발표된 적이 있었다.

소음이나 Stress는 비단 쥐에만 한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에게도 좋지못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하와이에 있는 어느 정신병환자를 대규모로 수용하고 있는 한 병원에서는 정신병환자에게 그 대부분의 일과를 치료적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으로 실시한다고 한다.

그 이유는 레크리에이션이 환자에게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회복률이 대단히 좋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정신과 의사들은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마음의 안정과 정서의 순화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역설하면서 현대생활에 있어서 레크리에이션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였다.

다행히 스포츠나 레크리에이션은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즐거운 활동이기 때문에 항상 호뭇하고 만족감을 준다.

따라서 레크리에이션은 현대인의 건전한 배출구며 안전변과 같은 작용을 하고 있다.

군대의 레크리에이션은 군무에 여러가지 어려움을 받고 있는 장병들에게 유일한 안전변이 되며 정신적 긴박감을 해소하는데 좋은 구실을 하게 된다.

끝으로 여섯번째로는 인간관계의 개선에 방향을 두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고도화된 기계문명 시대에 있어서

우리 인간은 현실사회로부터 차츰 소외되고 있으며 아름다운 인간성마저 잃고 있다.

만일 우리가 참다운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것은 각자의 여가시간과 여가활동에서 기대할 수 밖에 없다.

좋은 인간관계란 사람들이 조화된 생활을 이루며 서로 일하고 서로 웃으며 즐기는 것을 말한다.

그러기에 각자는 타인의 견해와 의견을 이해하고 서로 믿고 존경하며 동정하고 서로 돕고 사는데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이 여러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레크리에이션을 즐기는 가운데 현실사회로부터 동심의 세계로 되돌아가는 아름다운 분위기와 아울러 친선과 우정에 넘친 인간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고 확신하고 싶다.



新羅의 忠臣 朴堤上

편 집 실

王位에 오른 訥祗

訥祗가 實聖王을 弑害하고 왕위에 오른 것은 417년이었다.

눌지왕은 奈勿王의 아들인데, 실성왕은 내물왕에 대한 원한이 철저하여 그의 아들을 다 죽이려고 이미 두 아들은 고구려와 왜국에 볼모로 보냈고, 또 눌지를 해치려고 고구려 사람으로서 그 전부터 잘 아는 자를 불러 눌지를 죽이라고 약속을 하고, 눌지에게 그 사람을 맞아오라 하였다. 그러나 고구려 사람이 눌지의 신상이 맑고 아담한 것을 보고는 눌지에게 사실대로 말하기를 「이제 그대를 보니 차마 해칠 수 없다」고 하였다. 죽음을 면한 눌지는 돌아와서 곧 왕을 원망하여 시해하고 스스로 왕위에 오르니 눌지왕이다.

실성왕은 미추왕의 동생인 大西知의 아들이라서 402년에 내물왕이 죽자 그 아들이 어

리므로 왕위에 올랐다. 실성왕은 즉위하기 전인 392년(내물왕 37년)에 고구려에 볼모로 갔다가 401년에 귀국하였는데, 그는 항상 내물왕이 자기를 고구려에 볼모로 보냈다는 것을 한스럽게 여겨 그 감정을 풀고자 하였다.

실성왕은 즉위하자 왜국과 수호하고 내물왕의 아들 미사흔을 볼모로 보내고, 412년에도 역시 내물왕의 아들 卜好를 고구려에 볼모로 보냈으며, 417년에는 내물왕의 아들 눌지를 없애려다 도리어 죽음을 당한 것이다.

朴堤上의 죽음

왕위에 오른 눌지왕은 외국에 볼모로 가 있는 복호와 미사흔의 생각으로 한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 그래서 눌지왕은 여러 신하들과 나라 안의 어질고 지혜 있는 세 사람을 불러 연회를 베풀고 물었다.

「두 아우가 볼모로 외국에 가 있으니 짐이 이렇게 부귀한 자리에 있어도 두 아우를 잠시도 잊을 수 없소. 누가 짐을 위하여 두 아우를 보게 할 수 있겠소?」

그러나 어질고 지혜 있는 세 사람이 대답하였다.

「신 등이 들으니, 歙良州 太守 박제상은 婆娑王의 5대손으로서 굳세고 용감하며 지모가 있다 하옵니다. 박제상을 불러 의논하시면, 전하의 근심을 풀어드릴 것입니다.」

눌지왕은 즉시 박제상을 불러 의논하였다. 그러자 박제상이 아뢰었다.

「충신은 일에서 어려움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의리로는 죽음도 사양하지 않는다 합니다. 만일 어렵고 쉬운 것을 따진 뒤에 행하면 이것을 충성치 못한다 하는 것이요, 죽고 사는 것을 가린 뒤에 움직이면 이것을 용기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신이 비록 못났지마는 대왕의 명령을 욕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박제상은 곧 사신으로 고구려에 들어가 고구려왕에게 간절하게 말하였다.

「신이 듣건대, 이웃 나라와 교제하는 도리는 정성과 믿음 뿐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현명한 임금의 신의를 숭상합니다. 복호는 저희 임금의 아우인데 귀국에 볼모로 있는 지가 거의 6년이 되었을 때, 저희 임금이 형제의 그리운 생각이 간절하여, 대왕의 은혜 배부심을 갈망합니다. 대왕께서 이를 허락하여 주시면 저희 임금이 대왕의 높은 신의를 덕으로 여길 것입니다. 修好함은 質子에 있는 것이 아니요, 복호가 귀국에 있는

것은 마치 아홉마리 소에 탈 하나와 다름바 없어 실로 이익이 없는 것이니 대왕께서 생각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마침내 고구려왕이 함께 돌아가도록 허락하므로, 박제상은 복호와 함께 신라로 돌아왔다. 눌지왕은 매우 기뻐하였다. 충성스런 신하 박제상이 있었기 때문에 6년간이나 고구려에 볼모로 가 있던 복호가 돌아오게 된 것이다.

눌지왕은 크게 기뻐하면서 복호와 박제상을 위로하였으나, 또 한 동생이 왜국에 볼모로 가 있기 때문에 마음은 끝내 편하지 못하였다.

「내가 두 아우를 좌우의 팔과 같이 생각하는데, 지금 다만 한팔 밖에 얻지 못하였으니 이를 어찌하리오.」

눌지왕이 탄식하자 박제상이 이렇게 아뢰었다.

「신이 비록 못났사오나 몸을 이미 나라에 바쳤사오니, 어떠한 어려움도 사양치 않겠습니다. 다만 고구려는 큰 나라이고 임금도 어진 임금이어서 신이 한 말씀으로 깨우쳐 알게 하였을지라도, 왜인은 말로써 깨우칠 수 없고 제책을 써야 되겠습니다. 신이 죄를 지어 도망한 듯이 할 것이오니, 대왕께서는 신의 처자를 잡아 가두고서 그 소문이 왜국에까지 들리게 하소서.」

박제상은 이렇게 말하고, 집에 들러 처자도 만나 보지 않은 채 粟浦에 다다라 배를 타고 왜국으로 향하였다. 그때 박제상의 아내가 울포에 다다라 이미 바다에 뜬 배를 향해 크게 통곡하면서 「잘 다녀오시오」라고

말하자 박제상이 소리쳐 대답하였다.

「나는 왕명을 받들어 적국으로 가니 이미 죽음을 각오하였소. 그런데 어찌 당신과 다시 만나 보기를 기약할 수 있겠소.」

드디어 박제상은 왜국에 닿아 왜왕을 만났다.

「저는 신라 사람이운데, 신라왕이 난폭하여 제 부모와 형제들을 죄도 없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도망쳐 왔습니다.」

박제상은 왜왕에게 마치 나라를 배반하고 온 것같이 행동하였는데 이보다 앞서 백제에서 왜국으로 망명해 온 자가 있어 「신라가 고구려와 함께 왜를 칠 계획을 한다.」고 하며, 왜왕이 해안경비를 강화시켰는데 마침 고구려 사람이 침공해와 왜병을 죽였으므로 왜왕은 그 백제 사람의 말을 곧이 듣게 되었다. 이에 박제상이 오자 왜왕이 처음에는 의심하였으나, 박제상의 처자가 모두 잡혀 간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박제상이 실제로 나라를 배반한 줄로 믿었다.

나는 신라의 臣下

왜왕은 박제상의 계책대로 군사를 동원하여 신라를 치기로 하고, 박제상과 미사흔을 길잡이로 삼아 바다 가운데의 한 섬에 이르렀다. 박제상은 미사흔과 더불어 날마다 배를 타고 유람하는 것 같이 하여 왜인들이 의심하지 않게 하였다.

어느 날이었다. 박제상이 미사흔에게 가만히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권하였으나 미사흔이 차마 혼자 떠나지를 못하였다.

「어서 떠나시오. 만약 당신의 목숨을 구원하여 대왕의 마음을 위로한다면 이보다 더 만족한 것이 있겠습니까? 어찌 살기에 미련을 두리까! 이제 우리가 다 같이 가다가 왜인이 알아차리고 쫓아오면 함께 죽을 뿐 아무 이익도 없을 것이나, 내가 남고 당신만 떠난다면 왜인이 설사 발견하더라도 힐문하여 조사하는 사이에 당신은 멀리 갈 것이므로 추적하여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박제상은 이렇게 말하여 미사흔을 가만히 도망쳐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자신은 떠나지 않고 왜인들의 행동을 살폈다. 그때 신라 사람 康仇麗가 왜국에 있었는데 미사흔을 쫓아 본국에 돌아가게 하고, 박제상은 혼자 배 안에서 자며 일부러 늦게 일어났다.

왜인들은 미사흔이 도망친 것을 정탐하여 알고는 박제상을 결박해 놓고 미사흔을 추적하였다. 그러나 짙은 안개 때문에 미사흔을 추적하지 못하고 말았다. 왜왕은 박제상이 자기를 배반한 것에 노하여 국문하였다.

「나는 신라의 신하로서 우리 임금의 소원을 이룬 것 뿐이다.」라고 박제상이 말하였다.

왜왕은 더욱 노하여 호통쳤다.

「네가 이미 나의 신하가 되고서 다시 「신라의 신하」라고 칭하니 반드시 벌을 내릴 것이나, 네가 「왜국의 신하」라고 일컫는다면 반드시 큰 祿으로 상을 주리라.」

그러나 박제상은 왜왕을 노려보며 말하였다.

「차라리 신라의 개나 돼지가 되면 되었지

왜국의 신하는 되지 않겠으며, 차라리 신라의 매로 치는 형벌을 받을 지언정 왜국의 벼슬과 녹을 받지 않겠다.」

박제상의 이 말에 왜왕은 더욱 노하여, 그의 발바닥 살갓을 벗기고 갈대를 뻗 갈대밭 위를 걸어가게 하면서 다시 물었다.

「너는 어느 나라 신하냐?」

「나는 신라의 신하다!」

박제상이 이와 같이 대답하자 왜왕은 그의 뜻을 굽힐 수 없음을 알고, 木島가운데에서 불태워 죽이고 말았다.

한편 왜국에서 도망친 미사혼은 무사히 바다를 건너 꿈에 그리던 신라 땅에 닿았다. 미사혼은 함께 온 강구려를 시켜 눌지왕에게 그들이 돌아온 것을 고하게 하니, 왕은 매우 기뻐서 신하들에게 마중 나가게

하고, 친히 南郊까지 나아가 맞이하여 서로 손을 잡고 울었다.

눌지왕의 형제가 모두 모여 연회를 베풀면서 즐기고, 왕이 스스로 가사를 지어 그의 뜻을 폈는데 향악의 憂息曲이 그것이다.

그러나 눌지왕은 왜국에 있는 박제상이 충절을 지키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애통하면서 그에게 大阿湊을 贈職하고 그의 가족에게 후한 상을 내렸으며, 미사혼을 그의 둘째 딸에게 장가들게 하였다.

또한 박제상의 아내는 그 두 딸을 데리고 鵝述嶺에 올라 멀리 바다를 바라보며 슬피 통곡하다 죽으니, 나라 사람들이 애도하여 사당을 세워 제사지내며, 神母祠라 이름하였다.

쉽고 바른 행정용어

향상되는 업무능률

成婦人의 志操

이조 21대 영조대왕 말 경상도 창령 땅에 하륜이라는 선비가 있었다.

일찌기 조부가 성균관 대제학으로 봉직하고 있으니 하 선비도 나이 17세에 사서삼경을 다 완독하고 과거준비에 불철주야 고심하고 있었다.

살을 도려내는듯한 겨울도 다 가버리고 따뜻하고, 우주만물은 진록색으로 옷을 입고 곳곳마다 봄의 향기를 자랑하는 온갖 꽃이 만발하고 내 세상 만났다는 듯이 이곳 저곳으로 날아다니며 춤을 추고 날아드는 벌과 나비, 봄을 마음껏 노래하고 춤추는 각종 새들, 어느 고을보다 모두 행복하기만 하다.

하루는 춘몽을 못잊어 동산에 산유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자기집에서 몇집 떨어진 어느 집앞을 지나다보니 그집 울타리에다 빨래를 널고 있는 한 부인이 눈에 뜨인다. 그런데 그 부인을 유심히 보는 순간 하도령은 그 자리에 늘어 붙어 버렸다.

그도 그럴것이 그 부인은 인물도 절색인데다 몸매라든지 행동거지가 도저히 인간세의 사람은 아니고 천계에서 내려온 신선

선녀임에 틀림없이 곱다.

그 부인도 일을 다마치고 들어가면서 이쪽을 바라보더니 집으로 들어가 버린다. 그 순간 하도령은 가슴이 찡하고 고동치며 얼굴이 달아오른다.

그날부터 이상하게도 지나깨나 그날에 만났던 그 부인의 모습만 떠오르고 눈에 아른아른하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 구미가 떨어져서 밥도 먹지 못하게 됐다.

하도령집 부모님은 물론 온 가족이 큰 걱정이다. 몇달 남지않은 과시준비도 준비려니와 아무것도 먹으려 하지 않고 단식을 하고보니 혈기가 없어지며 모든 의지를 잃어버리게 된다.

백약이 무효요 누가 무슨 말을 물어도 묵묵부답이다.

하루는 어머니 김부인이 걱정되고 답답한 마음을 어찌할 바 없이, 아들에게 사정을 한다.

「애 - 윤아, 너 도대체 어찌 할 작정이냐? 무슨 말이고 다 들어 줄터이니 이 어미에게

말해 보아라.]

여러번 어머니가 성화를 대고 졸라대니까 하는 수 없는지 결심을 보이더니 말을 한다.

「어머님, 양반의 가문에 태어나서 글을 열심히 읽어 과거에 장원급제해야 할 줄 압니다. 하온데 이것이 억지로 되지 않으니 어이하겠습니까? 용서하십시오.」 말하며 며칠 전에 만났던 이웃집 부인의 이야기를 한다.

「오 - 그랬었구나. 나도 네 병이 보통병이 아닌 것으로 짐작은 했다마는 그 부인으로 말하면 성판서대감의 손녀딸로 이웃마을로 출가한지 한달도 못되어 이름 모를 병으로 남편이 죽고 혼자 수절하고 사는 규수이며 친정에 와서 당분간 있는 열녀부인이다.」라고 말을 해준다.

하도령이 어머니에게 말씀을 들은 다음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오나 어차피 내가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매일반이니까 내가 용기를 내어서 소원성취나 해보자.

어차피 유부녀는 아니니 내 꼭 한번 만나서 결단을 내리라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그날부터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건강을 회복시키고 용기를 원상복귀 시킴이리라.

그로부터 삼사일간 그 집 종들을 매수하여 성부인이 거처하는 방을 알아 놓았다.

그날밤 의관정제하고 담을 뛰어 넘어서 성부인이 거처하는 방앞에 이르러 문틈으로 들여다 본다. 바느질을 하고 있는 고요하고 단정한 모습이다.

문을 살짝 당겨보니 고리가 잠겨 있다. 기침을 살짝한 다음,

「부인, 부인, 용서하십시오.」

소곤거리다 시피 말머리를 끄내고

「제가 부인을 뵈고 싶어서 병이 났읍니다. 부인께서 제 청을 안 들어 주시면 저의 생명은 끝이 납니다. 무슨 짓이라도 하겠으니 제 청을 들어 주십시오.」

한참동안 정신없이 주서 섬기고 나니 가슴도 차분해지고 마음도 가라앉는다. 그리고 방안에 동정을 살피는데 천만 뜻밖에도 방 안에서 피끄리같은 고운 목소리가 들리는데 그 말이 이외이다.

「네 - 뉘때 도령이신지 모르겠사오나 하치않은, 아녀자로 인하여 그토록 심려하신다니 죄송합니다. 허물치 마시고 이리 들어오십시오.」

말하더니 문고리를 벗겨준다. 얼마나 좋았던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방문으로 들어갔다.

성부인은 두말 할 것도 없이 일어서더니 의장에서 침구를 꺼내어 공손한 동작으로 요와 이불을 편다.

「도령님, 다 벗으시고 침구안에 누우세요.」

하도령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솟구쳐 오르고 머리에서는 현기증이 난다. 잠시 밖에 다녀오겠습니다 말하며 살짝 옷을 벗어 보이더니 나가버린다.

하도령은 더 말할 것도 없이 훌쩍 벗고 이불 속으로 들어 누우며 여러가지 공상을 하고 있다.

얼마 후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더니 부인

의동작은 아까 나갈때와는 달리 민첩하게 움직이며 하도령이 덮고 누워있던 이불을 걷어치우더니 앞치마 속에서 회초리 하나를 꺼내서는,

「이놈! 글에는 힘을 안쓰고 아직도 어린놈이 여색을 밝혀, 패섬한 놈 같으니」라고 하면서 발가벗은 하륜의 몸에 사정없이 매질을 한다.

하륜으로서는 청천벼락이요, 자기 부모에게도 이토록은 맞아보질 않았다.

아프고 창피하기도 하지만 내가 실수를 했으니 도리가 없고 또 소리를 지르고 싸움하고 대항할 수도 없으니 도리가 없고, 또 소리를 지르고 싸움하고 대항할 수도 없는 처지다. 얼마동안을 맞고보니 온 몸이 울먹이 뱀과 같이 되고 피가 다 뺏혀 있다.

매를 그친 성부인은 조금도 미안한 생각도 부끄러움도 보이지 않고 의관을 가까이 에 밀어주며 하는 말이,

「앞으로는 조금이라도 그런 잡념을 먹지 말고 부지런히 공부해서 입신양명할 생각이 나 하시오. 그 대신 오늘 일은 누구한테도 비밀로 해드리겠습니다.」

말하더니 바깥으로 나가 버린다.

창피를 톡톡히 당하고 나니 마음도 몸도 아프기가 한이 없다.

정신없이 옷을 주어 입고 담을 넘어 자기 방으로 와서 생각하니 창피하고 맹랑한 일을 당했다.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하니 참으로 창피하고도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그 성씨 부인이 그렇게 패섬할 수

가 없다. 차라리 그럴바에야 애당초 상대를 말아야지 사람의 애간장을 닳도록 만들어 놓고 배신을 해, 패섬한 계집같은이라구. 오냐 두고보자. 내 기필코 장원급제 해가지고 너에게 복수할 것이다.

그날부터 만 1년이 지났다.

한양에는 조선팔도 방방곡곡에서 모여든 선비들이 앞으로 베풀어질 과시에 응하기 위하여 운집해 있었다.

과시날이 돌아왔다.

수백명의 선비들은 자기 자리를 잡고 운자가 나붙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이 조용하다.

이 자리에는 하선비도 끼어앉아,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기다리고 있다. 생각하면 성씨부인에게 1년간 수모당한 이후 얼마나 기다렸던 이 날인가?

시제가 나붙었다.

선비들은 각각 자기 나름대로 써서 시관에게 제출한다.

하륜선비도 다른 선비보다 속하게 시관앞에 내졌다.

그후로 약 2시간이 경과했다.

장원과 급제한 사람의 이름이 나붙는다. 여러 선비들은 우루루 달려가서 눈을 부비며 장대를 바라본다.

장원한 사람의 이름은 분명히 다른사람이 아닌 하륜의 이름이 나붙은 것이다. 하륜은 믿어지지가 않아서 두번세번 눈을 씻고 씻어가며 확인했으나 꿈이 아니고 진정 생시임에 틀림없다.

얼마나 기다렸던 장원인가. 1년전 성부인

에게 당하던 창피와 수모, 그 결심했던 결과에 열매가 맺어진 것이다. 과연 조금 후 장원에 경상도 창령부 하륜하고 호명한다.

하륜은 어전에 부복한다.

「경이 하륜인가?」

「네— 성은이 백골난망이로소이다.」

「장원은 단상에 오르라.」

하륜이 분부를 받잡고 단상에 부복한다. 곧 풍악이 울리며 상감께서 손수 어수로 금배 석잔을 내리신다.

관복이 하사되며 접지가 내려지는데 창령부사였다.

관자와 더불어 접지를 품안에 넣고 축연이 끝이 나차 나귀에 오른다. 나졸이 앞뒤에 서고 풍악을 울리고 구종별배가 따르니 그 행렬이 화려웅장하니 보고듣는 사람들은 칭송과 부러워함이 그칠 길이 없다.

며칠 후 창령에 도착하는 도중에 하륜은 몇번이고 생각한다.

만일 성부인이 그 당시 나의 요청을 들어 주었던들 나는 지금 어찌됐을까. 지금쯤은 주석에 빠져 보잘것 없는 패륜 선비가 됐을 것이며, 재산은 탕진되고 가문은 말할 수 없는 멸시를 받게 됐을 것이다.

이쯤 생각이 드니 성부인은 원수가 아니라 진실로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은인이요 스승이었다.

하륜은 도착즉시 성부인을 부르도록 했다.

잠시 후 성부인은 사인교에 실려 하륜의 집으로 온다. 하륜 부사댁 사당에는 하례객들로 꽉 차있다. 내당으로 안내되어 들어가니 하륜의 어머니와 누이가 친절하게 대우

한다.

성부인이 와 있다는 전갈을 받은 하륜은 즉시 내당으로 든다. 성부인은 수줍고 부끄러운 얼굴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짙짙 맨다.

「부인! 어려워마시고 편히 앉으십시오.」 하고,

「자— 선생님, 절 받으시지요. 그때 이 사람에게 벌을 주시지 않았던들 오늘과 같은 영광은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원 별말씀을 다하십니다. 오히려 요망스럽다고 속으로 욕하셨을 것입니다.」

「아니요. 그때는 참으로 경솔했음을 사과드리는 바이오. 그리고 부인에게 한가지 청이 있으니 들어 주시겠습니까?」

「네— 무슨 말씀이시옵지요?」

「오늘부터 이 사람의 아내가 돼주실 수 없습니까? 은혜를 사랑으로 갚아드릴까 합니다.」

그말을 듣는 순간 성부인은 얼굴이 붉어지며 가슴에 고동아 친다.

여기에서 만일 내가 승락만하면 부사의 부인으로 일평생 행복하게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청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나는 벌써 현색시가 된 몸이다. 그리고 옛 남편이 황천에서 올 것이다.

「네— 부사님의 고마우신 말씀 은혜 백골난망이옵니다. 그러나 소첩은 미천한 몸, 감히 어찌 부사님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천부당 만부당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부족하와 청을 받아들일 자격이 없습니다만 제가 좋은 신부감을 증명하겠으니 허락하여 주시겠습니까?」

그 말에 어머니도 부사도 옳게 생각되어
중매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한다。」

「말씀하십시오。」

「예 — 그 규수감은 다른 사람이 아닌 첩
의 동생으로 방년 십팔세에 이름은 성정경
이라 하옵니다. 미겨하고 부족한 점은 많사
오나 사서오경까지 탐독하였으며 명필문장
으로 부끄러움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인물도 소첩은 따를 바가 아니옵니다。」
어머니도 하부사도 성부인의 언어법절과

행동거지가 위낙 얌전하고 인물도 고운 파
부이니 그의 말을 받아들여 승락하고 백일
을 한다음 급히 혼례를 치루니 훌륭한 원앙
의 한쌍이 되고 성부인은 처형이며 스승으
로 그들의 행복을 지켜보며 일생을 정렬부
인으로 살았다.

하륜은 늘그막에 벼슬이 정승이 되니 상
감께 말씀드려 열녀문을 세우고 그 훌륭한
절조를 만천하에 널리 알리게 하고 부녀자
의 귀감으로 삼았다 한다.

— 독자에게 알립니다 —

이 책자에는 군 보안규정에 저촉되는 내용은 게재되어 있
지 않으나 부지불식간에 적의 전략 정보로 오용될 수도 있으
니 독자 여러분은 책자의 취급과 보관에 각별한 주의 있으시
기 바랍니다.

3700

제목: 공군지 189호

1984년 5월 25일 인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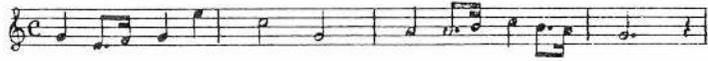
1984년 5월 30일 발행

발행: 공군본부 정훈감실

인쇄: 공군교재창

멋쟁이 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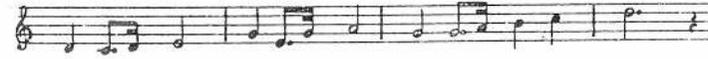
김종린 작사
조광재 작곡



여 기는 의 가 름 는 젊 음 - 의 도 - 장
보 아 라 힘 찬 결 음 멋 쟁 - 이 용 - 사



용 영 한 사 나 이 가 함 계 웅 령 다
승 리 의 태 극 기 훈 훈 이 난 리 버



아 우 - 면 초 전 박 살 노 도 - 와 같 이
새 막 - 사 기 수 되 어 노 도 - 와 같 이



경 화 의 꽃 을 심 는 멋 쟁 이 용 사
우 리 는 달 리 산 다 봉 일 의 길 을



안 거 라 추 복 이 며 이 넓 은 가 슴 게



너 와 나 새 역 사 의 주 인 - 공 이 다

軍人의 길

나는 榮光스런 大韓民國 軍人이다.

하나.. 나의 길은 忠誠에 있다.

祖國에 몸과 마음을 바친다.

하나.. 나의 길은 勝利에 있다.

不屈의 鬪志와 戰技를 닦는다.

하나.. 나의 길은 統一에 있다.

기필코 共産敵을 쳐부순다.

하나.. 나의 길은 軍律에 있다.

嚴肅히 禮節과 責任을 다한다.

하나.. 나의 길은 團結에 있다.

指揮官을 核心으로 生死를 같이

한다.



공군의 결의

우리는 자랑스런 필승의 공군이다.

엄정한 군기 아래 깨끗하고 씩씩하며
서로 도와 단결하여 책임을 완수하고
나아가서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